

#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8-02-04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 새국어생활

제28권 제4호(2018년 겨울) Vol. 211

**인쇄일·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펴낸이** 국립국어원장

**편집위원** 류지철·박기영·박재현·이상혁·이호승

**기획·편집** 김문오·박주화·홍규화

**제작** (주)늘품플러스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27

#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4호 · 겨울



국립국어원

#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4호·겨울

## 차례

### [특집] 남북 소통을 위한 분야별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 9

권재일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과 과제 ..... 27

한용운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검토 -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53

김한중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 방향

- 체육 분야와 비교하며 .....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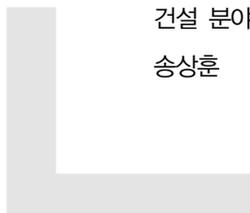
신중진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97

류지성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123

송상훈



**지금 이 사람**

국어학, 연구에서 소통으로

- 김미형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 ..... 155

김태경

**문학 속 우리말**

문학, 밥상을 그리다 ..... 169

우신영

**삶과 우리말**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다 ..... 181

한성우

**세계의 언어 정책**

최대한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 191

강미영

**배움터 풍경**

선생님, 저희 토론 더 하게 해 주세요

-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협력: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토론학교 이야기 ..... 213

김진익

국립국어원 소식 ..... 227



특집

남북 소통을 위한  
분야별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 1. 머리말

‘텍스트언어학’과 ‘본문언어학’은 어떠한 관계일까? 이는 ‘text linguistics’에 대한 남한과 북한 각각의 언어학 전문용어이다. 남한 학계에서는 영어 그대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 학계에서는 ‘text’를 ‘본문’이라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두 예를 더 들어 보자. ‘말뭉치언어학’과 ‘코퍼스언어학’이 있다. 이는 ‘corpus linguistics’에 대한 남한과 북한 각각의 언어학 전문용어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corpus’를 그대로 ‘코퍼스’라고 사용하고 있고, 남한 학계에서는 이를 ‘말뭉치’라는 고유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기지’가 있는데, 이는 ‘database’에 대한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전문용어이다. 위에서 몇몇 언어학 용어를 들어 보았듯이 남북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다.

그동안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와 통합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남북 언어 통합 과제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대에 남북한 컴퓨터

\* 이 글은 글쓴이가 2018년 10월 26일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 회의’(주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추려 다시 쓴 것이다.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 이후[홍윤표·진용욱(1996)],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최기선(2001·2002·2003), 김광수(2004)의 기반 연구에 이어, 남북 언어학 용어 표준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고[권재일(2006)], 남북 체육 용어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최기호(2008)]. 그 이후 남북 무역 용어 비교 연구가 이어졌으며 [조명철(20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3개 학문 분야의 남북 용어 비교, 한국표준협회와 정보통신기술협회의 관련 분야 남북 용어 비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남북학술용어 비교사전》 편찬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를 비롯하여 [김문오·전수태(2007), 김선철·김건희(2008)], 최근 몇 해 동안 언어 정책 차원에서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신중진 외 (2015·2016) 등]. 이 모든 것은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제 이러한 앞선 연구에 바탕을 두고 남북 전문용어의 현실과 이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통합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남북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2. 남북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남북 교류가 잦아지면서 우리는 방송에서 남북 회담에 참여하는 북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한다. 남한 말과 북한 말의 차이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 남북의 언어 구조는 상당 부분 같고, 얼마간의 어휘 차이가 있는 정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개념을 남기심(2002)에서 인용해 보자.

“예부터 남이나 북에 여러 지역 방언이 있었다. 이런 방언적 차이를 이질화라 할 수 있는가? 동일한 언어가 지역 간의 교류가 끊김으로써 이질화하여 분화되기에 이르는 것은, 음운 체계의 변화, 문법의 변화로 인하여 어휘의 발음 구조가 달라지고 문장 구성 방법이 달라지며, 어휘 체계도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의 심각한 이질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남북 간의 언어 사이에는 심각한 음운 체계상의 변화도 없고, 문법상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남북은 분단 이후 일상생활 용어로부터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어휘에 차이가 나며 한글 표기법도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고, 언어 문화의 차이로 화법의 특징도 서로 다르다. 남북 어휘의 차이는 주로 광복 이후에 생겨난 말에서 나타나며,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로 감사, 요청, 거절, 사과 등과 같은 화법에서 남한은 주로 간접 화법이, 북한은 주로 직접 화법이 쓰여 서로의 대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 2.1. 남북 언어의 차이

광복 이전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가 1933년에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1937년에 표준말을 사정하여 보급·교육한 결과, 남북은 표준화된 언어 및 문자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분단 초기에도 남북은 이러한 표준화된 언어 및 표기법을 가졌는데 조선어학회 임원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동일한 언어 정책을 펼쳐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남한은 문교부 편수국을 책임진 한글학회의 최현배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 정책을 수립하였고, 북한은 조선어학회의 간사장을 맡았던, 1948년 4월 남북 여러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러 평양에 갔다가 잔류한, 이극로를 중심으로 언어 정책을 펼쳤다. 이렇듯 현재 남북이 분단 70년이 지났음에도 언어

체계의 근본 차이가 없고 표기법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1] 분단 이전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언어와 표기법을 표준화했다는 점과, [2] 분단 이후 남북의 언어 정책을 담당한 학자들이 모두 같은 조선어학회에 뿌리 두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런데 분단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언어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 분단 이후 이러한 남북 언어 차이의 원인은 다음 유형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1966년 이후 김일성 교시에 따라 문화어를 제정하면서 평안 방언, 함경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경우이다. 광복 이전부터 남북 언어에는 방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북한의 문화어 가운데 남한 말과 서로 다른 경우는 이러한 평안 방언이나 함경 방언을 문화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채소’에 대한 ‘남새’, ‘거위’에 대한 ‘개사나’, ‘누룽지’에 대한 ‘가마치’, ‘곶’에 대한 ‘인차’, ‘값이 헐하다’에 대한 ‘값이 눅다’ 등이다.

둘째, 같은 어휘를 남북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이다. 남한에서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는 광복 이후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선동’의 경우,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북한에서는 정책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부추기고 호소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바쁘다’의 경우,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힘에 부치어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일없다’의 경우,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분이 상했을 때 쓰지만, 북한에서는 예사롭게 괜찮다는 뜻으로 쓰인다.

셋째, 분단 이후 남북이 새로 만들어 쓰는 다듬은 말과 외래어의 경우이다.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새로 쓰는 어휘에는 다듬은말과 외래어가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 따라 다듬은말에는 ‘서커스’에 대한 ‘교예’, ‘홍수’에 대한 ‘큰물’, ‘혈액 순환’에 대한 ‘피돌기’ 등이 있다.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남한

과 달라진 외래어, 외국 지명의 경우로, ‘컴퓨터-콤퓨터, 로켓-로케트, 루마니아-로므니아, 폴란드-뿔스카, 헝가리-웡그리아’ 등이 있다.

## 2.2. 남북 언어 차이의 극복 과제

이와 같은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통일 시기에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원활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사회·문화 갈등이 일어난다. 실제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 고려인 등 다소 차이 나는 한국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반드시 미리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어휘의 차이, 공공언어의 차이, 전문용어의 차이, 표기법의 차이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첫째, 남한 사회에서 외래어, 외국어를 마구 쓰는 것을 줄여 가야 할 일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 말에는 최근 수많은 외래어, 외국어가 쓰이고 있어서 남북 언어의 어휘가 차이 나는 원인이 된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로 꼽는 것이 지나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언어의 통합을 위한 절실한 과제는 바로 남한 말에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이 쓰는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다듬는 일이다.

둘째, 언어문화와 화법 차이를 서로 이해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고마움을 전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이라거나 사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쑥스러움도 모르는 가벼운 사람들과 오해하고,

남한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상황에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을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라 오해한다. 따라서 서로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셋째, 남북에서 서로 다르게 쓰는 전문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해야 할 일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사회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때만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해당 분야의 정확한 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북의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다면 통일 시기에 문헌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보 검색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 사회로서의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뜻에서 이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남북 전문용어의 현실과 통합의 필요성

#### 3.1. 전문용어와 그 분류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정확하게 규정된 과학적 개념과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 전문용어는 일반 용어와 구별되는 조어 방식, 의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전문용어는 간결성과 정확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도구로써 기능을 수행한다[김광수(2004), 신중진 외(2015)].

전문용어는 어휘의 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언어학에서 음운론의 예를 들어 보자. '말소리'는 고유어에서 기원한 것이고, '음소'는 한자 말에서, '악센트'는 (서양)외래어에서 각각 기원한 것이라 하겠다. 고유어와 한자어, 또는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가 함께 쓰인 것도 있다. 전문용어는 조어 방식에 따라 단일어, 복합어로 나뉘 수 있으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권재일(2006) 참조).

전문용어의 실제 양상을, 남북 모두 가장 규범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학교 문법의 음운론 용어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의 학교 문법 서인 《고등학교 문법》(2002)에 나타난 음운론 용어를 찾아 살펴보면, 모두 94개 용어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고유어가 32개이고, 한자어가 62개이며, 서양 외래어는 하나도 없다. 남한의 학교 문법 용어는 이미 오래전에 한자어 기원으로 통일한 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자어 용어가 중심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달리 음운론의 경우는 고유어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전체의 1/3을 넘어선다. 북한의 학교 문법서인 《국어문법》(2001)에 나타난 음운론 용어를 찾아 살펴보면, 모두 41개 용어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고유어가 35개로 압도적이며, 한자어는 6개로 나타난다. 다음은 몇몇 예를 들어 대조한 것이다.

(1) 남북 음운론 용어 대조

낱	북
자음	자음
모음	모음
음절	소리마디
예사소리	순한소리
단모음	홀모음
된소리	된소리
이중모음	겹모음
거센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울림소리
구개음화	‘지, 치’로 되기

또한 전문용어는 그 수준, 또는 용도에 따라 교육용 전문용어와 학술·산업용 전문용어로 나눌 수 있다. [1] 교육용 전문용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이다. [2] 학술·산업용 전문용어란 학술 전 분야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이다. 한편 최근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를 기초 전문용어와 심화 전문용어로 나누고 있다[신중진 외(2015)]. 기초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의 기초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심화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

### 3.2.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남북의 전문용어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 학문 연구와 교육 풍토의 차이, 외부 세계와의 학술 교류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권재일(2006)].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여 연구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인 김문오·전수태(2007)은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등 8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고, 이에 이어진 연구인 김선철·김건희(2008)은 국어 문법, 문학, 기술, 미술, 음악, 지구 과학, 국토 지리, 세계 지리, 한문 등 9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다. 실제 예를 국사 교과서인 남한의 《국사》와 북한의 《조선력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 교과서에서는 1,040개 용어, 북한 교과서에서는 596개 용어가 대상이 되었다. 대응 쌍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남북의 용어가 같은 것은 168개이고 차이 나는 것은 109개이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갑오개혁/1894년부르조아개혁’, ‘6·25전쟁/조국해방전쟁’, ‘임진왜란/임진조국전쟁’, ‘통일신라/후기신라’ 등으로 대응된다. 다음 (2)는 용어가 같은 예이고 (3)은 용어가 서로 다른 예이다.

## (2) 남북 국사 교과서의 같은 용어(168개)

## 1. 고유어(5)

무명, 설기떡, 수리취떡, 시루, 움집

## 2. 한자어(156)

가야, 갑신정변, 금당벽화,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평양천도

## 3. 외래어(1)

카프

## 4. 고유어+한자(5)

거북선

## 5. 한자어+외래어(1)

레닌주의

## (3) 남북 국사 교과서의 서로 다른 용어(109개)

## 1. 고유어↔고유어(1)

고인돌↔고인돌무덤

## 2. 한자어↔한자어(70)

고려청자↔고려비색자기, 광개토태왕릉비↔광대토태왕릉비, 임술농민  
봉기↔1862년(전국)농민폭동, 임오군란↔1885년(임오)군인폭동

## 3. 외래어↔외래어(3)

러시아↔로씨야

## 4. 한자어↔고유어(2)

토기↔질그릇, 삼국시대↔세나라시기, 왕오천축국전↔다섯개의 천축  
국에 갔다는 이야기, 위화도회군↔위화도군사돌림

남북이 서로 다른 것은 대개 어문 규범의 차이에 의한 것과 말다듬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먼저 어문 규범의 다름에 따른 차이인데,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것 11개, 외래어 표기의 차이에 따른 것 12개이다. 어문 규범 차이의 중요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에서는 ‘고령가야/고녕가야’, ‘나당연합군/라당련합군’, ‘상경용천부/상경룡천부’, ‘양반전/량반전’, ‘용비어천가/룡비어천가’ 등으로 대응된다. 물론 인명에서 두음 법칙 적용 여부로 차이가 나는 것도 많다.

외래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대응되고 ‘외래어+한자어(남)↔한자어(북)’ 유형에서는 ‘메이지유신/명치유신’, ‘운요호사건/운양호사건’ 등으로 대응되며 ‘외래어+한자어(남)↔외래어+한자어(북)’ 유형에서는 ‘헤이그특사사건/헤그밀사사건’, ‘아마토조정/아마또왕정’ 등으로 대응된다.

다음은 말다듬기의 차이이다. 남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해 북한에서는 고유어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다. ‘한자어(남)↔고유어(북)’ 유형에는 ‘송하보월도/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가 있다. 그리고 ‘한자어(남)↔고유어+한자어(북)’에서 ‘노랑해전/노랑바다싸움’, ‘목판인쇄/나무판 인쇄’, ‘몽유도원도/꿈에 본 동산’, ‘보부상/보집장사군’, ‘세형동검(細型銅劍)/좁은놋단검’, ‘자격루/자동물시계’ 등이다.

남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하여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다. 북한에서는 ‘대첩(大捷)’을 ‘대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승리’라고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하여 남한에서는 ‘고유어+한자어’의 합성 용어로 쓰는 사례가 있다. ‘펜석기/타제석기’, ‘간석기/마제석기’ 등이 그러하다.

### 3.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

통일 시기의 남북 언어 차이, 특히 전문용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 안으로 통합하여 보급·교육하는 목적은 통일 이후에 통일 국가 국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통일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남북 주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용

하는 행정 전문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전문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통일 국가 미래 세대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전문용어 표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차이, 전문용어의 차이로 남한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차별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언어 차이로 인한 남북 갈등과 불만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 4.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방향

### 4.1. 원칙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또는 그 논의를 전개할 때 미리 전제해 두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언어학적 합리성을 존중하며,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4.2. 고려 사항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또는 그 논의를 전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간 남북의 언어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학술회의를 통해 어휘 표준화에 대해 학술 토론을 이어 왔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실제로 남북 어휘 표준화를 실천해 왔다. 따라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실질적 추진 방식은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의 대표 사전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것은 그대로 표준화한 어휘로 삼고, 형태나 의미에서 차이 나는 것은, [1] 남한의 어휘로 표준화하거나, [2] 북한의 어휘로 표준화하거나, [3]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4]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함께 쓰는 복수 어휘로 삼는다.

둘째, 남북 전문용어 통합은 연구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 기구에서 표준화한 성과는 언어 사용자들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통합안을 적극 교육하고, 언론은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 동포들에게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의 《조선말규범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의 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집을 편찬하여, 즉 남한의 전문용어, 북한의 전문용어, 남북의 통합 전문용어를 정리한 대조집을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 기기와 같은 다양한 전자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4.3. 추진 단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제1단계] 통합 구축 단계

기존의 남북 전문용어 실태를 분석하여 보완할 부분을 찾아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문어 및 구어 자료 말뭉치를 확대 구축하여 전문용어 통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 [제2단계] 통합 접근 단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급하여 확산한다. 전문용어 통합안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 상담 기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제3단계] 통합 정착 단계

표준안을 실제 교육, 학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 4.4. 교육용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단계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고 이를 보급·교육하여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은 교육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다.

[제1단계] 남북의 초·중등학교 각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제2단계] 남북의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 방식은 (1) 남한의 어휘로, (2) 북한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 정책가, 국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교육용 전문용어 편수자료집’을 제작하여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 기기와 같은 다양한 전자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3단계] ‘교육용 전문용어 편수자료집’을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 4.5. 학술·산업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단계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관련 학술 분야 내부 소통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한편 궁극적으로는 학술 및 산업 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어의 장기적 발전을 향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술 전 분야 및 산업 현장의 전문용어는 실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분야 간 통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분야별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다.

[제1단계] 각 분야의 학술 단체를 통해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행정, 의학·보건, 정보 통신, 경제·금융, 법률, 교육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분야는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제2단계] 남북의 서로 다른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하는 방식은 (1) 남한의 어휘로, (2) 북한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 정책가, 국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분야별로 '학술·산업 전문용어 대조집'을 제작하여 해당 학계와 현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 기기 와 같은 다양한 전자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3단계] '학술·산업 전문용어 대조집'을 해당 학계와 현장에서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학계 및 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남북의 전문용어의 현실과 이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고 이를 보급·교육하여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관련 학술 분야 내부의 소통과 산업 발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술 및 산업 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시기에 이러한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정책이야말로 통일 국가 언어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믿는다. 국어 정책 당국과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으로 전문용어의 국어화와 통합의 또 하나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한국어를 지키는 일이다. 언어학자들은 미래에 언어의 소멸 속도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앞으로 300년 이후에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도 절멸할까? 그러나, 한국어는 저 만주어처럼 절멸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한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 다양성이 사라지고 정보와 경제가 앞선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저 부탄의 종카어나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처럼 한국어도 가정 언어 또는 생활 언어에 머물고 교육용 전문용어, 학술·산업 전문용어와 같은 전문 언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전문용어의 국어화이다.

영어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문용어의 국어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어의 절멸 과정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한국어 보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다듬어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언어가 지금 일상생활 용어로만 사용되고 전문용어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위상이 낮아지고 사용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전문용어가 외국어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용어의 국어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 참고 문헌

- 강현화(2011),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구현정·권재일·전정미·양수경(2016),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 차이 극복 방안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상명대학교 천안 산학협력단.
- 국립국어연구원(1996), 《컴퓨터 처리 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2017),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 국립국어원.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쪽.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재일(2016), 《언어 표준 체계 통합》, 미간행.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문오·전수태(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15~23쪽.
- 김선철·김건희(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7~12쪽.
- 문영호(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14~22쪽.
- 신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대성 외(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 185~210쪽.
- 이승재(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이찬규·양명희·임현열·최유숙·이대성(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조명철(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 남북언어와 중국 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 국립국어원, 33~52쪽.
- 최기선(2001·2002·2003),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최기호(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국어단체연합.
- 홍윤표·진용옥(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국어정보학회·문화체육부.
- 홍중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과 과제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

### 1. 들어가는 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남과 북은 ‘여자 농구’, ‘조정’, ‘카누’ 종목에서 단일팀을 꾸렸다. 근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일팀 결성은 향후 남북 교류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단일팀을 꾸리고 나니 세 종목 모두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단체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과 북의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 용어들이 달라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남측의 ‘패스(pass)’, ‘덩크 슛(dunk shoot)’, ‘드러머(drummer)’는 북측에서 각각 ‘연락’, ‘꽂아넣기’, ‘북잡이’로 쓰고 있어 남북 경기 용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단일팀에서는 남북 경기 용어 대조집을 급히 만들어 함께 사용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고 한다.

남북의 우리 겨레는 서로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별다른 교류 없이 70여 년을 지냈다. 그 결과 남북 겨레는 사유 방식이나 생활 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 어휘의 차이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왜냐하면 어휘는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과 북은 같은 사물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말에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있고, 또한 표기법 및 표현 방식(사과나 감사 표현 등)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단일팀의 예에서처럼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남북 어휘 대조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특정 분야나 단체에서 상대측 어휘를 이해할 목적으로 남북 어휘 대조집을 만드는 작업은 간단하지만, 남북 어휘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 어휘 전반을 대조하여 통합하는 작업은 단번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체제 통일 이전에 남북 합의로 남북 어휘 통합 및 통일<sup>1)</sup>을 위한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단계별 작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용어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및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대사전을 비교할 것인데,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전은 남측의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7)이다.<sup>2)</sup>

1) 이 글에서는 '통합'과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어휘 통합'은 "분단된 현 시점에서 남북 어휘를 대조하여 남북 공통 규범어(단수규범어 및 복수규범어)를 마련하는 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어휘 통일'은 "체제 통일 이후에 남북 공통 규범어를 토대로 하여 통일 규범어를 확정하는 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통합'과 '통일'의 대상은 전문 용어를 비롯한 규범어(표준어/문화어)에 한하며, 지역어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금은 체제 통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북 어휘 통합' 작업에 집중하고, 남북 체제가 통일되면 '남북 어휘 통합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남북 어휘 통일' 작업을 하게 된다.

2) 이 글에서는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표대》로,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은 《조대》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 2.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

### 2.1. 남북 사전의 올림말 비교

《표대》와 《조대》는 각기 남과 북의 정부 주도로 편찬한 사전이고, 올림말(표제어) 또한 최대로 수록된 사전이어서 남북 어휘 차이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이 두 사전에 수록된 올림말을 세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표대》와 《조대》의 올림말 비교

사전	《표대》(1999)			《조대》(2006)		
① 올림말	439,816개(총 506,276개, 북한어 66,460개 제외 <sup>3)</sup> )			352,943개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sup>4)</sup>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sup>5)</sup>
	217,035개	192,208개	30,573개	271,860개	43,079개	38,004개
②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	228,474개			138,472개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75,635개	126,232개	26,607개	101,247개	25,726개	11,499개

《표대》의 총 올림말 수는 506,276개인데, 이 중 북한어 66,460개를 제외한, 439,816개가 남측에서 쓰이는 올림말이다. 439,816개의 올림말 가운데 전문용어는 192,208개로 전체 올림말 수 대비 43.7%에 이른다.

- 3) 《표대》에는 '북한어'가 올림말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북한어'는 '남측 단어'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남북 올림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표대》의 전체 올림말에서 일반어와 전문용어를 제외한 수치로, '지역어', '은어', '고어' 등을 합한 수치이다.
- 5) 《조대》의 전체 올림말에서 일반어와 전문용어를 제외한 수치로, '지역어', '글체', '말체', '낱은말', '임시올림말', '옛말' 등을 합한 수치이다.

그리고 《표대》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228,474개로, 전체 올림말 수 (439,816개) 대비 51.9%에 이른다. 《표대》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조대》의 올림말을 비교했을 때 52% 정도의 남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대》의 총 올림말 수는 352,943개이다.<sup>6)</sup> 이 가운데 전문용어는 43,079개로 전체 올림말 수 대비 12.2%에 이른다. 《표대》에 비해 전문용어 올림말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조대》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138,472개로, 전체 올림말 수 대비 39.2%에 이른다. 《조대》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표대》의 올림말을 비교했을 때, 39% 정도의 남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어에서보다 전문용어에서 더 심각하다. (1)의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 가운데 남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는 《표대》 전체 전문용어 대비 65.6%에 이른다. 그리고 《조대》 전체 전문용어 대비 59.7%가 북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이다. (1)의 통계에 따르면, 남북 겨레는 상대측 전문용어의 60%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2.2. 《표대》와 《조대》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

남북 두 사전의 전문용어 분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대》에서는 전문용어를 53개 영역으로 분류한 데 비해, 《조대》에서는 전문용어를 47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남북 두 사전의 전문용어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북측에서는 남측과 달리 '속담'과 '성구'를 올림말에 포함하여 통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여기서는 남측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속담'과 '성구'를 올림말 수에서 제외하였다.

## (2) 《표대》의 전문용어 영역

<가톨릭>, <건설>, <경제>, <고유 명사>, <고적>,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논리>, <농업>, <동물>,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수공>, <수산>, <수학>,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연영>, <예술>, <운동 오락>, <음악>, <의학>, <인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철학>, <출판>, <컴퓨터>, <통신>, <한의학>, <항공>, <해양>, <화학> (총 53개 영역)

## (3) 《조대》의 전문용어 영역

<건설>, <경제>, <고고>, <금속>, <기계>, <기상>, <광업>, <농학>, <력사>, <논리>, <림학>, <무용>, <문예>, <문학>, <물리>, <미술>, <법률>, <생리>, <생물>, <방직>, <수리>, <수산>, <수학>, <심리>, <약학>, <언어>, <연극>, <영화>, <운수>, <음악>, <의학>, <자동차>, <잠학>, <전기>, <전자>, <정보>, <지리>, <지질>, <천문>, <철학>, <축산>, <출판>, <체신>, <체육>, <해양>, <화학>, <화학공업> (총 47개 영역)

(2)와 (3)을 비교해 보면, 《표대》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와 같은 종교 관련 영역을 《조대》에서는 전문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대》에서는 ‘고유 명사’, ‘인명’, ‘지명’, ‘책명’과 관련된 단어를 올림말로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전문 영역이 없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의 단어에 한해 일반어로 수록하기도 하였다. 즉, 《표대》에서 ‘고유 명사’로 수록한 ‘게르만족’, ‘노벨상’ 등의 단어들과, ‘책명’으로 수록한 ‘훈민정음’, ‘간이벽온방’ 등의 단어들, ‘지명’으로 수록한 ‘백두산’, ‘금강산’ 등의 단어들을 《조대》에서는 일반어로 수록하였다. 또한 《표대》에서 ‘인명’으로 수록한 ‘공자’, ‘뉴턴(뉴턴)’과 같은 인명도 《조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임시올림말<sup>7)</sup>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표대》의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언론’, ‘정치’, ‘항공’ 등의

영역도 《조대》에서는 전문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조대》에서는 이들 영역에 속한 《표대》의 어휘 가운데 일부를 일반어로 수록하고 있는데, 그 올림말 수가 《표대》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즉 《표대》에서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고유 명사’, ‘인명’, ‘지명’, ‘책명’,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언론’, ‘정치’, ‘항공’으로 분류하여 올림말로 수록한 전문용어는 총 47,674개인 데에 비해, 《조대》에 수록된 동일 전문용어 수는 총 10,026개에 불과하다. 또한 《조대》에서는 ‘느티나무’, ‘늑대’처럼 《표대》에서 ‘식물’이나 ‘동물’ 분야 전문용어로 분류한 어휘도 일반어로 분류하고 있어 《표대》의 분류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표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가 《조대》보다 많고, 《표대》에만 수록된 일반어가 《조대》보다 적다.

《표대》와 《조대》에 수록된 전문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표대》의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조대》의 전문용어를 비교하고, 또한 《조대》의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표대》의 전문용어를 비교해 보았다.

(4) 《표대》를 기준으로 한, 《표대》와 《조대》의 전문용어 비교

	전문 영역	《표대》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8)</sup>
1	가톨릭	1,106	297 (일반어: 294/그 외: 3) <sup>9)</sup>	1,403	21.169
2	건설	2,743	1,836 (일반어: 1,214/건설: 536/그 외: 86)	4,579	40.096
3	경제	6,571	1,309 (일반어: 729/경제: 552/그 외: 28)	7,880	16.612

7) 《조대》에서는 ‘공자도 제 사는 곶에 먼저 비오라고 했다’, ‘뉴턴의 제법칙’ 등의 ‘속담’이나 ‘관용구’를 수록하기 위해 일부 ‘인명’을 올림말로 수록했다. 그렇지만 이 올림말에는 뜻풀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임시올림말’로 명명하였다.

	전문 영역	《표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8)</sup>
4	고유 명사	455	35 (일반어: 34/그 외: 1)	490	7.143
5	고적	1,726	394 (일반어: 282/고고: 99/그 외: 13)	2,120	18.585
6	공업	1,577	698 (일반어: 386/금속: 131/그 외: 181)	2,275	30.681
7	광업	1,321	955 (일반어: 616/광업: 119/그 외: 220)	2,276	41.960
8	교육	868	395 (일반어: 385/그 외: 10)	1,263	31.275
9	교통	764	201 (일반어: 138/운수: 58/그 외: 5)	965	20.829
10	군사	2,370	1,570 (일반어: 1,545/그 외: 25)	3,940	39.848
11	기계	961	410 (일반어: 183/기계: 187/그 외: 40)	1,371	29.905
12	기독교	744	371 (일반어: 370/그 외: 1)	1,115	33.274
13	논리	426	241 (일반어: 113/논리: 91/그 외: 37)	667	36.132
14	농업	1,346	1,264 (일반어: 1,027/농학: 116/그 외: 121)	2,610	48.429
15	동물	5,784	2,997 (일반어: 2,771/생물: 160/그 외: 66)	8,781	34.131
16	문학	2,808	755 (일반어: 553/문학: 138/그 외: 64)	3,563	21.190
17	물리	3,901	2,579 (일반어: 1,006/물리: 1,110/그 외: 463)	6,480	39.799
18	미술	686	500 (일반어: 313/미술: 171/그 외: 16)	1,186	42.159
19	민속	2,415	2,219 (일반어: 2,203/그 외: 16)	4,634	47.885
20	법률	6,611	2,345 (일반어: 1,815/법률: 447/그 외: 83)	8,956	26.184
21	불교	6,752	2,956 (일반어: 2,922/그 외: 34)	9,708	30.449
22	사회	1,536	467 (일반어: 416/그 외: 51)	2,003	23.315
23	생물	2,203	1,044 (일반어: 491/생물: 360/그 외: 193)	3,247	32.153

	전문 영역	《표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8)</sup>
24	수공	943	583 (일반어: 454/방직: 81/그 외: 48)	1,526	38.204
25	수산	258	138 (일반어: 74/수산: 59/그 외: 5)	396	34.848
26	수학	2,052	1,392 (일반어: 585/수학: 770/그 외: 37)	3,444	40.418
27	식물	4,998	5,030 (일반어: 4,634/생물: 357/그 외: 39)	10,028	50.160
28	심리	1,182	287 (일반어: 195/심리: 45/그 외: 47)	1,469	19.537
29	약학	726	437 (일반어: 192/약학: 201/그 외: 44)	1,163	37.575
30	언론	406	103 (일반어: 90/그 외: 13)	509	20.236
31	언어	2,112	1,111 (일반어: 583/언어: 495/그 외: 33)	3,223	34.471
32	역사	8,357	11,530 (일반어: 11,151/역사: 351/그 외: 28)	19,887	57.978
33	연영	875	494 (일반어: 273/영화: 134/그 외: 87)	1,369	36.085
34	예술	707	299 (일반어: 223/무용: 53/그 외: 23)	1,006	29.722
35	운동오락	2,905	1,112 (일반어: 845/체육: 256/그 외: 11)	4,017	27.682
36	음악	4,566	1,451 (일반어: 718/음악: 718/그 외: 15)	6,017	24.115
37	의학	5,289	3,234 (일반어: 1,626/의학: 1,107/그 외: 501)	8,523	37.944
38	인명	10,269	51 (일반어: 47/그 외: 4)	10,320	0.494
39	전기	1,216	714 (일반어: 199/전기: 302/그 외: 213)	1,930	36.995
40	정치	1,309	479 (일반어: 440/법률: 34/그 외: 5)	1,788	26.790
41	종교	622	293 (일반어: 282/그 외: 11)	915	32.022
42	지리	3,060	1,656 (일반어: 790/지리: 333/지질: 263/ 기상: 180/그 외: 90)	4,716	35.115

	전문 영역	《표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8)</sup>
43	지명	6,547	295 (일반어: 289/그 외: 6)	6,842	4.312
44	책명	1,700	325 (일반어: 321/그 외: 4)	2,025	16.049
45	천문	1,165	653 (일반어: 356/전문: 281/그 외: 16)	1,818	35.919
46	철학	1,218	572 (일반어: 355/철학: 198/그 외: 19)	1,790	31.955
47	출판	705	416 (일반어: 264/출판: 142/그 외: 10)	1,121	37.110
48	컴퓨터	879	252 (일반어: 69/정보: 118/전자: 45/ 그 외: 20)	1,131	22.281
49	통신	532	189 (일반어: 103/통신: 67/그 외: 19)	721	26.214
50	한의학	612	3,873 (일반어: 3,762/의학: 86/그 외: 25)	4,485	86.355
51	항공	549	170 (일반어: 153/그 외: 17)	719	23.644
52	해양	472	205 (일반어: 122/해양: 66/그 외: 17)	677	30.281
53	화학	4,327	2,794 (일반어: 836/화학: 1,650/그 외: 308)	7,121	39.236
	계	126,232	65,976	192,208 <sup>10)</sup>	34.325

8) 여기서 백분율은 ‘《표대》 전문용어 총수’ 대비 ‘《조대》 대응 표제어’를 계산한 것이다.

9) ‘그 외’에는 ‘일반어’를 제외한, 다른 전문 분야 용어를 합산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10) 이운영(2002)에 제시된 《표대》의 총 전문용어 수는 225,779개이고, 이 가운데 북측 전문용어 34,345개를 제외한 191,434개의 올림말이 남측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참조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표대》 총 전문용어 수는 225,759개이고, 이 가운데 북측 전문용어 33,551개를 제외한 192,208개가 남측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이다. 두 자료의 통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통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운영(2002)에서는 ‘다의어’면서 『북한어』로 표시된 전문용어(예: 안전시거 ① 『교통』 안전하게... ② 『교통』 굽은 길이나... ③ 『북한어』 『간설』 안전하게 보이는 거리...)를 각기 개별 전문용어 수에 포함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다의어의 경우 하나의 올림말로 통계를 냈다.

《표대》에 수록된 전문용어 총수는 192,208개이다. 《조대》와 비교할 때 전문용어 영역이 6분야 더 많고, 수록된 어휘도 149,129개가 더 많다. 그리고 《표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는 126,232개로, 《조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에 비해 100,506개가 더 많다. 《표대》의 전문용어 총수(192,208) 대비 65.7%가 《표대》에만 있는 전문용어이다.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대》의 전문용어 중 49,837개는 《조대》에 일반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6,139개는 전문 영역이 다른 올림말로 수록되어 있다. (4)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치하는 올림말이 34.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남북의 영역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10개의 단어를 말하면 3.5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관련 영역에서 《표대》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영역 전문용어 총수는 13,141개인데, 《조대》에 수록된 동일 올림말은 3,917개로, 일치도가 29.8%에 그친다. 그리고 ‘역사, 사회, 교육’ 관련 영역에서 《표대》의 ‘고유 명사, 인명, 지명, 책명, 역사, 사회, 교육’ 영역 전문용어 총수는 42,830개인데, 《조대》에 수록된 동일 올림말은 13,098개로, 일치도가 30.5%에 그친다. 또한 ‘건설, 경제, 공업, 화학, 컴퓨터’ 관련 영역에서 《표대》의 전문용어 총수는 22,986개인데, 《조대》에 수록된 동일 올림말은 6,889개로, 일치도가 29.9%에 그치고 있다. 《조대》와 비교했을 때, 특히 ‘고유 명사(7.1%)’, ‘인명(0.5%)’, ‘지명(4.3%)’, ‘책명(16%)’, ‘경제(16.6%)’ 영역에서 올림말 일치도가 현저히 낮고, ‘한의학(86.3%)’, ‘역사(57.9%)’, ‘식물(50.1%)’, ‘농업(48.4%)’, ‘민속(47.8%)’ 영역에서 비교적 올림말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대》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표대》 전문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5) 《조대》를 기준으로 한, 《조대》와 《표대》의 전문용어 비교

	전문 영역	《조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표대》 대응 올림말	《조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11)</sup>
1	건설	1,543	687 (일반어: 79/건설: 534/그 외: 74)	2,230	30.807
2	경제	930	709 (일반어: 64/경제: 552/그 외: 93)	1,639	43.258
3	고고	501	146 (일반어: 17/고적: 99/그 외: 30)	647	22.566
4	광업	547	157 (일반어: 15/광업: 119/그 외: 23)	704	22.301
5	금속	917	257 (일반어: 31/공업: 131/그 외: 95)	1,174	21.891
6	기계	1,384	384 (일반어: 46/기계: 187/그 외: 151)	1,768	21.719
7	기상	235	208 (일반어: 12/지리: 180/그 외: 16)	443	46.953
8	농학	743	165 (일반어: 25/농업: 116/그 외: 24)	908	18.172
9	역사	298	409 (일반어: 26/역사: 350/그 외: 33)	707	57.850
10	논리	32	104 (일반어: 6/논리: 91/그 외: 7)	136	76.471
11	림학	322	54 (일반어: 21/농업: 20/그 외: 13)	376	14.362
12	무용	133	74 (일반어: 13/예술: 53/그 외: 8)	207	35.749
13	문예	113	91 (일반어: 30/문학: 26/그 외: 35)	204	44.608
14	문학	74	171 (일반어: 21/문학: 138/그 외: 12)	245	69.796
15	물리	1,294	1,352 (일반어: 33/물리: 1,107/그 외: 212)	2,646	51.096
16	미술	358	289 (일반어: 57/미술: 171/그 외: 61)	647	44.668
17	방직	541	134 (일반어: 34/수공: 80/그 외: 20)	675	19.852
18	법률	298	529 (일반어: 18/법률: 447/그 외: 64)	827	63.966
19	생리	451	512 (일반어: 16/의학: 386/그 외: 110)	963	53.167

	전문 영역	《조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표대》 대응 올림말	《조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11)</sup>
20	생물	1,411	1,044 (일반어: 40/생물: 360/식품: 356/ 동물: 160/그 외: 128)	2,455	42.525
21	수리	429	53 (일반어: 17/건설: 24/그 외: 12)	482	10.996
22	수산	441	91 (일반어: 23/수산: 59/그 외: 9)	532	17.105
23	수학	533	872 (일반어: 29/수학: 771/그 외: 72)	1,405	62.064
24	심리	38	60 (일반어: 6/심리: 45/그 외: 9)	98	61.224
25	약학	503	309 (일반어: 13/약학: 201/그 외: 95)	812	38.054
26	언어	853	608 (일반어: 60/언어: 495/그 외: 53)	1,461	41.615
27	연극	43	53 (일반어: 8/연영: 40/그 외: 5)	96	55.208
28	영화	141	147 (일반어: 5/연영: 134/그 외: 8)	288	51.042
29	운수	660	165 (일반어: 66/교통: 58/그 외: 41)	825	20.000
30	음악	636	790 (일반어: 27/음악: 705/그 외: 58)	1,426	55.400
31	의학	1,731	1,398 (일반어: 72/의학: 1,106/그 외: 220)	3,129	44.679
32	자동차	219	14 (일반어: 1/컴퓨터: 3/그 외: 10)	233	6.009
33	잠학	162	64 (일반어: 7/농업: 44/그 외: 13)	226	28.319
34	전기	647	440 (일반어: 22/전기: 302/그 외: 116)	1,087	40.478
35	전자	518	233 (일반어: 7/전기: 85/물리: 75/그 외: 66)	751	31.025
36	정보	634	199 (일반어: 23/컴퓨터: 118/그 외: 58)	833	23.890
37	지리	470	397 (일반어: 32/지리: 333/그 외: 32)	867	45.790
38	지질	666	485 (일반어: 15/지리: 263/광업: 166/ 그 외: 41)	1,151	42.137

	전문 영역	《조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표대》 대응 올림말	《조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sup>11)</sup>
39	천문	226	329 (일반어: 12/천문: 282/그 외: 35)	555	59,279
40	철학	95	292 (일반어: 21/철학: 198/그 외: 73)	387	75,452
41	체신	451	151 (일반어: 20/통신: 66/그 외: 65)	602	25,083
42	체육	665	325 (일반어: 45/운동오락: 255/그 외: 25)	990	32,828
43	축산	501	82 (일반어: 22/농업: 32/그 외: 28)	583	14,065
44	출판	248	159 (일반어: 13/출판: 142/그 외: 4)	407	39,066
45	해양	400	152 (일반어: 36/해양: 66/그 외: 50)	552	27,536
46	화학	1,500	1,919 (일반어: 39/화학: 1,644/그 외: 236)	3,419	56,128
47	화학공업	191	90 (일반어: 4/화학: 59/그 외: 27)	281	32,028
	계	25,726	17,353	43,079	40,282

《조대》에 수록된 전문용어 총수는 43,079개이다. 《표대》와 비교할 때 《조대》는 전문용어 분류 영역이 6개 분야가 적고, 수록된 어휘도 149,129개 더 적다. 《조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는 25,726개이다. 《표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에 비해 100,506개가 적다.

《조대》의 전문용어 중 17,353개가 《표대》의 올림말과 일치하며 40.28%의 일치도를 보인다. 《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일치도가 6%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조대》에 수록된 전문용어 수가 《표대》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1) 여기서 백분율은 '《조대》 전문용어 총수' 대비 '《표대》 대응 올림말'을 계산한 것이다.

《표대》와 비교했을 때 특히 ‘자동화(6%)’, ‘수리(水利, 10.9%)’, ‘축산(14%)’, ‘림학(14.3%)’, ‘수산(17.1%)’, ‘농학(18.1%)’ 영역에서 올림말 일치도가 현저히 낮았고, ‘논리(76.4%)’, ‘철학(75.4%)’, ‘문학(69.7%)’, ‘수학(62%)’, ‘천문(59.2%)’, ‘역사(57.8%)’ 영역에서 올림말 일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3. 남북 전문용어 통일을 위한 과제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휘 변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적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분단 이후 여러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48년 이후부터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사용폐지사업<sup>12)</sup>’을 벌였고, 아울러 일제 강점기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휘정화사업<sup>13)</sup>’도 벌였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정리사업<sup>14)</sup>’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북측에서 이러한 언어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했던 ‘일본어’와 ‘어려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많이 순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어휘를 변화시켜 남북의 어휘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12) 한자말을 모두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9~85쪽)에 따르면, “한자말과 외래어라고 하여 무턱대고 다 정리하는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휘정리원칙을 철저히 세웠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예로, ‘지하투쟁’을 ‘땅속투쟁’으로, ‘중앙공업’을 ‘가운데공업’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되는데, 분단 이후 생성된 북측 단어(《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를 검토해 보면 전체(138,472개) 대비 39%가 한자어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어려운 한자어를 정리한 것이지 모든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3)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0~76쪽)에 따르면, 어휘정화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 어휘와 표현 및 불필요한 외래어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일반 및 학술용어 통일안(초안)》이 간행되었는데, 22개 분과 용어 중에서 6,000여 개를 정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4)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7쪽)에 따르면, “단어체계를…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문의 어휘를 다듬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휘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혁명적으로 어휘정리사업을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여, ‘어휘정리사업’이 ‘어휘정화사업’과는 달리 어휘 체계 전반에 걸친 사업임을 표명하고 있다.

북측에서 위의 여러 언어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특히 북측 전문용어에 변화가 많았다. 게다가 70여 년 동안 남북 분야별 전문가 사이에 교류가 단절되면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점차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일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이후 남측에서는 40여 년 동안 북한어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고, 남북 언어 비교 연구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을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sup>15)</sup> 그리고 전문용어의 경우도 남측 내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논의들이 있었고[고석주 외(2007), 강현화 외(2009), 박창원(2009) 등], 남북 전문용어 구축 및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다[신중진 외(2016), 이찬규 외(2014) 등]. 또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및 통합에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권재일(2006), 김문오 외(2007), 김선철 외(2008), 신중진 외(2017) 등].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물들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북측과 협의되지 않은, 남측 단독의 관점만 반영된 것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연구물들을 토대로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을 위해 남북의 겨레가 함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현재의 남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문용어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전문용어 통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 각 측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정비된 분야별 전문용어를 남북 전문가

15)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 관련 연구물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차재은(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언어 통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들이 함께 비교·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그 결과물을 사전이나 자료집으로 편찬하여 남북 겨레가 널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또는 자료집)'을 편찬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함께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하면 남북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밝히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은 남북이 함께 편찬한 사전이므로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분단된 상황이지만 남북의 겨레가 같은 사전을 이용한다면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전문용어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체제가 통일되면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 전문용어를 최종적으로 통일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과거의 남북 교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통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3.1. 남북 전문용어 통합 계획 및 지침 작성

우선 남북이 함께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통합 지침은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보다 언어학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남북 전문용어 통합 시 전문용어 전체의 체계나 어휘별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합의하는 것보다 소수의 남북 언어학자들이 합의할 때 시간과 인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 용어가 다를 경우 그중 하나로 단일화하거나 또는 제3의 용어를 제안하기 위한 언어학적인 기준도 마련

해야 하므로, 전문용어 통합 지침은 남북 언어학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우선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만나서 전체적인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따라 남북의 분야별 전문용어 대조 작업을 한 후에,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남과 북은 전문용어의 개념과 분류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한 남북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측에서는 식물 용어나 동물 용어, 그리고 군사 용어 등을 대체로 일반어로 수록하고 있어 남측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측 대사전의 경우 전문 분야를 53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비해 북측 대사전의 경우 47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두 사전의 분류를 토대로 전문 영역을 통일하되, 전문 영역의 수를 현재의 남북 분류보다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문 영역은 현재보다 더 세분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전문 영역 통일 작업을 할 때 세분된 것을 합치는 작업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 3.2.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조사 및 표준화 작업

전문용어 통합 계획이 수립되고 통합 지침이 작성되면 남북 각기 분야별 전문용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전문 분야의 용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여건이 갖추어진 분야부터 먼저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건상 분야별 전문용어 전수 조사 작업이 어려운 분야는 우선 남북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기초 학술 용어 조사 작업부터 시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북측은 정부 기관에서만 전문용어 사전 작업과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므로 남측에 비해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이 드물고, 또한 2000년도 이전에 편찬된 사전이 대부분이어서 최신 전문용어가 제대로 수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측의 최신 전문용어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용어 전수 조사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측은 정부에서 전문용어와 관련된 통제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안 된 분야가 대부분이다.<sup>16)</sup> 따라서 남측의 경우 북측과의 전문용어 통합 작업 이전에 남측 내에서의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sup>17)</sup>

### 3.3. 남북 전문용어 대조 작업

남북 각기 분야별 전문용어 조사 및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분야별 전문용어 대조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 남북 각기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선책으로 남이나 북의 정부 기관에서 편찬한 사전(또는 자료집)을 기초 자료로 선정하되, 가급적 해당 분야 전문용어를 최대한 많이 수록한 사전을 선정하여 대조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sup>18)</sup>

16) 예를 들어 태권도 전문 분야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일반 태권도 도장 등)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일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단체별로 각기 쓰이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현재(2018년) 남측의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용어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7) 남측은 동일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기관이나 단체별로 전문용어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문용어의 기능(일지시성(—指示性), 일의성(—意性))을 고려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정책적으로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8) 그런데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측 사전이나 자료집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남측 전문용어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만, 이에 걸맞은 북측 전문용어 사전이나 자료집을 확보하지 못해 남북 용어 대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조 작업을 할 때 남북이 공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나비, 오징어...)과 용어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개살구/산살구, 한글/조선글자...)을 엄밀하게 파악해서 남북 용어를 대조해 두어야 한다.

#### 3.4. 대조 작업 결과물에 대한 남북 영역별 전문가 공동 검수

분야별 전문용어 대조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대한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수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용어가 현재 남과 북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인지, 대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마련한 ‘전문용어 통합 지침’과 ‘개별 용어 단일안(남북의 용어가 다른 것을 하나로 단일화하거나 제3의 용어로 대체한 것)’에 대한 남북 전문가들의 검수 작업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3.5.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풀이(뜻풀이·용례·삽화 제시 등) 작업

남북 전문가 공동 검수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남북 사전편찬가들이 함께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풀이 작업을 해야 한다. 풀이 작업에서는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간략한 뜻풀이와 용례를 제공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삽화나 사진 등을 제시한다. 현재 남북 전문용어는 표기 형태가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한 표기 형태가 다른데도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전문용어의 특징이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용어는 연어나 숙어 구성으로도 많이 쓰이므로, 해당 용어가 포함된 연어나 숙어 용례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삽화는 남북 어느 한쪽에만 있는 전문용어이거나 글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므로 최대한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3.6. 전문용어 풀이 결과물에 대한 남북 분야별 전문가 공동 검수

남북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풀이 작업이 완료되면,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 작업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도록 한다. 해당 용어의 대조 작업과 풀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3.7.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또는 자료집) 편찬 및 보급

남북 분야별 전문가의 최종 검수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분야별 사전(또는 자료집)으로 출판한다. 이후 분야별로 출판된 사전을 종합하여 남북 겨레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형식의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k)나 웹 사전 형식으로 출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용어 가운데 특히 학술 용어는 남북의 일반인들도 널리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책보다는 전자사전이나 웹 사전 형식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3.8. 남북 전문용어 통일

남북 체제 통일 이후에, 남북의 학자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편찬한 사전(또는 자료집)을 토대로 하여 남북 전문용어를 통일한다.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1)에서 (8)까지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과거의 남북 교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우선적으로 만나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거시적인 작업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가 통합되면,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겨레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디스크나 웹 사전 형식으로 일반에게 제공하여 남북 전문용어 차이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후 남북 체제가 통일되면 전문용어 통합 결과물들을 토대로 전문용어를 통일하면 될 것이다.

#### 4. 맺음말

통일된 조국의 모습은 지금의 남측이나 북측과 많은 면에서 다를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겨레가 혼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언어이다. 그런데 남북에서 각기 편찬된 대사전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 현재 북측에서는 남녘 말의 52%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남측에서는 북녘 말의 39%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어휘는 일반어에 비해 전문용어의 차이가 더 심각하다. 남과 북에서 각기 편찬한 대사전의 올림말을 비교했을 때 전문용어는 약 66% 차이가 난다. 전문용어에는 학술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술 용어는 교육과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용어이다. 만약 남북 어휘 통일을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남북 체제가 통일된다면, 전문용어는 남북 겨레의 소통과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전문용어 차이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남측은 외래 전문용어에 대해 적극적인 순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반면 북측은 적극적으로 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단번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단된 현 상황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남북의 겨레가 상대측 전문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이 되려면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편찬한 사전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1) 남북 전문용어 통합 계획 및 지침 작성, (2)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조사 및 표준화 작업, (3) 남북 전문용어 대조 작업, (4) 대조 작업 결과물에 대한 남북 영역별 전문가 공동 검수, (5)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풀이 작업, (6) 전문용어 풀이 결과물에 대한 남북 분야별 전문가 공동 검수, (7)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또는 자료집) 편찬 및 보급, (8) 남북 전문용어 통일’이 그것이다. (1)에서 (8)까지의 모든 단계에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남북 언어학자들이 만나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거시적인 작업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가 통합되면, 분야별 사전을 편찬하고, 이후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겨레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디스크나 웹 사전 형식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전 편찬에 초점을 두었는데, 만약 남북 공동으로 이러한 사전을 편찬한다면, 이 사전은 분단 상황에서 상대측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체제 통일 이후의 전문용어 통일에도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술 퍼런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선각자들은 ‘조선의 독립’을 의심치 않으면서 문맹 퇴치와 우리말을 제대로 적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표기법[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우리 단어가 살아갈 집[《조선어사전》(1938), 《큰

사전》(1929~1957) 등'을 묵묵히 마련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광복 직후 큰 혼란 없이 교과서를 편찬하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일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에 3년의 시간(1930~1933)이 필요했고, 《큰 사전》 편찬에 28년의 시간(1929~1957)이 필요했던 것처럼 언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현화 외(2009),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 《전문 용어 연구》,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문오 외(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 외(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리기원(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리호경(2005), 《조선문화어건설리론》, 사회과학출판사.
- 박창원(2009), 《전문용어 정비 지침》, 국립국어원.
-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이찬규 외(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통일안》.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32~52쪽.
- 차재은(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남북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27~52쪽.
-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 《2013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119~143쪽.
-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25~44쪽.

- 홍윤표 외(1996), 《컴퓨터 처리 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홍중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검토 -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한중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1. 머리말

역사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보는 관점이나 역사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기에 역사학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에 큰 관심을 가진다.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 역사 용어이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학술 용어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역사 학습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거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진골 귀족이나 양반과 같은 신분, 전세나 역, 공납과 같은 조세를 가리키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배운다. 이런 용어들은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다른 교과나 학문 영역에서도 사용되지만,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가 있다. 이를 사고 도구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배층이나 관리들의 수탈에 맞서 일어난 농민의 봉기는

‘봉기’뿐 아니라 ‘난’, ‘폭동’ 등으로 부르며, 이런 봉기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9세기 중엽 세도 정치하 관리들의 수탈과 삼정 문란에 맞서 일어난 농민 봉기를 ‘임술민란’과 ‘임술 농민 봉기’ 중 무엇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사고 도구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문 용어의 경우 남북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동일한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역사 변화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나 평가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이나 평가에 따라 사고 도구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고 도구어의 경우,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

역사 용어를 둘러싸고 남한의 학계나 사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동학 농민 운동, 애국 계몽 운동, 6·25 전쟁과 같은 사건을 가리킬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역사학계의 커다란 논쟁 대상이다. 전문적인 학자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남한 내부의 용어 차이는 다루지 않고,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서 달리 사용하거나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역사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비교 대상은 현재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이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역사》, 2014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2013년 <과정안>에 따라 간행된 초급중학교의 《조선력사》와 고급중학교 《력사》이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 중에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있으며, 북한 고급중학교 《력사》에도 세계사 내용이 나오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사 용어만을 비교 검토의 대상

으로 한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원시 사회부터 현재까지를 다룬다. 이에 반해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1920년대까지의 역사만 나오며, 그 이후의 근현대사는 혁명 역사라 하여 별도로 다룬다. 북한의 혁명 역사는 시기 범주로는 한국 근현대사에 해당하지만, 정치 교양 과목으로 남한에서 생각 하는 일반적인 역사 과목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 글의 검토는 1920년대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한정한다.

## 2.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학술 용어 선정 경향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나 평가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역사 개설서나 아동, 청소년 역사책들도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달리 부르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북한 교과서는 물론 남한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각 과목별로 <편수 자료>를 만들어 용어를 제시하며, 교과서 용어는 이를 따른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개정될 때,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가 변경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사용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는 고려 전기 묘청 등이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중앙 귀족들에 맞서 일으킨 봉기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불렀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묘청의 난’으로 바꾸었다. 이 사건을 학자들에 따라 서경 천도 운동으로 보기도 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난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그때그때 <편수 자료>에 따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한다.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1990년대 교과서까지는 ‘신사 유람단’이라고 부르다가, 2000년대 교과서들은 ‘조사 시찰단’이라고 바꾸었다. 이 사절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교과서는 물론 일반 역사책들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역사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토론하지만, 학자들 간의 해석이나 평가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남북한 중 한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도 있다. 남북의 체제 경쟁에 역사를 이용할 때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통국가’라는 개념은 북한에서만 사용한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북한의 <과정안>에서는 ‘정통국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역사 변화와 발전에서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의미이다. 남북한 모두 정통성에 관심을 두고 역사에서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남한보다 그 정도가 훨씬 강하다. ‘정통국가’라는 용어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2013년 <과정안>에 등장하였다. 그만큼 역사 교육에서 정통성의 인식을 강화한 것이다. 남북 역사 연구와 이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용어도 한쪽 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북한 역사학과 역사 교육의 기반이 되는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주체사관)에 따른 역사 용어들은 북한 교과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 3. 남북한 교과서의 역사 용어

#### 3.1. 남북한이 달리 사용하는 역사 용어

남한과 북한 역사 교과서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른 용어로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차이를 보이는 역사 용어

남한	북한
삼국 시대	세나라 시기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왕릉비
통일 신라	후기신라
농민·천민의 봉기(난)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
개경 환도	구도환경
이시애의 난	함길도 농민전쟁
임진왜란	임진조국전쟁
홍경래의 난	평안도 농민전쟁
병인박해	병인사옥
임오군란	임오군인폭동
고부 민란	고부인민폭동
동학 농민 운동	갑오농민전쟁
명성 황후 시해	명성황후 살해
헤이그 특사	헤그 밀사
애국 계몽 운동	애국문화운동
3·1 운동	3·1인민봉기
간도 참변	경신간도대 <토벌>
6·25 전쟁	조선전쟁

이처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장 큰 원인은 역사관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차이이다. 통일 신라와 후기신라, 농민·천민의 봉기와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 이시애의 난과 함길도 농민전쟁, 홍경래의 난과 평안도 농민전쟁, 고부 민란과 고부인민폭동,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농민전쟁, 3·1 운동과 3·1인민봉기 등의 용어들이 그런 사례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은 주체사관이다. 주체사관에서는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며, 역사 발전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주체사관은 독자적인 역사 발전의 원리임을 내세우지만,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의 사관에서 계급 투쟁의 논리와 비슷

하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일어난 주요 농민 봉기를 농민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고려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 김사미의 난, 효심의 난, 만적의 난 등 농민과 천민에 의한 일련의 봉기를 남한 교과서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루지만, 북한 교과서는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이라고 하여 농민 전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시애의 난과 홍경래의 난의 경우 남한에서는 봉기를 주도한 인물을 앞세운 용어를 쓰지만, 북한에서는 주체를 농민으로, 사건의 성격을 전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임오군란을 '임오군인폭동'으로 부르는 것과 3·1 운동을 '3·1인민봉기'로 부르는 것도 이들 사건의 주체가 인민대중임을 명시한 것이다.

남한 교과서와 달리 쓰는 북한 교과서의 역사 용어 중에는 정통성이나 주체성의 강조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후기신라나 임진조국전쟁과 같은 용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일 신라'라는 용어 대신 '후기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라를 정통성이 없는 국가로 여긴다. 신라 중심으로 삼국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남한 교과서와는 대조적이다. 남한의 역사책이나 교과서는 모두 삼국 통일 이후 신라 하대를 가리켜 '통일 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남한에서는 발해를 신라와 함께 병존했던 한국사의 국가로 보고 남북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신라를 가리켜 '통일 신라'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삼국 시대의 신라와 구분하여 '후기신라'라고 표현할 뿐이다. 더구나 남북국 시대에서도 통일 신라가 아닌 발해를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명목을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이었다는 것과 한반도 전체와 만주 지역까지가 아닌 평양 이남만을 통합했다는 데서 찾는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의 밑바탕에는 신라가 북한 지역이 아닌 남한의 경주에 기반을 둔 국가라는 이유도 있다. 북한 지역에 있거나 북한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을 정통 국가로 여기는 것으로, 현재에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음을 은연중에 이런 역사 변화 속에서 찾는 것이다. 삼국 중 고구려, 통일 신라가 아닌 발해를 정통 국가로 보는 것에서 이런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삼국 통일을 보는 관점과도 비슷하다.

‘임진조국전쟁’이라는 용어에서도 북한의 강한 민족주의적 관점과 정통성 추구를 엿볼 수 있다. 임진왜란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보는 것이다. 임진왜란 중 일어났던 사건 중 남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연안대첩(이정암이 황해도 연안에서 구로다가 이끄는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과 북관대첩(정문부가 이끄는 의병이 함경도에 침입한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과 반란을 일으킨 조선인, 여진족 등을 토벌한 전투), 평양성 해방 전투(명군과 조선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전투) 등을 서술한 것도 승리를 한 전투를 자세히 서술한다는 일반적 원칙과 함께, 이들 전투가 모두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한 몫을 한다. 북한 교과서가 남한 교과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조위충의 난이나, 조선 전기 이시애의 난,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도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이다.

이 밖에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용할 용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병인박해를 북한 교과서가 병인사육이라고 하고, 간도 참변을 ‘경신간도대 《토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병인박해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 일반 민중임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병인사육은 천주교도를 주체로 본 것이다. 간도 참변이 변을 당한 사람을 주체로 하는 용어라면, ‘경신간도대 《토벌》’은 사건을 일으킨 일본군을 주어로 놓은 용어이다.

### 3.2.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역사 용어

남한과 북한 중 한쪽 편 교과서에서만 보이는 역사 용어들도 있다. 이런 용어들은 역사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없이 교육 정책상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북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역사 용어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역사 용어

용어	역사적 사실
정통국가	한국사에서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
원시무리	선사 시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
단군릉	북한이 단군과 부인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무덤
노예소유자 국가	고조선의 사회적 성격
신지글자	고조선에서 사용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글자
구려	고구려 이전 이 지역에 존재한 국가
봉건국가	고대 노예제 이후, 근대 자본주의 이전 국가의 성격.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부터를 봉건 국가로 본다.
9세기말 농민전쟁	신라 하대 농민 봉기. 초적이거나 적고적의 봉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직전의 사회
춘생문사건	을미사변 직후 미국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
부르쥬아 개혁	갑신정변의 성격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용어들 중에는 남한과 다른 북한의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주체사관이나 유물 사관에 따라 역사 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그 합법칙성을 보여 주는 개념어들을 사용한다. 원시무리, 노예소유자국가, 봉건국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부르쥬아 개혁과 같은 용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도 선사 시대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한다고 본다. 특히 사냥과 채집을 주업으로 하는 집단의 구성 방식은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남한 교과서는 ‘원시무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북한 교과서에서 ‘원시무리’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중요한 용어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교과서에서는 ‘모계씨족’이나 ‘부계씨족’을 주요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발전하는 합법칙성을 보여주는 용어를 중시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성격을 가리켜 ‘노예소유자 국가’로 규정한다. 마르크스 사관에서는 고대를 노예제 사회라고 본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을 이 단계의 국가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조선의 노비와 고대 서양의 노예가 같은 성격을 가진 사회 계층이라는 데에는 의문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서양의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된 생산 담당 계층이었다. 그렇지만 고조선에서는 노비보다는 농민이 주로 생산을 담당했다. 서양의 노예와 한국사의 노비가 같은 성격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들의 사회적 역할도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예제 사회’ 대신에 ‘노예소유자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을 ‘노예주’로 표기한다. 이에 반해 남한 교과서는 하나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 발전 단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봉건국가’나 ‘부루췌아 개혁’과 같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마르크스 사관에서 봉건 국가는 고대 노예제 사회 다음 단계의 국가이다. 마르크스 사관에서는 이 시기 사회를 중세 봉건 사회로, 이 시기의 국가를 봉건 국가로 규정한다. 고구려부터 조선까지를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지배층을 가리켜 ‘봉건통치배’라고 한다. 남한의 역사학에서도 봉건 사회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개항 이전까지를 봉건 사회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봉건 사회'나 '봉건 국가'와 같이 '봉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치배'에 민중을 수탈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 역사책들에서는 이런 계층을 가리켜 '봉건 관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근대 자본주의 직전 사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조선 후기를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한 사회로 규정한다. 마르크스 사관이나 주체사관에서는 중세 봉건 사회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내부에 자본주의 맹아(胚)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한다.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 맹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내적, 자생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를 그런 성격의 사회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사회가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관점은 남한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농민층의 분해가 일어났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도고 상인의 출현과 민간 수공업과 광업 발달 등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조선 사회가 자체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으며, 외부의 영향이나 자극을 받아서만 발전했다는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로 나와서 한국 사학계의 주된 견해가 되었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식민 사학을 비판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사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 역사 교과서는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을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아마도 '자본주의 맹아'나 '자본주의적 관계'라는 용어가 학생들에게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북한 교과서와는 달리 하나의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춰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중간에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난 사회를 설정하는 것이 마르크스 사관의 역사 발전 단계이다. 북한에서는 이 단계에 맞춰 역사를 서술하지만, 남한 교과서는 이를 피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직접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지는 않는다.

남북한 교과서의 이런 차이는 갑신정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884년 급진 개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일으킨 정변의 성격을 북한 교과서는 ‘부르주아 개혁’으로 부르지만, 남한 교과서는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갑신정변을 부르주아 개혁으로 보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른 것이다. 즉, 부르주아 혁명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도기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남한에서는 갑신정변의 성격을 보는 견해가 다양하다. 부르주아 개혁이나 혁명으로 보기도 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단순한 정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갑신정변의 성격을 하나의 용어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의 어려움과 함께 역사 발전을 역사 법칙의 발전 단계에 맞춰 서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용어 중 일부는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강력한 민족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몽이 부여에서 벗어나 졸본 땅에 고구려를 세우기 이전 이 지역에 ‘구려’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본다. 주몽은 구려를 기반으로 고구려를 세웠다는 것이다.

고조선과 관련된 단군릉이나 신지 글자는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다. 단군릉은 북한이 단군과 그 부인의 유골을 발굴했다는 평양에 있는 무덤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근거로 고조선이 평양 지역에 세워진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군릉을 큰 규모로 다시 세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근거로 삼았다. 그렇지만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단군릉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지 않는다. 남한의 역사학계에서 단군릉이

고조선 시기의 것이 아니며, 거기에서 발굴한 유골도 단군과 그 부인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단군릉에 대한 내용은 실제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뿐이다. 고조선에서 사용되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신지 글자도 강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실이다. 중학교 《조선력사》의 교수 참고서에서는 17세기 말 북애자라는 사람이 썼다는 《규원사화》라는 책에 고조선에서 신지라는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모래땅에 찍힌 사슴 발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지 글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고등학교 《력사교수참고서》에는 신지 글자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 평안북도 영변의 역사와 지리를 서술한 《영변지》에 16자의 신지 글자가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신지 글자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웃 나라 글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민족 고유의 소리글자이자, 소리마디 단위의 마디 글자 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한다. 또한 신지가 글자를 만들게 된 계기와 과정을 전설로 상세히 서술한다. 남한에서도 고조선에서 문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환단고기》라는 책에 써 있는 가림토 문자이다. 《환단고기》는 일제 강점기 초인 1911년 계연수가 《북부여기》, 《태백일사》, 《단군세기》, 《삼성기》를 묶어서 펴냈다는 책이다. 사회 일부에서는 이 책을 근거로 고조선이 아주 오래 전에 세워졌으며, 넓은 영역을 가진 강대한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조선은 문자를 사용할 만큼 발전한 사회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남한 사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역사학계에서는 의문을 표한다. 이런 책을 근거로 한국의 상고사를 찬란한 역사로 미화하는 견해를 유사역사학이라고 비판한다. 북한 초급중학교 《조선력사》에서 신지 글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규원사화》 또한 근대에 만들어진 가짜 책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통 국가’는 북한의 정통성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사의 정통성이며, 이들 국가가 북한이 말하는 정통 국가이다. 초급중학교용 《조선력사》에는 고구려의 정치적 변화만을 다루고, 백제와 신라의 역사는 아예 빠져 있다. 문화 부분에서는 고구려 이외에 신라의 백결 선생이나 우륵의 가야금 정도가 언급될 뿐이다.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 국가만 존재했던 고려 이후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삼국 시대나 남북국 시대는 북한 지역에 기반을 둔 국가를 정통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외세를 끌여들여 평남 이남 지역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역사 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용어들도 있다. ‘구려’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 용어이다. 고구려 이전 압록강 일대에 존재했던 사회의 성격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주된 과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고구려가 건국하기 이전 그 지역에 이미 국가가 존재했다고 보고 이를 ‘구려’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남한의 역사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건국 이전 이 지역에 살던 예맥족 주민 집단이 ‘구려’라고 불린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남한 교과서는 이를 일절 다루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학설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 구려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서술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가 형성되었으며, 삼국 중 고구려가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다.

광개토 대왕릉비의 경우 남북 모두 이 비석을 광개토 대왕릉의 능비로 본다. 다만 남한에서는 ‘광개토 대왕릉비’를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사 연구와 이해에서 남한보다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북한이 ‘대’ 자를 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외이다.

## 4.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일상 용어와 사고 도구어

### 4.1. 북한 역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일상 용어

일상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로 특정 학문이나 교과가 아니라 다른 여러 교과목에서 공유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도 자주 나온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일상 용어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 용어 중 다수는 국어의 읽기 교육에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상 용어가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명칭과 함께 사용될 경우 사고 도구어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용어의 선택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상 용어 중 역사 이해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상 용어

용어	의미
천년강국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
청야수성전술	고구려가 중국이나 북방 민족의 침공에 맞서 싸울 때 취한 전술
내몰다	(적 등의 상대방을) 몰아내다
기여들다	몰래 들어오다
내몰다	동원하다
제끼다	제거하다
기여들다	몰래 침투하다

이 중 ‘천년강국’과 ‘청야수성 전술’은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천년강국은 북한이 고구려라는 국가 앞에 자주 붙여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이 용어를 고구려가 오랜 역사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원전 4세기경 구려를 기반으로 고구려가 건국한 이후부터 668년 멸망할 때까지 천 년 동안 고구려는 수·당 등 중국이나 북방 민족이 세운 국가들과 당당히 맞선 국가임을 이 말을 통해 강조한다. 고구려가 중국의 침공에 맞서 싸운 전술은 ‘청야수성 전술’로 표현된다. 청야수성 전술은 적의 침공을 맞았을 때 산과 들을 비우고 성에 들어가 싸우는 전술이다. 원정군에게 물자를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먹을 것과 쉴 곳을 없애으로써 적을 지치게 하려는 것이다. 청야수성 전술은 신대왕 때 최고 관직이었던 국상 자리에 있던 명림답부가 중국의 침공을 물리칠 때 사용했다. 학자들은 이를 고구려의 일반적인 방어 전술로 추정한다. 만주와 요동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적합하여, 고구려의 산성 방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역사책에서는 ‘청야전술’이라는 용어로 이 전술을 소개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전술을 설명하더라도 ‘청야전술’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내몰다’, ‘기여들다’, ‘제끼다’와 같은 단어들은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정서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말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교과서는 오히려 이처럼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을 즐겨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과 의미나 가치 판단을 달리하기도 한다. ‘내몰다’는 남한에서는 상대방을 몰아냈다는 의미이지만,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무리를 집단으로 동원했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기여들다’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몰래 들어오거나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의미이지만,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부정적인 어감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

같은 뜻을 나타내지만, 남북한 사이에 평가를 달리하는 용어도 있다. ‘폭동’은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다. 남한에서는 폭동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농민의 집단 봉기를 폭동이라고 부른다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근래에는 교과서에서 민중 봉기를 가리켜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 ‘폭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해의 건국 과정이나 이시애의 난을 북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백두산 북부지역에서 대조영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 집단들은 684년에 소국인 진국을 세운 데 기초하여 당나라 침략군의 본거지의 하나인 영주에서부터 폭동을 일으켜 근 1000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구려를 계승한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조선력사》 초급중학교 2학년용, 7쪽)

“함길도 농민전쟁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조선력사》 초급중학교 3학년용, 23쪽)

그 밖에 ‘근로인민대중’이나 ‘후과’ 등도 북한 교과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사관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민중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근로자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는데, 노동자의 근면성과 노력만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후과’는 잘못된 결과라는 뜻으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데 북한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 4.2. 민족 중심의 역사 용어

다른 교과나 일상 용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역사 용어는 한민족 중심이거나 민족 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역사 교과서에 사용하는 일상 용어도

이런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도 이런 목적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를 ‘세나라 시기’로, 살수대첩을 ‘살수에서의 큰 승리’로 부른다. ‘시대’라는 말 대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라는 말의 개념을 엄두에 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대나 시기를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만, 시대 구분에서 ‘시대’는 사회의 성격을 만드는 공통 속성에 따라 구분된 기간이다. 북한 교과서는 남한 교과서보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적용한다.

북한 교과서에서 역사 용어 중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많이 쓰지만, 모든 용어에 이처럼 고유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성계가 병력을 돌려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인 위화도 회군은 ‘위화도 군사들람’이라고 순화하지만, ‘위화도 회군’이라는 용어가 워낙 널리 사용되어 익숙하므로 두 말을 병기하거나 그냥 ‘위화도 회군’으로 부르기도 한다. 영어나 그 밖의 서양어로 된 역사 용어를 바꾸어 부르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을 가리키는 용어인 ‘탈리오의 법칙’을 북한에서는 ‘동해보복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기한다. 원시인을 발전 순서에 따라 표기하는 원인(猿人), 고인(古人), 신인(新人)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남한에서 고유어로 쓰는 용어를 한자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회오리바람을 북한에서는 ‘룡권(龍卷)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사례이다. 회오리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한자어이다.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들어간 용어들도 찾아볼 수 있다. 황해, 남해, 동해를 북한에서는 ‘조선서해’, ‘조선남해’, ‘조선동해’라고 하여, 반드시 ‘조선’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베트남의 명칭은 옛날에 월국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월남’ 또는 ‘안남’이라고 불리어 현재까지도 ‘월남’이라고 부른다. 남한 사회에서 월남은 과거에 자유주의 진영에 속했던 남베트남을 가리키던 명칭이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하면 월남을 연상하고, 베트남전을 ‘월남전’이

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이런 용어들이 반공 이념을 앞세워 베트남의 상황을 왜곡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요즘에는 ‘베트남’, ‘베트남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월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 5. 맺음말

북한 교과서의 역사 용어는 북한의 역사관과 역사 인식, 역사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반영한다. 주체사관이나 마르크스 사관에 기반을 둔 용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일상 용어도 이에 적합한 단어들을 가려 사용한다.

북한의 역사 용어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논리에 따라 민족의 자주성이나 우수함을 강조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물리친 역사적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말들이 많다. 다른 분야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로 된 역사 용어를 고유어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남북 교과서의 이런 용어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크지는 않다. 역사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역사적 사실의 평가에서 차이가 크지만,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줄거리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역사 용어의 통합도 가능하다. 또한 역사 용어를 다르게 부르는 다원적 관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 방향\*

## - 체육 분야와 비교하며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올해로 한민족은 광복 73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지 6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는 남북 정상 수시로 만난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촛불 혁명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완화되었다. 돌이켜 보면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민족의 역사는 파란만장하였다. 그 사이 동서 냉전으로 인해 한민족이 갈라서는 시련을 겪었다. 그 결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였다. 잦고 긴 대립과 반목의 시기 그리고 짧은 화해의 시기가 반복되면서 국민 특히 이산가족의 애간장을 녹이는 세월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남측과 북측의 이질감은 점차 심해졌다. 따라서 계획적이든지 갑작스럽든지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은 한반도가 연착륙하기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을 위해 다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 온 연구진(전은진, 김유진, 엄태경, 이성우 선생 등)이 2017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물이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남북 체육 전문용어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기술하였다.

위한 선결 과제이다.

한민족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남측과 북측이 동족이라는 가장 확고한 근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분단 기간 동안 남측과 북측의 언어는 당국의 언어 정책이 가미되면서 점점 달라져 왔다. 아직 문법 체계상의 큰 차이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광복 이후 신생어와 순화 대상어를 중심으로 생긴 어휘의 이질감은 적지 않다. 따라서 남북 어휘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은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다. 아니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동족 간 연착륙을 위해 우선적인 일이다. 아울러 언어 통일은 남측과 북측을 하나로 묶어 주는 구심점이 된다.

물론 어휘의 통합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정치한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어휘를 통합할 때 먼저 논의되어야 할 대상은 고빈도 일반 어휘이다. 그러나 남북의 고빈도 일반 어휘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같은 한국어이므로 고빈도 일반 어휘 역시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휘 통합의 물꼬를 트고 실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전문용어의 통합이다. 분야마다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경로로 수용된 전문용어는 남북의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일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에 기반이 된다. 아울러 일반 어휘의 통합에도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모든 전문용어를 짧은 기간에 통합할 수는 없다. 우선 통일 세대의 교과 전문용어를 통합해야 한다. 그 결과를 심화된 전문용어 혹은 전수의 전문용어 통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향이다.

따라서 이 글은 남북에서 현용하는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현황을 표와 그림으로 비교하면서 통합의 길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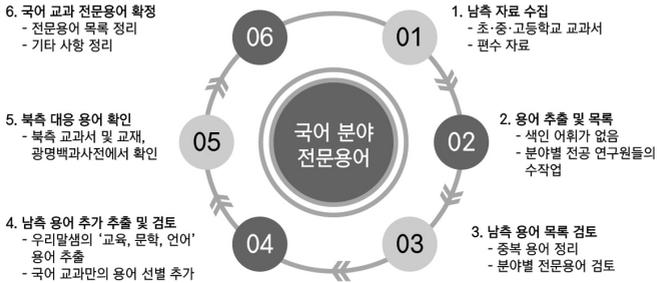
하고자 한다. 아울러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정합적인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어 교과 자료 수집과 전문용어 목록 정리

최근 전문용어 구축(정비, 통합, 조화, 관리)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를 비롯하여 다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남북 전문용어의 구축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뒤따른다. 첫째 통일 시대에 남북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대통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둘째 통합의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전문용어가 통용되는 산업의 기술 표준화를 증진한다. 셋째 통합된 전문용어를 기반으로 통일 세대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이 모든 필요성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수렴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다급한 필요성은 통일 시대의 교과서 개발이다. 그 초석이 되는 교과 학술 전문용어의 구축은 남북의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용어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첫걸음은 뜻풀이의 합치까지 고려한 남북의 전문용어 대비 목록을 확정하는 것에서 토대가 마련된다. 남측과 북측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 용어 목록은 다음의 6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 추출 과정**



무엇보다도 <그림 1>의 1~4단계에서 추출한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인 만큼, 1순위로 북측 교과서에서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sup> 왜냐하면 북측 교과서는 북측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학술 전문용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순위에서 찾아지지 않는 대응 용어는 2010년 이후에 평양에서 출간된 《광명백과사전 - 국어 편》을 2순위로 참조한다.

**그림 2 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 대응 목록 설정 자료**



1) 초급 중학교 1, 2, 3의 《국어》, 고급 중학교 1, 2, 3의 《국어문학》, 고등 중학교 1, 2, 3의 《국어 문법》을 연구진이 복수로 교차 검토하여 목록을 추출하였다.



**표 3**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 대응 유형 및 분포<sup>2)</sup>

유형		전문용어의 예(남-북)	개수(백분율)
AA	AA	높이뛰기-높이뛰기, 축구-축구, 맨손 체조-맨손체조	209개(17.8%)
	Aa	농구-롱구, 배드민턴-바드민톤	29개(2.5%)
AB		가드-방어수, 코너킥-구석차기, 패서-연락	935개(79.7%)

<표 1>, <표 2>, <표 3>에서 ‘AA’, ‘Aa’, ‘AB’ 유형은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적 일치도를 나타낸다. 즉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일치하여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은 AA형,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한 표기 차이만 가지며 사실상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은 Aa형,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각기 달라서 이질성이 드러나는 것’은 AB형으로 구별한다. 큰 틀에서 Aa형은 AA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동질성(AA형, Aa형)과 이질성(AB형)의 비율은 63.6%와 36.4%이다.<sup>3)</sup> 세부 분야별로 비율의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간의 이질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만큼 동질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표 3>은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적 유형 및 분포를 보여 준다. 인문학적 특히 국학적 성격이 강한 국어 전문용어의 사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체육 분야에서는 AA(a)형이 20.3%, AB형이 79.7%로 나타났다. 정반 비레라고까지는 할 수

2) 체육 분야 전문용어 목록은 다양한 종목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종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검도, 골프, 농구,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링, 소프트볼, 수상 스키, 수영, 스케이팅, 스키,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테니스, 태권도, 하키, 핸드볼 등. 북측의 《광명백과사전》 체육 편이 큰 도움이 되었다.

3) 여기서 우리는 작지만 고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남북 교과서에서 쓰이는 전문용어가 이미 60% 이상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가설 단계이지만 적어도 교과 전문용어를 통해서 상식 이상으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용운(2015)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전문어 표제어를 비교하였는데, 대략 66%의 전문어를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형태(type) 중심의 사전의 표제 전문용어와 토큰(token) 중심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 전문용어와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높아서 생각보다 갈등의 소지가 적고 자연스러운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

없지만 그만큼 이질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체육 분야는 전문성, 학술성보다는 대중성이 강조되면서 표준화가 덜 되기도 하였고, 남측에서는 방송 등에서 지나치게 외래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남측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는 인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반면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자연스러운 조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진 외(2015, 2016)에 나타나듯 수학 및 자연 과학 분야에도 드러난다.

끝으로 형태 유형별 사례와 대응 용어 공백의 사례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응 용어 공백의 사례는 통일 시대에 국어 교과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꾸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공백도 있지만 우연한 공백도 있어서 앞으로 더 고구되어야 한다.

**표 4**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대응 용어 공백 사례

유형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예(남-북)
AA	AA	가사-가사, 사실주의-사실주의, 주어-주어 등
	Aa	논제-론제, 오류-오유,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 등
AB		결말-마감, 동음어-소리같은말, 모음탈락-모음빠지기 등
추가 유형		전문용어의 예
AX (남측에만 있는 전문용어 유형)		공손성의 원리-X, 교차조사식 토론-X, 입존법-X 등
XB (북측에만 있는 전문용어 유형)		X-개략수사, X-맺음술어 등

### 3.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 3.1. 어종 분석

이 글에서 제시하는 통합의 알고리즘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지는 않지만 어종 분석을 통해서도 남측과 북측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사유를 확인하고 동질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남북 국어 교과의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등의 다양한 어종 유형의 개수를 형태 유형별로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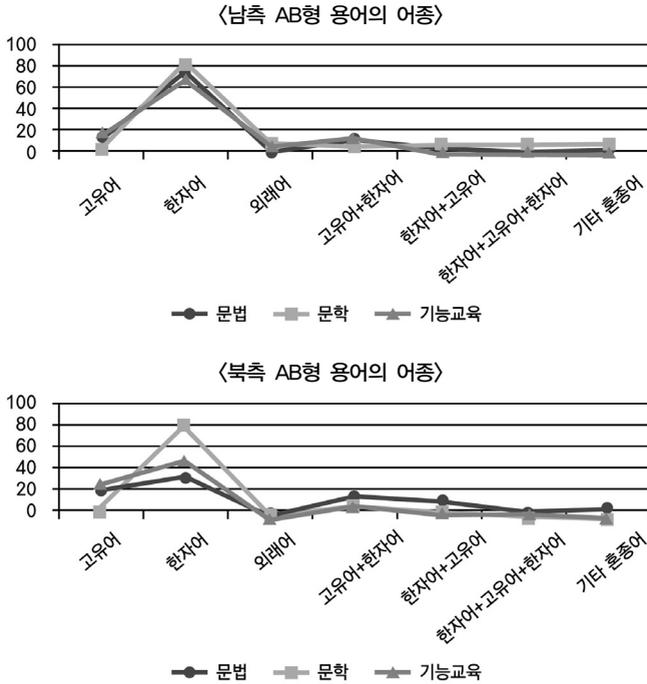
**표 5**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야별 어종 유형의 개수

분야 \ 유형	AA형	Aa형(남/북)	남측 AB형	북측 AB형
문법	8	5/6	10	13
문학	5	4/3	8	6
기능교육(일반)	5	1/2	4	5

남북이 동일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AA형에서는 문법 분야가 더 다양한 어종 결합을 이룬 전문용어가 나타난다. Aa형에서 조사 ‘-의’를 사용한 북측의 전문용어(김수로 신화-수로의 출생담, 반의 관계-반의의 관계)로 인해 북측이 남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였다. 문법 AB형에서 남측의 ‘시옷 불규칙 활용’, ‘리 변칙 활용’ 등의 전문용어를 북측에서 ‘《ㅅ(ㅈ)-X》 탈락’, ‘《X-리》 삽입’ 등과 같이 로마자를 사용하여 풀어 씀으로써 북측이 남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다. 반면에 문학 AB형에서 남측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러시아 12월과 당원 문학’ 등의 외래어가 포함된 전문용어를 북측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십이월파문학’ 등과 같이 한자어로만 나타내어 남측이 북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다. 기능교육 AB형에서 북

측은 외래어를 사용한 전문용어는 없었으나 남측보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혼용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3 남측과 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비율



<그림 3>은 대응 용어의 차이를 보이는 AB형에서 남측과 북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극복해야 할 이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월등히 많고 기타 어종은 ‘한자어+고유어’의 혼종어 사용이 보이나 대부분의 어종 유형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반면 북측은 세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만 한자어가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고유어 사용 빈도도 남측과 비교했을 때

북측이 월등히 높고, 혼종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도 제법 사용하고 있다. 남북에서 세세한 차이가 드러나지만 전반적인 그래프의 형상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남측과 북측의 어종 분포가 거시적으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즉 남북은 공히 ‘한자어’ 유형이 많다. 다만 남측에 비해 북측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을 뿐이나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까지 포함하면 서로 대동소이하다. 향후 통합된 결과의 어종 분포도 이러한 방향을 유지하면 갈등을 극복하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체육 분야의 어종 비율은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측 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이 89%로 높게 나타나 한자어 우위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와 대조를 이룬다. 북측의 체육 분야 전문용어는 또 다른 어종 비율을 보여 주는데, ‘고유어’ 37%, ‘한자어’ 31%, ‘고유어+한자어’ 27%가 정족(鼎足)을 이룬다. 어느 어종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결과는 남측이 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 외래어를 남용하는 반면 북측은 고유어 중심으로 언어 순화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체육 분야의 통합에서는 북측의 전문용어가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 3.2. 조어 분석

다음으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과정에서 확인되는 품사 빈도와 원어 빈도를 확인하면서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해 보겠다.

4) 고마운 암시는 북측 전문용어에서 한자어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덜혀 있거나 거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과로 남북 언어의 통합 가능성은 전문용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

표 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AB형의 품사 및 원어 현황

남측 품사 표지 (빈도)	북측 품사 표지 (빈도)	남측 품사 표지 (빈도)	북측 품사 표지 (빈도)
보통명사(941)	보통명사(930)	관형사(3)	용언의 연결형(9)
접미사(198)	접미사(157)	용언의 연결형(2)	부사(8)
어근적형태소(62)	용언의명사형(126)	의존명사(2)	수사(1)
접두사(39)	용언의관형형(61)		
용언의명사형(17)	조사(38)		
용언의관형형(16)	접두사(33)	<b>남측 원어 표지</b>	<b>북측 원어 표지</b>
표지 보류(15)	표지 보류(24)	한자어(1,099)	한자어(748)
고유명사(10)	어근적형태소(18)	고유어(200)	고유어(655)
조사(6)	고유명사(166)	외래어(16)	혼종어(22)
부사(4)	관형사(12)		외래어(8)

<표 6>은 남측과 북측이 대비되도록 품사의 빈도를 보여 준다. 동질성의 차원에서 보면, 역시 전문용어의 품사가 명사 위주로 형성되는 특징 때문에 남북 모두 보통 명사의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명사 파생 접미사도 공히 2순위로 드러났는데, 모두 전문용어 명사를 조어하는 표지인 셈이다. 그리고 빈도순에서 차이가 드러나지만 남북이 공히 같은 품사 유형을 통해서 조어 과정을 거쳐 전문용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향후 극복해야 할 이질성도 드러난다. 남측과 북측의 AB형 전문용어를 비교했을 때, 북측의 전문용어를 구성하는 품사 중 용언의 활용형이 눈에 띈다. 가령 ‘순경음(남)-가벼운 입술소리(북)’, ‘원순모음(남)-둥근모음(북)’, ‘음성모음(남)-어두운모음(북)’이 그 사례이다. 이것으로 북한의 전문용어는 구절 구조로 풀이식 용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한편 남측에 비해 북측의 원어 표지 중 고유어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은 북측의 모든 전문용어 분야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다음은 남북 국어 교과 중에서 문학 분야의 68.3%를 차지하는 AA형 전문용어의 조어 구조와 그 빈도 그리고 예시를 보여 주는 표이다. 즉 <표 7>은 사실상 문학 분야의 7할을 차지하므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조어 구조를 분석한 결과인 셈이다.

**표 7** 문학 분야 AA(Aa)형 용어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sup>5)</sup>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22개 유형)	nc	286	문학, 복선, 산문, 시, 운문, 은유 등
	nc <sup>^</sup> nc	124	고전 <sup>^</sup> 문학, 구전 <sup>^</sup> 설화, 국문 <sup>^</sup> 시가 등
	nc <sup>^</sup> xs	105	간결 <sup>^</sup> 체, 강조 <sup>^</sup> 법, 예 <sup>^</sup> 학, 문학 <sup>^</sup> 성 등
	nc <sup>^</sup> xs <sup>^</sup> nc	7	극 <sup>^</sup> 적 <sup>^</sup> 갈등, 시대 <sup>^</sup> 적 <sup>^</sup> 배경 등
	mm <sup>^</sup> nc	6	단운 <sup>^</sup> 시, 단행 <sup>^</sup> 시, 평 <sup>^</sup> 시조 등
원어 결합 (12개 유형)	ch	263	감상, 극, 단편, 문제, 소재, 시점 등
	ch <sup>^</sup> ch	239	가면 <sup>^</sup> 극, 구비 <sup>^</sup> 전설, 낭만 <sup>^</sup> 주의 등
	ch <sup>^</sup> ch <sup>^</sup> ch	14	고전 <sup>^</sup> 문학 <sup>^</sup> 작품, 일 <sup>^</sup> 인칭 <sup>^</sup> 소설 등
	ko	13	가락, 곳, 글, 줄거리, 판소리 등
	ie	11	다다이즘, 드라마, 모더니즘, 카프 등
형태/원어 결합 (31개 유형)	nc/ch	263	가사, 극, 막, 소설, 소재, 주제, 행 등
	nc/ch <sup>^</sup> nc/ch	113	가정 <sup>^</sup> 소설, 구전 <sup>^</sup> 문학, 칠언 <sup>^</sup> 절구 등
	nc/ch <sup>^</sup> xs/ch	104	간결 <sup>^</sup> 체, 과장 <sup>^</sup> 법, 서정 <sup>^</sup> 성 등
	nc/ko	13	곳, 글, 끝, 줄거리, 판소리 등
	nc/ie	10	다다이즘, 모더니즘, 몽타주 등

결과적으로 형태 결합 유형은 총 22개가 나타나고 <표 7>은 그중에 빈도가 높은 4개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원어 결합 유형은 12개인데 상위

5) 약호는 다음을 뜻한다. nc - 보통 명사, xs - 접미사, mm - 관형사, ch - 한자어, ko - 고유어, ie - 외래어.

빈도 5개의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이 두 정보가 결합된 유형이 31개로 다양한 조어 구조로 나타난다. <표 7>은 그중에 상위 5개를 예와 함께 제시해 본 것이다. 형태 결합에 굵게 표시한 사례와 같이 이미 남북이 모두 문학 분야에서 이질감 없이 일반 명사를 활용한 조어 방식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 분야는 특히 단일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수학 및 자연 과학과 체육 분야와는 달리 문학이 자생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문학 분야는 원어 결합에 굵게 표시한 사례와 같이 한자어 전문용어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 끼리의 결합이 많은 것도 특징인데, 역시 문학이 한국 근대화 이후의 자생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 4.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과 방향

다가올 통일 시대에 AB형 전문용어들은 형태적으로 달라 의사소통에 불편을 줄 것이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 대개 그 통합 방식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남북의 전문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전문용어를 만들어 통합하는 방식은 자칫 남북의 갈등을 초래하고 치밀한 합의를 위해 장고를 요하면서 교각살우할 수 있다. 한편 분단의 현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설사 국가의 지원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예비적 단계가 충분히 수립되고 진행된 후에야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과 북측의 전문용어 중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준들에 더 잘 부합하는 하나의 전문용어를 선택하거나 복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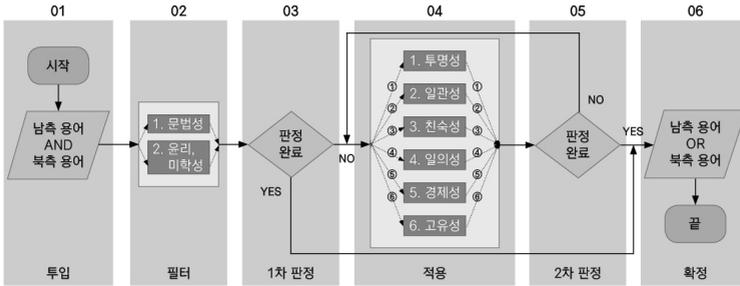
그림 4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입각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



<그림 4>에서는 통합 기준들의 적용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해 1~8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앞선 번호가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필요한 우선 적용 기준이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준마다 마치 퍼즐 맞추기의 조각처럼 떼어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준들의 적용이 고정식이 아니라 변이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전문용어 분야마다 용어의 특색이 있는데,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분야별 특색에 따라서 기준들의 적용 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Lego)의 블록처럼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총목록, 유형, 어종, 조어 방식 등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특색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적용 기준의 순위를 반영한 통합 알고리즘을 권장한다.

**그림 5**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판정 알고리즘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렇다. 대응하는 남측의 전문 용어(A)와 북측의 전문용어(B)가 필터 단계에서 먼저 선택 판정을 받는다. 대응 용어들 중에 어느 하나가 비통사적이거나(역행 동화(남)-올리답기(북)에서 ‘올리답기’는 비통사적 합성에 육설, 비하, 혐오 등의 부정적 가치 개념을 가지거나 연상시키면[언어학사(남)-언어학살사(북)에서 ‘설사’는 혐오적 개념을 연상시킴] 1차 판정이 되어 우선적으로 걸러지고 바로 확정 단계로 가서 대응 전문용어가 선택된다. 그런데 이미 남북 교과에서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대응 용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대응 용어들은 적용 단계에서 위계적·순환적으로 기준 적용을 받는데, 투명성에서 대응 용어 간의 우위가 판정되면 확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순환하여 일관성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우위가 판정되면 확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친숙성의 적용을 받는다. 판정이 계속 동등할 때는 고유성의 적용까지 판정을 받는다. 남북 전문용어의 대다수가 적용 단계에서 우위가 판정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복수 전문용어로 남거나 제3의 전문용어를 권장하게 된다.

**표 8**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기의-실체’의 판정 사례

기준	용어	통합 기준	남	북
			기의	실체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	
	윤리미학적성	비속성 없음, 미학적성 동일	=	
위계 기준	투명성	‘실체’보다 ‘기의’가 그 뜻(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말에 있어서 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르는 말)을 추론해내기 유리하므로, 남측어 우세	>	
	일관성	‘기의(남측례: 기표)’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	>	
	친숙성	기초 어휘 목록에 북측어 ‘실체’가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	<	
	일의성	남측어 5개(동음어 5개), 북측어 2개(동음어 1개, 다의어 1개)이므로 북측어 우세	<	
	경제성	두 용어 모두 2음절로 동일	=	
	고유성	‘한자어’로 동일	=	
최종 판정	위계 판정		기의(남)	

가령 문법 전문용어 ‘시니피에(signifié)’에 대해 남측의 용어 ‘기의’와 북측 대응 용어 ‘실체’는 문법성을 어기거나 윤리 미학적성을 어기는 사례가 아니므로 필터 단계를 대등하게 통과한다.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 위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위 위계인 투명성에서 북측의 ‘실체’는 소쉬르의 개념인 ‘시니피에’를 뜻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불투명한 것으로 판정되고 ‘기의’가 상대적으로 그 의미를 추론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확정 단계에서 최종 판정은 남측의 ‘기의’가 권장된다. 물론 상위의 기준에서 판정이 나더라도 그 하위의 기준들에서도 모두 판정한다. 왜냐하면 이 위계 기준은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권장 알고리즘이고 레고 블록처럼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위계 기준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sup>61</sup>

<그림 5>와 <표 8>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판정되었는데, 총 801개의 AB형 중 남측의 전문용어는 307개 선택되었고 북측의 전문용어도 307개 선택되었다. 그리고 끝내 판정되지 않은 187개의 전문용어도 있었다. 이미 남북의 국어 교과 학습 전문용어는 학술적인 기준들에 잘 맞도록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기준 순서와 그 변형별로 남북 전문용어가 판정된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9** 남북 국어 교과 AB형 전문용어 801개의 최종 판정 결과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	307	307	187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친숙성-경제성-투명성-일관성-일의성-고유성	306	308	187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의성-경제성-친숙성-일관성-고유성	346	268	187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고유성-경제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	364	250	187

여기서 변형 1은 국어 교과에서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변형 2는 <ISO 704>의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변형 3은 자연 과학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된 결과이다. 변형 2와 변형 3은 다소 남측 편향적 판정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본 연구의 권장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는 남측과 북측이 각각 307개씩 선택된 절묘한 결과이다. 친숙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변형 1도 협의에 따라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

6)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기준 8개에 대해 위계를 떠나서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어떠한 분포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선정한 기준들이 실제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남북 체육 분야 AB형 전문용어 935개의 최종 판정 결과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경제성-고유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	385	536	14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친숙성-일관성-경제성-고유성-투명성-일의성	86	835	14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일관성-친숙성-경제성-고유성-투명성-일의성	118	803	14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성-경제성-고유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투명성	375	546	14

참고로 <표 10>은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판정 결과이다.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총목록, 유형, 어종, 조어 방식 등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특색을 파악하여 적용 기준의 순위를 반영한 통합 알고리즘에 따르면 남측 385개, 북측 536개가 우위를 보인다. 결과는 북측 편향적으로 판정되는데, 남측에서의 외래어 남용이 학술적인 검정의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변형 1과 변형 2에서는 숫제 북측 전문용어 위주로 판정된다. 북측의 체육 분야 전문용어는 자체 순화를 겪었던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성을 앞세운 변형 3이 권장 알고리즘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향후 체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활용할 수도 있는 협상 카드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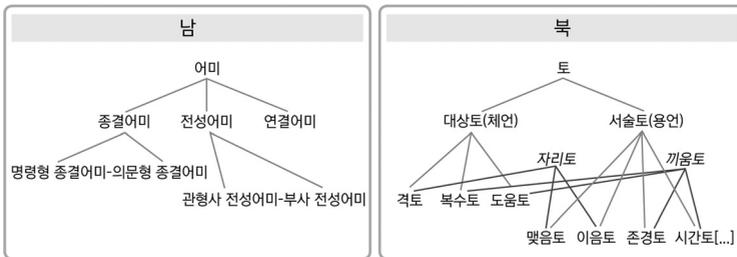
## 5. 맺음말

이것으로 남북의 전문용어 현황과 통합의 실재를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체육 분야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알아보았다. 이 글의 내용이 바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통일로 가는 길에

혹은 그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소통을 위해 전문용어 통합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하나의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당연히 이 카드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카드가 아니다. 이 글이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카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남아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대응 용어의 개념 대응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형태 중심의 통합 알고리즘을 소개했지만 밑 작업과 전제에서 남북의 사전 뜻풀이, 전문가들의 개념 확인 자문, 북한 이탈 주민의 면담과 설문 조사에서 늘 개념의 합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개념이 일치하는 대응 용어가 많았지만,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미세하더라도 개념 간에 차이 나는 대응 용어도 있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의 통합 논의도 상호 수용의 자세로 뒤따라야 한다. 전문용어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념 체계에 따라 전문용어의 형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아래의 그림처럼 남측과 북측의 문법 용어 중에 애초 체계가 다른 사례도 있다.

**그림 6**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어미-토’의 체계



이처럼 남측과 북측의 개념 체계가 달라서 이 글의 알고리즘만으로는 형식을 통합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 글의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전에 형식을 통합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문용어 체계와 개념 체계를 동시에 정비하고 통합하는 '조화(harmonization)'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통일 이후 국어 분야의 이해나 연구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앞에서 남북 전문용어 사이에는 AX형, XB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향후 국어 분야의 교과가 알차고 국어 분야의 연구가 깊이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백과 우연한 공백을 구별하고 그 X를 버리지 않고 채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단기에 그치면 안 되겠다. 교과 과정의 차원이나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 자연 과학 및 체육, 그리고 본 연구의 영역인 국어 분야에서 남북 교과 전문용어를 자원으로 해당 분야의 통합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보았다. 올해는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 통합안을 용감하게(?) 마련 중이다. 향후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분야도 정밀한 목록 구축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발전적으로 통합 방안이 다듬어져야 한다. 교과 과정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실제 생활과 밀착된 분야, 가령 정보 기술(IT), 법률, 농수산, 의학, 건설, 교통 등의 전문용어 통합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주관하여 '남북 전문용어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 남북의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때에 부족한 연구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밑그림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보선 외(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 연구》 62, 국어교육학회.
- 고영근 외(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고정희 외(2015), “남북한 초, 중, 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 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구본관 외(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남돈(2003), 《〈‘토’를 중심으로 본〉 북한 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 한국문화사.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 김선숙(2014), “남북한 규범문법의 격 표시 형태소 처리의 비교”, 《한어문교육》 3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유진·신중진(2016), “남북 수학·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6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김유진·신중진(2017), “남북 자연과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 - 물리·생물 분야를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 김정선(2015),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58, 국어교육학회.
- 김진숙 외(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용 외(2007), 《전문용어 구축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 백과사전출판사(2008),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2011), 《광명백과사전 7》,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하우.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과 그 실제 -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 신중진 외(201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 양명희(2003),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제안”,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 《국어학》 82, 국어학회.
- 오세진·신중진(2016),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연구》 70, 우리말글학회.
- 유현경(2013), “표준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문법 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 유현경(2015), “학교문법 정립에 있어서 표준문법의 역할”, 《우리말연구》 43, 우리말글학회.
- 이대성 외(2013),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이대성(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이성우·신중진(2016), “심화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 문화연구》 66,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이향근(2017ㄱ), “통일 시대 초등 국어교과서 설계를 위한 한국 북한 연변의 초등 국어과 교육내용 비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01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향근(2017ㄴ), “남한·북한·연변의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한국 초등교육》 28-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이현주(2007ㄱ),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전문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 이현주(2007ㄴ), “전문영역 표기의 사전적 기능에 대하여: 일반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ㄱ),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프랑스학연구》 74, 프랑스학회.
- 이현주(2015ㄴ), “전문용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ㄷ),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현주 외(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 전수태(1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3: 한자어·외래어 편》, 국어연구소.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전수태(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 전수태·최호철(1989ㄱ),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1 발음·맞춤법 편》, 국어연구소.
- 전수태·최호철(1989ㄴ),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2. 고유어 편》, 국어연구소.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주재우 외(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 《작문연구》 33, 한국작문학회.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25-3, 한국사회언어학회.
- 최용기(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인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7),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 허재영(2014), “전문용어 정책의 역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 홍중선 외(2009), 《국어 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Antia, B.A. (2000),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An alternative framework of practice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Grice. H. P.(1967), 《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MS. of the Willaim James Lectures》, Harvard University.
- ISO 704 (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 ISO 860 (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 ISO 1087-1 (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 ISO 10241 (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 ISO 22134 (2007),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oterminology.
- ISO/IEC Guide 2 (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 Maurais, J. (1993),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Rey, A. (1995), 《Essays on Termi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Strehlow, R. (1993),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UNESCO (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UNESCO, Paris.
- Wright, S. & Budin, G. (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Basic Aspects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Wright, S. & Budin, G. (2001),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Application-Oriented Terminology management》,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 1. 들어가며

이 글은 남북한의 법문(法文)을 구성하는 법령 용어의 개념, 용례 등을 분석하여 남한의 법령 용어와 북한의 법령 용어를 비교하여 남북한 언어 통합에 있어 법령 용어의 통합 방법에 관하여 미리 문제점을 찾아 통합의 기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제적 측면에서 고민하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북한의 법령 용어를 분석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와 남북 연합의 시대, 나아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현행법을 파악하여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남북한 간의 법문화 및 법 체제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제 통합을 통한 남북 주민의 기본권 보장 내지는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sup>1)</sup>

\* 이 글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1) 같은 취지로 "북한법제의 범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북한사회의 언어습관과 습속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현실태 및 지향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법제연구와 통합 내지 통일지향성의 목적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 [한국법제연구원(1995), 《북한법률용어의 분석》, 1.

남북 법제 통합에 앞서 남북 법령 용어에 대한 이동(異同)을 분석하여 주지하는 것은 남북 주민이 왕래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법령 용어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소위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가운데 4대 전략은 남북 관계의 법제화인바,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간에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약속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남북 합의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북한이 각각 국내법적 절차에 입각하여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게 된다.

따라서 원만한 남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법령 용어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그 위에 남한과의 비교, 향후 통합 단계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sup>2)</sup> 그러나 필자의 연구 역량의 부족으로 이러한 중요성 있는 법령 용어의 통합상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차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약속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법령 용어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국내의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법령 용어 통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안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

헌법 편(北韓法律用語의 分析. I. 憲法編)》, 한국법제연구원, 11쪽.]

2) 윤관석의원실 주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미숙 한국토지주택공사(ＬＨ)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법률 용어의 개념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법률 용어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개정된 법을 공개할 때 전문을 교체해 개정 내용을 알기 쉽지 않은데, 북한 법의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2000705>), "한반도 신경제 구상' 법 개선 과제는?", 최종 검색일 2018. 9. 27.]

## 2. 북한 법령 용어의 분석

### 2.1. 북한 법령 용어 분석의 의의

그 사회를 보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된다고 할 정도로 법은 그 사회 전반의 지표로서 기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령 용어는 정치, 학술, 언론, 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상 용어와 달리 법 규범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논리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북한 언어와 북한 법령 용어는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나 북한 법령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법적 성격과 효력, 용례를 분석하여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북한 법제를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법령 용어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체제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2. 북한의 법령 용어 관련 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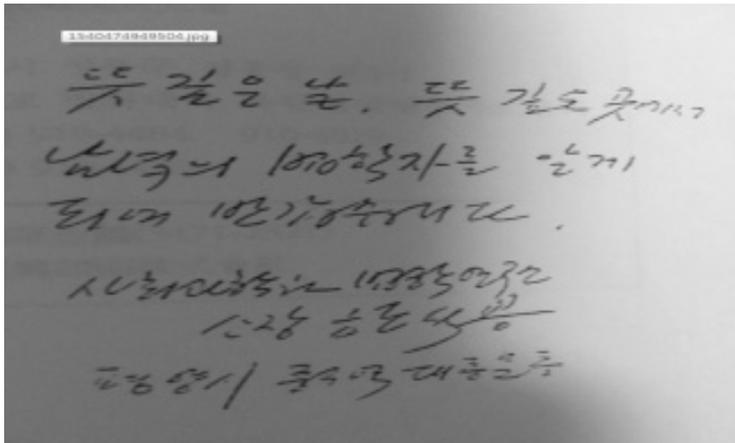
북한 법령 용어와 관련한 북한 자료로는 2004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을 비롯하여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7), 《국제법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등이 있다.

그런데 2004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대중용 법전이 편찬됨에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sup>3)</sup> 2003년 국민대학교의 고(故) 장명봉 선생

3) 필자가 이 연구를 하면서 선행 자료의 부족을 안타까워하다가 2018년 4월에 작고하신 장명봉 선생님의 제자인 전 통일교육원 최은석 박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보유한 책에 친필로 적힌 북한의 한석봉 선생의 글을 바탕으로 당시를 회상하면서 작성하였다.

일행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 법과의 교수단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접촉하지 못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소법전과 대법전 그리고 북한법 연구회(현 '통일과 북한법 학회')가 출판한 《북한법 연구》 1~6호를 전달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법전에 가격이 매겨진 것을 본 북한의 관계자가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한다. 이후 2005년 장명봉 선생님은 금강산에서 당시 북한의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장인 한석봉 선생과 조우하였다고 한다. 그때 한석봉 선생은 책의 뒷면에 “뜻 깊은 날, 뜻 깊은 곳에서 남녘의 법학자를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라는 글을 적어서 주었는데 구두상 남북의 두 법학자는 남북 법령 용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좋은 기회에 그런 날을 맞이하자는 뜻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림 1** 한석봉 선생의 친필 메모



비록 구두로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남북한의 법제 통합을 위한 선행 과제로서 법령 용어를 서로 분석하기로 한 최초의 법학 교류에 관한 약속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우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2003년에 우리의

소법전, 대법전을 전해 받은 북한은 2004년에 최초로 대중용 법전을 편찬하였고 이에 가격을 매겼다. 나아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영리 목적으로 법 문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규정하여 법전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남기게 되었다. 이후 2006년, 2012년, 2016년에 북한은 증보판을 발간하였는데 법전 속에 나타난 법령 용어는 최초에 비해 점점 남한의 용어와 비슷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고려학회에 북한이 불출석하였으나 장명봉 선생은 이 자리에서도 남북 간의 법령 용어의 통합 연구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비록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지는 못하였으나 남북의 법학자는 법령 용어 통합이 법제 통합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법전 내지 '법률용어사전'의 공동 편찬까지는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남한은 북한의 용어를 분석해 오고 있으며, 북한의 법전상 사용되는 용어의 변화를 관측할 때 북한도 남한의 용어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개성 공단 가동이 왕성한 시기, 북한은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 시기에 북한 법제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법령 용어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1~5)을 비롯하여 《북한법률용어의 분석》(헌법편, 형사법편, 민사법편,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법제편) 등의 4권이며, 2017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출간한 《북한법령용어사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2016년에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법률 용어 157개를 11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깊이 있는 비교와 분석을 가하였다.

## 2.3. 북한 법령 용어의 특징

### 2.3.1. 두음 법칙

북한 법령 용어의 특징은 북한어(조선어)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언어 법칙이 법령 용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영토는 ‘령토’로 영해는 ‘령해’로 노동은 ‘로동’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 용어상의 차이는 굳이 법령 용어의 통합 작업이 아니라도 국어 통합에 따라 순조롭게 통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 2.3.2. 법령 용어의 일상 용어화

남한의 경우 법령 용어나 법령문은 법 규범을 함축하거나 문장화한 것이므로 문학 작품이나 학술서 등에 비추어 그 의미나 문장 구조에 있어서 논리성, 추상성, 간결성, 명확성, 유형성 등 많은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 법령 용어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4)</sup> 일상 용어가 길게 법령 용어로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법령 용어의 추상성, 복잡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많다는 점은 일반인들에게 늘 난해한 문제이며 별개의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의 언어였다는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2.3.3. 이념성

북한 법령 용어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광스러운 혁명투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붉은기 쟁취운동’,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의 꽃’, ‘숨은 영웅들’, ‘조국통일의 위업’

4) 한국법제연구원 편집부(1995), 《북한법률용어의 분석. I, 헌법 편(北韓法律用語의分析. I, 憲法編)》, 한국법제연구원, 15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sup>5)</sup>

가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의 서문을 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가,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라든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이념적 표현, 체제 선전성을 읽을 수 있다.

#### 2.3.4. 적개심 유발적 표현

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적개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관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적대분자’, ‘계급적 원수’, ‘미제’, ‘살인마’ 등과 같은 표현은 적개심을 유발하여 규범의 수범자로 하여금 비판의 대상을 적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한 법령 용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다.

#### 2.3.5. 이상화 표현의 빈발

이 또한 체제 유지와 관련되는 것인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표현이 빈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헌법 서문(2012)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로 표현

5) 위의 책, 15쪽.

하여 최고 규범에서부터 왕국과 같은 수준의 절대 권한을 정당화한다.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김정일은 위대한 령도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용어나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민주 공화국, 국민 주권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령 용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일의 방법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헌법 제4조상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통일에 반할 소지가 있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제, 사유 재산제, 선거 제도, 시장 경제’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헌재 결정〉<sup>6)</sup>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동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형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6)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 2.4. 북한 법령 용어의 사용 예시

### 2.4.1. 정체성을 나타낸 표현 -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 및 2013)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고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와 다른 용어는 ‘혁명’이나 ‘투쟁’과 같은 계급 투쟁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절대 법문(法文)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제국주의 ‘침략자’와 같은 적개와 분노의 표현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표현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 헌법이기에 선언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 표현을 보자.

### 2.4.2. 국민에 대한 행정적 처벌 - 행정처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15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행위)는 “늙은이, 어린이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으로 표현하는 우리와 달리 ‘늙은이’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물의’는 구체적 형태,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어려우므로 별칙을 가하는 경우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법령 용어 통합 대상으로 판단하기보다 법령 용어로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표현은 동법의 이하 제216조, 제222조에서도 나타난다.

**제216조(부모, 시부모, 계자녀학대꺾시행위)** 부모, 시부모, 계자녀를 학대꺾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2조(사회주의생활양식을 어긴 행위)** 옷차림과 몸차림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닌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회적 물의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 용어의 통합 이전에 이미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기본권 침해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옷차림, 몸차림을 법령 용어로 통합하는 것도 어렵지만 법률 속에서 애초에 규율할 수 없는 용어에 해당한다. 또한 본문 이하 단서 규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라는 규정은 우리 식으로는 양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문구에 해당하는데 ‘정상 참작과 같은 우리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양자’를 ‘계자녀’로 표현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든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중개 행위에 대한 문구는 거간 행위로 표현하는데 거간 행위가 우리 식으로 풀어서 보자면 중개인지 확실하지 않다. 행정처벌법 제225조의 내용을 보면 중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의 표현은 구체적인 입법 취지를 확인한 후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25조(거간행위)** 거간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는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2.4.3. 추상적 처벌 표현 - 형법

2009년 형법 제27조 제7호에서 벌금형을 신설하였는데 형의 순서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 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법문에 진입하는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으며 향후의 북한 입법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보편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62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배반’이라는 표현의 추상성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이는 본문에서 ‘변절’과 같은 표현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러한 표현은 북한으로서는 체제 단속용으로 필요한 영역이 되겠으나 우리 식의 법치주의 속에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도 법문에 수용될 수 없는 표현이라 하겠다. 법령 용어의 통합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용어의 매칭을 넘어 법제 정비가 함께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2.4.4. 한글을 풀어서 표현 - 소방법, 재정법

한편, 한글을 그대로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소방법에서 ‘불끄기’라 규정한 것을 우리는 ‘소화(消火)’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법률에서 나타나는데 재정법에서 ‘나라살림살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국가 재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례이다.

우리의 경우 한자어를 사용하는 편이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법문에 한자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누구나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있다.

북한 법의 경우 ‘소화’를 ‘불끄기’로, ‘국가재정’을 ‘나라살림살이’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있지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할 것인지 알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 쓴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구별 기준이 필요하다. 남북한 어느 쪽을 개정하든 법령 용어 정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제처의 경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민법의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소방법(2005)**

**제3조(불끄기사업원칙)** 불끄기는 화재로부터 국가재산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법(2007)**

**제1조(재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 한다.

**2.4.5. 국민의 사생활에 관한 개입 - 민법, 가족법**

국민의 사적 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있어서도 북한은 깊이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제6조는 국가의 간섭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고 가족법 제9조의 경우는 혼인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선의무를 강조한다.

**민법(2007)**

**제6조(인민의 복리증진원칙)**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가족법(2007)**

**제9조(결혼년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 3. 남북 언어 통합 관련 법제

#### 3.1. 「국어기본법」

##### 3.1.1. 제정의 의의

남북 언어 통합과 관련한 법률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의 국어기본법이 있다.

「국어기본법」은 2005년 1월 제정 당시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에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타법 개정 제외)

이 법률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 3.1.2. 「국어기본법」의 법체계와 주요 내용

장	조	제목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 제정의 목적
	제2조	기본 이념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임을 선언
	제3조	정의	'국어', '한글', '어문규범', '국어능력'에 대한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언어 사용 환경과 국민의 국어 사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기본법이 기본법임을 제시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제8조	보고	정부의 시행 결과 국회 보고 의무
	제9조	실태 조사 등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 근거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어문규범 제정, 개정 의무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어문규범 영향평가 정책 반영
	제13조	국어심의회	국어심의회 설치 근거, 심의 사항 규정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공문서 작성의 국어 사용 의무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정책 시행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어 정보화 사업 시행 의무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의 각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체계화, 보급 의무 및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과서의 어문규범 준수 의무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국가의 외국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어 보급 의무

장	조	제목	내용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 재단의 형태 및 사업 내용
	제20조	한글날	한글날의 법적 근거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가와 지자체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국어능력 검정의 법적 근거 마련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어문화원 지정권, 국어문화원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제5장 보칙	제25조	협의	중앙행정기관장의 국어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의무
	제26조	청문	국어문화원 지정 취소 시 청문할 의무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 3.1.3. 평가

상기와 같은 중요한 의의에 따라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남북 법령 용어 등의 통합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법 제3조 제1호에서 “국어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법률의 문언적 해석상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언어는 우리 언어에서 제외되고 있다. 북한 언어가 비록 우리의 영토 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나 우리 민족의 언어라는 토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1조의 제정 목적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이렇게 국어의 정의에서 공간적으로 북한 지역이 제외된 것은 헌법 제3조의 해석상 북한 지역까지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과 규범의 이질성에 기인하여 법률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어 내지 언어임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남북 언어 통합의 법률적 근거를 보다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어를 넘어 우리 민족의 언어를 이 법에 담게 된다면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남기게 되고 법 내용과 체계성이 더욱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 분야를 비롯한 전문 분야의 용어 통합에 있어서 우선 「국어기본법」상의 적용 범위, 국어의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편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항의 내용도 남북 언어 통합의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언어 통합의 법률적 근거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이 법률은 남북 언어 통합, 북한 언어의 연구나 이해 등에 대한 토양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남한의 국어만을 중심으로 하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3.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법

### 3.2.1. 배경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2004년 4월 남한의 ‘통일맞이’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간의 사전 편찬 의향서 체결로 시작되어 동년 12월에 ‘겨레말큰사전’ 편찬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후 2006년 1월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설립되었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올림말분과, 집필분과, 새어휘분과, 정보화분과로 나누어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3.2.2.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법의 법체계와 주요 내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하, ‘겨레말 사업법’)은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7년 4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미포함)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법률의 목적을 규정
제2조	정의	‘겨레말’, ‘겨레말큰사전’의 정의
제3조	법인격	편찬사업회의 법인격
제4조	설립	편찬사업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제5조	정관	편찬사업회의 정관 사항
제6조	사업	편찬사업회의 사업 내용
제7조	임원	편찬사업회의 구성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규정
제9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 감사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결격사유 규정
제11조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3조	남측편찬위원회	남측편찬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사무처	사무처의 조직 근거
제15조	보조금 및 출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근거 규정,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출연, 기부 근거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6조	회계연도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춤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통일부장관 승인 근거
제18조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의 통일부장관 제출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요청 근거
제20조	지도·감독	통일부장관의 편찬사업회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공무원 파견 근거
제21조	준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3.2.3. 평가

‘겨레말 사전법’은 한시법으로서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 기간을 12년으로 한정하여 시간적 한계성을 갖고 있다.<sup>7)</sup> 또한 과거 사업의 이력을 추적해 보면 편찬 사업이 남북 관계의 국면에 따른 많은 저항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에 조직의 존속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남북 관계의 전례상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예상되므로 사전 편찬의 안정성을 법률로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시간이 걸리는 언어 통합의 장애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북한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내 인력 변동이 적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우리는 편찬사업회법상 기관을 임의적 기구로 설립함으로써 종사원의 지위와 신분 보장 및 안정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법률로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태여 이 법률을 한시법으로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 간에 공동으로 사전을

7) 2007년 제정된 법률(법률 제8392호)에는 7년간 효력을 갖도록 하다가 2013년 7월 법 개정 시 1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였다.

편찬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는 이 법률을 개정하여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보다 크고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 및 연구의 토대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력이 활성화된다면 언어의 차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언어 통합 내지 북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쩌면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는 법제보다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발적 연구의 통로를 열어 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겨레말을 채집·연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규범 현실상 북한에 대한 구속력은 당연히 없고 동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조직법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국어기본법」과의 어떤 연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원회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연히 제외하고 있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면 법 제2조에서 겨레말을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둔 우리 동포나 남북 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 국적자를 당연히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4. 법령 용어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 4.1. 교류 협력의 현실적 방법

북한과의 법령 용어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령 관리 시스템의 교류, 법제 인력의 교류가 매우 유효적절하다. 방법론적으로는 최근 개소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통한 교류<sup>8)</sup>, 경제특구 내에서의 남북 교류, 국제기구와의 공조, 조직화를 통한 남북 법조인 및 국어학자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을 통한 교류 협력 속에서 법령 용어에 대한 통합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sup>9)</sup>

특히 법령 용어 통합 작업에는 사회주의 법 제도에 정통하고 법령 용어 정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갖춘 남한 인력과 외국에서 연구한 북한의 법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가령 정부에서는 법제처나 법무부, 통일부가 주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전문용어의 통합 이후에는 이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을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국민 홍보, 학교 및 사회 교육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 정부가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민간 및 학계가 두루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어 대응해 나아간다면 보다 전문성이 제고되고 확산에 용이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4.2. 법률의 제정

상기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말 사전법’을 기본으로 이 법률에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추가 개정 입법을 하는 방법과 전문용어 통합 또는 언어 통합을 추진하는 별도의 조직법제를 제정하는 방안도

8) 실제로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통해 많은 대북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9) 손희두(2014),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한국법제연구원, 147~155쪽 참조.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회의 조직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 남북한 언어 소통의 문제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법질서 속에서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각 분야별 언어 통합을 위한 작업의 분량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의 형식으로 조직과 활동 내용을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 부문의 전문용어 통합 작업은 추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의 양을 가늠해 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예를 보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부딪히는 애매한 법령 용어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가의 설문 조사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할 때가 46%로 높게 나타나 전문용어의 사용이 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sup>10)</sup>

법령 용어의 통합은 법질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의학 용어는 그 중요도에 비추어 보면 북한 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남한 인력의 투입과 협진 체계를 위해 매우 시급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이나 예술 부문의 용어도 통합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용어 통합 작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작업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부가 중심으로 조직을 갖추어 민관이 합동하여 참여하는 모델로의 법제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10) 강진웅(2017). "남북한의 언어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23-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58쪽.

### 4.3. 루마니아의 사례

체제 전환을 겪은 루마니아의 경우 혁명 이후 새로운 제도에 맞는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빈번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는 오히려 새로운 법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이는 법률이 자주 개정된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인이나 행정 공무원조차 새로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으며 새로 받아들인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 용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정의의 방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루마니아의 예에서 볼 때 새로운 법률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공무원이 적응하는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법령 용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 5. 향후의 과제

남북 간 언어 교류 가운데 법률 분야 용어의 교류는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연구가 부족하고 교류 실적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북한에서 법률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법은 계급 사회에서 경제적 지배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며, 지배

---

11) 강현철·엄태현(2003),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0쪽.

12) 강현철·엄태현(2003), 앞의 논문, 41쪽.

제공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됨으로써 계급 간의 갈등에서 생겨난 통치 수단이자 압제 도구라는 인식<sup>13)</sup>이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법령 용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조인은 체제에 충성도가 매우 높은 특정 소수의 초엘리트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법령 용어의 통합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

한편, 시간적으로 법령 용어의 통합은 미래 통일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남북 합의를 작성할 경우에 법령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상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령 용어의 통합은 매우 광범위한 작업이므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법령 용어보다 일상어나 이념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북한의 법령 용어를 합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의 법령 용어를 서로 통합한다면 일본식 한자어를 주로 쓰는 남한식의 통합인가 이념적이고 우리말로 풀어 쓰는 북한식의 통합인가는 상호 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한의 문법 범주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sup>14)</sup> 법률의 숫자나 입법 밀도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남한 중심의 법령 용어와 법제 통합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기 이전 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 연합 수준의 단계에서는 남한 중심의 통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의 법제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함께 남북한 법령 용어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 목록의 용어들을 사용할 대상에 맞게 정의 내리고 전문용어와 일반 어휘 등에 접목시킴으로써 법령 용어의 사용과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남북

13) 윤대규(200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울아카데미, 39~41쪽.

14) 권재일(2004),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 31, 우리말글학회, 14쪽.

상호 간의 혼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15)</sup>

이러한 작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조직을 법제화하여 상설 조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에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언어도 우리 민족의 언어임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 언어 통합의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겨레말 사업법’에도 사업회의 설립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과 종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천적 기구를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북한의 대응 조직과의 설립 및 존속의 대칭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

15) 강현철·엄태현(2003), 앞의 논문, 44쪽.

## 참고문헌

- 권재일(2004),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 31, 우리말글학회.
- 강진웅(2017), “남북한의 언어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23-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손희두(2014),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한국법제연구원.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2000705>)
- 윤대규(200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울아카데미.
- 강현철·엄태현(2003),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편집부(1995), 《북한법률용어의 분석. I, 헌법 편(北韓法律用語의 分析. I, 憲法編)》, 한국법제연구원.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1. 서론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언어문화를 지속하면서 용어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겨레말큰사전’과 같은 대규모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남북 교류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는 노력과 함께 각 전문 분야에서 남북 간 용어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를 높여 가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건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분야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건설 개발 사업 과정에 많은 조직과 인력이 참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남북 협력 사업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상당한 규모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 기술 인력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사업의 성공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공통의 건설 분야 관련 용어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 관계 회복과 북한 지역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모든 노력에 선행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서 전문용어가 갖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남북 건설 용어와 관련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남북 건설 용어를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앞으로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 2.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 2.1.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남북 간 언어 통합은 분단 이후 남북의 사회 체제 차이가 가져온 언어적 이질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민현식(2014), 이찬규 외(2014), 이대성(2015)] 남북 정부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어에서 35% 차이가 나고, 전문어에서 64% 정도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전문용어에서 이러한 이질화가 심각하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차이도 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용어의 경우 《겨레말큰사전》에도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sup>1)</sup>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자기 분야 용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문 분야마다 남북 간에 쓰이는 용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

1) 최기선 외(2005)는 특정 집단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새로 형성된 어휘가 많고, 단어어 명사로 일반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점을 전문용어의 특징으로 정의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남북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2.2. 건설 분야의 연구 수요

### 2.2.1. 북한 건설 인프라와 남북 협력 사업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한 평화 번영 정책과 동북아 시대 구상을 제시하였고, 북핵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병행 추진하였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의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 선언)'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이상준 외(2008)] 여기에는 개성 공단 추가 개발, 고속 도로와 철도 개수·보수 등 건설 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현재 북한의 건설 산업 기반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을 개수 및 보수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상황은 공기를 중시하고, 건설 자재와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신규 건설과 개수 및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효진 외(2017)] 따라서 남북 개발 협력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사업 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상당한 건설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도 통일 전후로 건설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박용석(2016)] 즉 독일 전체에서 균형 있는 삶의 조건을 창출하겠다는 통일 독일의 최우선 과제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택, 교통 서비스 기반 산업 단지 등에 대한 독일 연방 정부 등의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되었다. [신민영·최문박(2015)] 독일은 통일 이후 건설 투자 성황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건설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2.2.2.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북한 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바, 분야별 제도 개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핵심 과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 개발에 있어 8개 분야<sup>2)</sup>의 제도와 인력 측면의 과제를 정리한 이상준 외(2012)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용어와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남북 간 공동 연구가 중단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과거에 진행된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공동으로 투입된 개성 공업 지구, 금강산 지구 등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의 건설 용어가 상이함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 박용석(2008)] 즉 북한에서 시공한 경험이 있는 건설인을 대상으로 북한 건설 시장 진출 시 북한 인력 사용상의 어려움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9%가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는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58.3%)’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향후 북한 개발 수요와 현지의 인력 사정, 남북 협력 사업에서의 교훈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2) 북한 개발 분야를 국토 조사 및 계획, 산업 입지, 도시 및 농촌 개발, 주택,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수자원 및 방재, 문화 및 관광 등 8개 분야로 구분함.

### 3.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현황

#### 3.1. 총괄 개요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개별 유관 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의 용어를 정리한 경우도 있고, 타 분야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북측 전문가와의 교류하에 용어를 정리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용어의 추출과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용어 통합을 위한 세부 논의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건설 분야 전문용어와 관련한 주요 선행 연구와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2. 주요 연구 실적

북한의 건설 분야 용어에 대해서는 초기 사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남북과학기술용어집》과 통일문제연구협회의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에 해당되는 주요 실적이다.

##### 3.2.1. 《남북과학기술용어집》(2005) 발간

《남북과학기술용어집》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주관하에 2005년 편찬된 물리, 화학, 정보 공학, 수학, 생물, 건축, 금속 분야 전문용어 단순 비교 용어집이다. 용어집 집필 과정에 북측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일본 등 제3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측 과학원 함흥 분원 등이 발행한

3) 현재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로서 당시 사전 작성에는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화문제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어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13개 분야별 전문 기관이 참여함.

바 있는 용어 사전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남측 용어와 비교해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집 내에서 표제어는 한국어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에 해당하는 조선어와 영어 대역을 기술하고 있다.[김철환 외(2015)]

### 3.2.2.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2007) 발간

통일문제연구협회의회는 2006년 북한의 고려전자출판사와 관련 협의서를 체결하고, 2007년에는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사업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협력은 추진되지 못한 채 남측에서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은 기본적으로 남측 용어, 북측 용어, 관련어, 한자, 원어, 남측 뜻풀이, 북측 뜻풀이, 전문 분야 동의어 및 출처들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의 용어 뜻과 활용 예를 쉽게 알 수 있다. 남측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하되, 없는 경우 참조한 사전에 대한 출처를 밝혔다.[김철환 외(2015)]

### 3.2.3.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2010) 발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남북한 해운 항만 분야의 관련 법률, 항만 건설 관련 학술지, 건설 기준 등에서 항만 건설 기술 관련 용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남측 용어, 북측 용어, 관련어, 남측의 의미, 북측의 의미 등으로 구성된 용어집을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내에 수록하였다.

### 3.2.4.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2012) 발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조선말대사전》(1997) 등을 출처로 하여 철도, 물류, 무역 분야에서의 전문용어들에 대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뜻, 북한 용어 뜻을 정리한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을 2012년에 발간하였다.

### 3.2.5.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2012) 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북협력처는 《조선말대사전》(1997)에 있는 전체 용어 중 건설 분야와 관련된 단어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사전의 내용은 북한 용어, 의미, 남한 용어(유의어)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주요 연구 실적



### 3.2.6. 《북한건설용어집》(2015) 발간

국토교통부는 남한의 건설 기술자 또는 학술 연구자들이 북한 문헌 검토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 전문 분야, 23개 영역에 대해 총 5,364개 용어를 정리한 《북한건설용어집》을 2015년에 발간하였다. 용어집은 북한 건설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북한 용어, 북한 해설, 남한 용어, 영어 유사어, 분야(영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남한 용어에 상응하는 북한 용어를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으로 ‘남한 용어 찾아보기’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일상적인 주거 생활과 관련된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용어, 북한 건설 관련 법령 용어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 3.2.7.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2017) 발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남측의 각종 기술 자료를 분석하여 정보통신 분야 핵심 용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북한 용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을 발간하였다. 이 비교집에서는 총 1,476개 남한 용어에 대해 북한 용어, 영어 용어, 남한에서의 용어 정의를 제시하였다.

## 3.3. 시사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건설 분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다른 모든 작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용어와 기준의 정리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 교통 분야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6년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로 구분하여 북한 개발과 관련된 기획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그중 북한 건축 산업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조사한 연구에서<sup>4)</sup>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에 의한 건축 재료·자재, 설계 및 시공상의 용어 차이점을 분석하여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건축관계 용어사전집》 발간이 필요하다고 제의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연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건설 용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건설 산업 내 산학연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안병욱 외(2016),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표 1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총괄 현황

명칭	발간 기관	발간 연도	분야	구성 요소	용어 및 정의 출처	형식
《남북 정보통신 공사 용어 비교집》	한국 정보통신 산업연구원	2017	정보 통신 (1,476개)	남한 용어, 북한 용어, 영어 용어, 용어 정의 (남한)	《표준국어대사전》 《ITA 정보통신 용어사전》 《온라인백과사전》 《표준품셈》	책자
《북한건설 용어집》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 주택공사(LH) 토지주택 연구원	2015	건설 전반 (5,364개)	북한 용어, 북한 해설, 남한 용어, 영어 유사어, 분야 (영역)	《영어-중국어-조선어 과학기술용어대사전》 (2003) 《영조대사전》 (1992) 《건설사전》 (1985) 《조선말대사전》 (1997)	책자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남북협력처	2012	건설 전반	북한 용어, 의미, 남한 용어 (유의)	《조선말대사전》 (1997)	책자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2012	철도, 물류, 무역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뜻, 북한 용어 뜻	《조선말대사전》 (1997) 등	책자
《남북한 건설기술 (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10	항만	남측 용어, 북측 용어, 관련어, 남측 의미, 북측 의미	※ 남북한 해운 항만 분야의 관련 법률, 항만 건설 관련 학술지, 건설 기준 등에서 항만 건설 기술 용어 선정	책자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통일문제 연구협의회	2007	건설, 교통, 기계, 전기 등	남쪽 용어, 북쪽 용어, 관련어, 한자, 영어,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어대사전》 (1991) 《철도자동화상식》 (1990) 《과학기술대사전》 (2005) 《조선말대사전》 (1992) 《조선말사전》 (2004) 《조선교통 운수사》 (1988)	책자 [일부 전산망 (온라인) 서비스]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2005	건축 공학 등 13개 분야	북한 용어, 남한 용어	《조선말대사전》 (1997) 등	책자

## 4.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 사례:

### 《북한건설용어집》 발간

4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정리한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실적 가운데 2015년 배포된 《북한건설용어집》을 작성했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4.1. 용어집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는 남한의 건설 기술자 또는 학술 연구자들의 북한 문헌 검토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집 작성을 기획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학술 연구 용역 ‘북한 건설·제도 및 계획 현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과업 중 하나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건설 분야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여 2015년에 공개하였다.

#### 4.2. 용어집 작성 방법과 절차

용어집 작성을 위해 북한 내 건설 용어와 관행에 정통한 중국 연변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연구진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필수 북한 건설 용어를 추출하여, 그 뜻을 정리하고 분야를 구분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sup>5)</sup> 나아가 용어집 내용을 감수할 수 있는 건설 전문 분야별 전문가를 유관 학회에서 추천받아 기초 작업을 보완하고 내용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5) 본 용어집은 단기간에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시간상의 제약과 건설에 포함된 여러 세부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는 내용상의 제약을 지닌 상태에서 제작됨. 북측 건설 전문가가 용어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차선책으로 북한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해 본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를 모색함. 그 결과 남한, 북한, 국외 건설 분야를 모두 참여한 경력에 있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시켜 작업을 진행함.

#### 4.2.1. 용어의 추출

정리 대상 건설 용어는 당초 용어집 제작 목적을 반영하여 북한 현지 건설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북한 건설 용어 데이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 정보·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국외 전문가가 1차로 용어(안)를 추출하고, 국내 연구진은 아래 네 가지 방향에서 이를 보완하였다.

- ① 국내 시방서 등 기술 자료, 건축 세움터와 기타 관련 법 제도에서 도출된 법령 용어 등을 추가하였다.
- ② 북한의 주요 건설·개발 관련 법령 14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와 남한의 관계법에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고 법령상의 단어를 비교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 ③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의 학술 및 기술 자료를 보고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추가하였다.<sup>6)</sup>
- ④ 선행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 실적 자료 중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하였다.

#### 4.2.2. 용어의 정리

학술 연구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남북한 건설 용어 사용 예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서로 상대측 자료를 검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북한 건설 용어, 용어 해설, 해당 분야를 우선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남한 건설 용어와 영문 용어를 병기하였다. 북한 용어와 해설은 아래의 건설 전문 문헌을 출처로 하여 정리하였다.<sup>7)</sup>

6) 주로 《광명백과사전》을 활용함.[《광명백과사전 17》(화학공업·경공업·건설·운수·제신)(2011)]

7) 당초 계획에서는 용어에 대한 남측 사전의 해설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남측 용어 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용어 사전에 대한 협의가 여의치 않아 이번 작업에서는 제외됨.

- ① 《영어-중국어-조선어 과학기술용어대사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2003.
- ② 《영조대사전》, 리문재 외 11인 편, 외국문도서출판사, 1992.
- ③ 《건설사전》 1, 2,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④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7.

### 4.2.3. 내용의 검증

용어집(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건설 분야 유관 학회의 협조를 받아 용어집 구성과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향후 본 용어집에 대한 후속 작업에서의 연속성을 도모하면서, 예상되는 남북 공동 작업에 있어서는 유관 학회와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의 직간접적인 협력하에 검증을 진행하였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설계·역사·조경·도시와 교통, 시공·재료·관리·유지 관리, 설비 분야에 대한 전문가 3인을, 대한토목학회에서는 토목 전반에 대한 용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 3인을 추천하였다. 학회에서 추천 받은 분야별 전문가들에게는 해당 분야 용어와 해설을 배포한 후 아래 기준에 따라 감수하도록 안내하였다.

- ①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 영문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북한 용어와 해설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와 영문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누락된 남한 용어와 영문 용어 추가
- ② 분야별 주요 용어 누락 여부 확인
  - 담당 분야에서 필수적인 단어가 누락된 경우, 추가해야 하는 용어로 제안

### 4.3. 전문 분야 구분

《북한건설용어집》에는 건축 분야(설계, 구조, 시공, 관리)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토목, 도시·교통, 조경, 기계, 전기·전자 등의 전문 분야에 포함된 용어 5,364개가 수록되었다. 건설 분야의 전체 전문 분야 대비 금번 용어집 용어들의 해당 전문 분야를 표기하면 아래 표와 같다. 건설 분야에 포함되는 총 10개 전문 분야, 47개 영역 중 7개 전문 분야, 23개 영역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용어집에 포함되었다.<sup>8)</sup>

**표 2 용어집 작성 해당 전문 분야**

전문 분야	영역	선택	영역	선택
기계(5)	1) 공조 냉동 및 설비	△	2) 건설 기계	△
	3) 용접	△	4) 승강기	△
	5) 일반 기계			
전기·전자(3)	1) 철도 신호		2) 건축 전기 설비	△
	3) 산업 계측 제어			
토목(12)	1) 토질·지질	△	2) 토목 구조	△
	3) 항만 및 해안	△	4) 도로 및 공항	△
	5) 철도·삭도	△	6) 수자원 개발	
	7) 상하수도	△	8) 농어업·토목	
	9) 토목 시공	△	10) 토목 품질 관리	
	11)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	12) 지적	
건축(6)	1) 건축 구조	△	2) 건축 기계 설비	△
	3) 건축 시공	○	4) 실내 건축	
	5) 건축 품질 관리	△	6) 건축 계획·설계	○
광업(2)	1) 화약류 관리		2) 광산 보안	
도시·교통(2)	1) 도시 계획	△	2) 교통	△
조경(2)	1) 조경 계획	△	2) 조경 시공 관리	△
안전 관리(4)	1) 건설 안전	△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 검사	

8) 전문 분야와 영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 분야)를 재편집함.

전문 분야	영역	선택	영역	선택
환경(7)	1) 대기 관리		2) 수질 관리	
	3) 소음 진동		4) 폐기물 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 환경	
	7) 해양			
건설 지원(4)	1) 건설 금융·재무		2) 건설 기획	
	3) 건설 마케팅		4) 건설 정보 처리	

전체 용어를 이리한 전문 분야와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여러 전문 분야에서 공통되는 분야의 용어가 50% 가까운 비율(46.0%, 2,465개)을 차지하고, 건축 분야(26.5%, 1,421개)와 토목 분야(13.9%, 743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용어집 정리 용어 개수(전문 분야와 영역별)**

전문 분야	영역	개수	분야 비율(%)	영역 비율(%)
공통	일반	201	3.7	8.2
	설계	96	1.8	3.9
	구조	647	12.1	26.2
	재료	610	11.4	24.7
	시공	685	12.8	27.8
	건설 기계	72	1.3	2.9
	건설 관리 및 지원	109	2.0	4.4
	역사	45	0.8	1.8
	소계	2,465	46.0%	100.0%
건축	건축 일반	139	2.6	9.8
	건축 계획 및 설계	356	6.6	25.1
	건축 재료	255	4.8	17.9
	건축 시공	287	5.4	20.2
	건축 설비	375	7.0	26.4
	유지 관리	9	0.2	0.6
	소계	1,421	26.5%	100.0%

전문 분야	영역	개수	분야 비율(%)	영역 비율(%)
토목	토목 일반	99	1.8	13.3
	토목 재료	5	0.1	0.7
	토목 시공	149	2.8	20.1
	토질 및 지질	125	2.3	16.8
	항만 및 해안	72	1.3	9.7
	도로 및 공항	47	0.9	6.3
	교량	48	0.9	6.5
	철도 및 석도	21	0.4	2.8
	수자원 개발	79	1.5	10.6
	상하수도	61	1.1	8.2
	농어업·토목	7	0.1	0.9
	측량·지형 정보·지적	30	0.6	4.0
	소계	743	13.9%	100.0%
도시 및 교통	도시 계획	72	1.3	81.8
	교통	16	0.3	18.2
	소계	88	1.6%	100.0%
조경	조경	30	0.6	-
기계	기계	8	0.1	-
전기	전기	24	0.4	-
기타	기타	585	10.9	-
총계		5,364	100.0%	-

#### 4.4. 용어집의 구성과 정리 형식

용어집 제작 과정에서는 기초 자료를 엠에스 엑셀(MS Excel)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후 필요에 따라 한국어, 영어, 전문 분야 등으로 용이하게 재정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또한 기초 자료에 관련 문헌의 출처를 명기하여 개정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 4.4.1. 용어집의 전체 구성

《북한건설용어집》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전체 용어에 대한 해설은 3장에 포함시키고, 생활 용어, 분야별 용어, 법령 용어 등 주요 용어를 2장에서 별도로 정리하였다.

<b>1장. 들어가며</b>	<b>2장. 주요 북한건설용어</b>	<b>3장. 북한건설용어집</b>
1. 발간사	1. 북한건설용어의 특징	1. 용어집
2. 일러두기(유의사항)	2. 주거환경 용어 상호비교	2. 남한용어 찾아보기
	3. 분야별 주요 용어	
	4. 건설 관련 법령 용어 해설	

2장에서는 우선 3장 용어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말 사용 빈도가 높고 다양한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점이 특징인 북한 건설 용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거 환경 용어의 경우 건설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주거 생활 관련 남북 용어를 비교·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 주택 평면과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일상적인 건설 관련 용어를 비교하고, 북한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살림집’ 관련 용어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분야별 주요 용어의 경우 남북 용어 비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공통 분야,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기타 분야 등 4개 전문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 법령 용어 해설의 경우 북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총 14개 북한 건설·개발 법령에 포함된 북한 건설 용어를 나열하였다. 법령 해석과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시 일반 용어도 추가하였으며, 3장의 용어집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장에 포함된 북한 건설 용어는 북한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말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남한 용어에 상응하는 북한 용어를

보다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으로서 '남한용어 찾아보기'를 추가하였다.

**그림 2** 북한 건설 관련 법령과 용어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주체82(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03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2)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1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건설법의 기본**

**제1조(건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제위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건설분야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행안건설, 관계건설 같은대 근 힘을 넣어 연대계급의 기념비적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은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출흥히 보장하여주고 있다. 국가는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3조(건설의 계획화원칙)**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진당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제4조(건설의 주체성원칙)** 건설을 인민들의 자함과 요구에 맞게 하는것은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을 나라의 구체적인현실과 자연지리적조건, 인민들의 수요와 생활감정, 풍습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5조(건설의 집중화, 효과성제고원칙)** 국가는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취하여 지리대, 주요 대상 건설에 면역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주안기밀을 보장하고

**[기업소]**  
생산, 교통, 운수, 유통 따위의 경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체

**[살림집]**  
가정을 위하여 하여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집

**[농촌문화주택]**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아름답고 일품하며 문화적으로 규모있게 꾸러진 농촌의 살림집

**그림 3** '남한용어 찾아보기' 색인

02 북한건설용어집

**2 남한용어 찾아보기**

**(가)**

가가(街街)..... 59	가설재료..... 61	간막이벽..... 334
가건물..... 61	가설조명..... 61	간막이벽따감..... 256
가건록..... 61	가설조명하중..... 61	간막이벽판..... 257
가공과정..... 59	가설포장..... 164	간선도로..... 64
가공현정..... 171	가소성..... 61	간선지계획..... 64
가교..... 136	가소수량..... 62	간설..... 64
가구..... 59	가스관..... 62	간접난방..... 64
가기둥..... 59	가시시설..... 62	간접노루..... 64
가닐결간..... 59	가설리레이드..... 62	간접비..... 64
가널보..... 59	가스올집..... 62	간접조도..... 64
가능모래..... 288	가스철단..... 62	간접조명..... 64
가면 프레임..... 376	가스콘크리트..... 62	간접축열..... 64
	가솔..... 97	간조(干潮)..... 251
	가솔기..... 97	간조역(干潮站)..... 253
	가시광선..... 62	갈바나부식..... 293
	가시선계획..... 207	갈륨보상물..... 64

#### 4.4.2. 용어 정리 양식

《북한건설용어집》 3장의 용어집은 북한과 남한의 기술 용어를 병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양식을 작성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용어에 대한 해설을 우선 기술하고, 해당 용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 영문 용어순으로 정리하였다.

북한 용어 중 유사어는 ‘**유**’ 다음에 표기하고, 남한 용어는 ‘**남**’ 뒤에, 영문 용어는 ‘**영**’ 뒤에 적었으며, 용어 해설에서 유사어가 용어집 내에 있는 경우 ‘**☞**’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 용어는 남한의 자음 순서에 따라 용어를 배열하였으며,<sup>9)</sup> 북한 용어 해설은 북한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맞춤법을 준용하여 수록함에 따라 띄어쓰기, 사이시옷 사용, 두음 법칙 적용 등 남한과 다르게 쓰이는 북한 말의 특징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술하여 용어집 활용에 참고하도록 하였다.<sup>10)</sup>

**표 4 용어집 양식과 정리 사례**

<b>북한용어</b>
북한용어 해설 <b>유</b> 유의어 또는 <b>☞</b> 관련어
<b>남</b> 남한용어
<b>영</b> 영문용어
<b>가시대</b>
부엌이나 조리칸에서 그릇이나 식료품을 물에 씻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대
<b>남</b> 개수대, 싱크대
<b>영</b> sink

9) 북한 말의 자음 배열 순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ㅎ, ㅈ, ㅊ, ㅅ, ㅈ, ㅊ]가 아닌 남한의 자음 배열 순서[ㄱ, (ㄱ), ㄴ, ㄷ, (ㄷ), ㄹ, ㅁ, ㅂ, (ㅂ), ㅅ, (ㅅ), ㅇ, ㅈ, (ㅈ), ㅊ, ㅋ, ㆁ, ㅅ, ㅎ]를 따랐음.

10) 그 외 ‘~되어 : ~ 되어’, ‘결수 : 계수’, ‘잇손 : 이음’, ‘짐 : 하중’, ‘~우 : ~위 (앞에 띄어쓰기 없음) 등 빈번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따로 안내함.

#### 4.5. 북한 건설 분야 용어의 특징과 주거 전문용어

##### 4.5.1. 북한 건설 분야 용어의 특징

북한에서는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을 순수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에서 기술 용어들이 많은 변화를 겪음에 따라 남한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수우리말의 사용 빈도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오랫동안 써 오면서 굳어진 외래어나 한자어는 본래 대로 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순수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를 어느 정도 같이 쓰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도’, ‘내구성’, ‘환기’, ‘트러스’, ‘방음벽’, ‘내한성’ 등 남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건능굴길’, ‘오래 견딜성’, ‘공기갈이’, ‘살뜰’, ‘소리막이벽’, ‘추위견딜성’ 등 우리말로 사용되고 있다.

**표 5** 북한 용어의 우리말 사용 예

북한 용어	북한 용어 해설	남한 용어
건능굴길	지하로 난 건능길	지하도
건물오래 견딜성	건물이 물리적마모로부터 오래 건디는 특성으로 기본힘받 이구조물들의 견딤능력에 따라 평가됨	건물 내구성
공기갈이	방안의 흐린 공기를 빼고 맑은 공기를 갈아넣는 일	환기
살뜰	직선막대들로 되어있으며 모든 마디들에서 돌이로 연결된 막대계 <sup>ES</sup> 트라스	트러스
소리막이벽	소리의 전파를 막는 벽	방음벽
추위견딜성	0°C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재료의 성질	내한성

또한 북한 기술 용어에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다. 특히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복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용어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표현들이 러시아의

발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호용 외(1999)]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뜨락또르’, ‘레루’, ‘마르까’, ‘썩찌야’ 등 외국어에 근원을 둔 일부 용어들이 전문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표 6** 외국어 영향을 받은 북한 용어 예

북한 용어	북한 용어 해설	남한 용어
고마르까시멘트 (高marka cement)	마르까(석재, 몰탈,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짐을 받는 건설 자재의 세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평균 압축세기)가 높은 질 좋은 시멘트	고강도 시멘트
노메르	차레를 나타내는 호수(號數) ④⑤ 번호	번호
대형뜨락또르	50HP이상의 출력을 가진 트락또르	대형 트랙터
레루	철도차량의 바퀴가 타고 굴러가는 궤도의 기본구성요소로 철길에 가는 일정한 모양으로 된 긴 강쇠 ④ 철길	레일, 철도 선로
마르까	석재, 몰탈,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짐을 받는 건설자재의 세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	기준 세기
찌야식	한 개의 공동계를 중심으로 한층에 몇 개 세대씩 살림집단위를 연결하여 짓는 건설방식	출형

#### 4.5.2. 주거 환경 용어 상호 비교

주거 생활에서 익숙한 용어들에 대해 남북한 용어를 상호 비교 한다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내·외부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검토하였다. 아래 표는 이러한 용어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은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에 이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7 아파트 중심의 주거 생활 관련 건설 용어 비교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아파트	아빠트	난간	계단란간
주택	살림집	옥내 소화전	옥내소화전
거실	공동살림방	승강기	승강기
응접실	손님맞이방, 접대실	초인종, 벨	전기종
침실	살림방	욕조	목욕통
식당	식사실	세면대	세면대
주방, 부엌	부엌(방)	변기	변기
화장실	위생실	화장지	위생종이
발코니	발코니	스위치	전기여닫개
베란다	내임대, 내민층대	커튼	창가림막, 주름막, 카텐
계단	계단, 층대, 층층대, 디대	창	창바라지
썩크대, 개수대	가시대	텔레비전	텔레비존
가스레인지	가스곤로	형광등	반디빛등
프라이팬	볶음판, 지짐판	옷걸이	옷걸개
냉장고	랭동기, 랭동고	헤어드라이어	머리건조선풍기
전기 믹서	전기분쇄기	세탁기	세탁기
에어컨	랭풍기	진공청소기	흡진기
전기밥솥	전기밥가마	주차장	차마당
가스오븐레인지	지짐곤로	중앙난방	구획난방
층고	층높이, 층고	비상계단	비상계단
창고	창고	비상구	비상구
통풍	바람같이	비상등	비상등
환기	환기, 공기같이	초등학교	인민학교
가게	가가	탁아소	애기공전
가로수	거리나무	피뢰침	벼락촉
건널목, 횡단보도	건늬길	청결차	쓰레기차
산책로	유보도, 거닐길	서랍	빠람
생활 필수품	인민소모품	세탁소	빨래집
상들리에	무리등, 장식등	에스컬레이터	계단승강기, 자동계단



#### 4.6.2. 1차 분석

용어집 내의 단어들에 대해 우선 파악하기가 용이한 등가형 단어(AA형)와 비대응형 단어(AO형)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용어 중 7.9%에 해당하는 422개의 북한 용어는 그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다.

**표 9**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유형

분야	영역	전체 개수	AO형		AA형		
			개수	비율	개수	비율(1)	비율(2)
공통	일반	201	25	12.4%	103	51.2%	58.5%
	설계	96	8	8.3%	45	46.9%	51.1%
	구조	647	46	7.1%	299	46.2%	49.8%
	재료	610	32	5.2%	260	42.6%	45.0%
	시공	685	56	8.2%	295	43.1%	46.9%
	건설 기계	72	6	8.3%	30	41.7%	45.5%
	건설 관리 및 지원	109	15	13.8%	68	62.4%	72.3%
	역사	45	6	13.3%	23	51.1%	59.0%
	소계	2,465	194	7.9%	1,123	45.6%	49.4%
건축	건축 일반	139	11	7.9%	43	30.9%	33.6%
	건축 계획 및 설계	356	26	7.3%	154	43.3%	46.7%
	건축 재료	255	29	11.4%	118	46.3%	52.2%
	건축 시공	287	28	9.8%	124	43.2%	47.9%
	건축 설비	375	12	3.2%	197	52.5%	54.3%
	유지 관리	9	0	0.0%	8	88.9%	88.9%
	소계	1,421	106	7.5%	644	45.3%	49.0%
토목	토목 일반	99	9	9.1%	44	44.4%	48.9%
	토목 재료	5	0	0.0%	3	60.0%	60.0%
	토목 시공	149	12	8.1%	76	51.0%	55.5%
	토질 및 지질	125	4	3.2%	74	59.2%	61.2%
	항만 및 해안	72	4	5.6%	33	45.8%	48.5%
	도로 및 공항	47	1	2.1%	26	55.3%	56.5%
	교량	48	4	8.3%	18	37.5%	40.9%
	철도 및 석도	21	2	9.5%	7	33.3%	36.8%
수자원 개발	79	5	6.3%	32	40.5%	43.2%	

분야	영역	전체 개수	AO형		AA형		
			개수	비율	개수	비율(1)	비율(2)
	상하수도	61	6	9.8%	34	55.7%	61.8%
	농어업·토목	7	0	0.0%	5	71.4%	71.4%
	측량/지형 정보/지적	30	1	3.3%	22	73.3%	75.9%
	소계	743	48	6.5%	374	50.3%	53.8%
도시 및 교통	도시 계획	72	6	8.3%	40	55.6%	60.6%
	교통	16	1	6.3%	7	43.8%	46.7%
	소계	88	7	8.0%	47	53.4%	58.0%
조경	조경	30	1	3.3%	19	63.3%	65.5%
기계	기계	8	0	0.0%	1	12.5%	12.5%
전기	전기	24	1	4.2%	15	62.5%	65.2%
기타	기타	585	65	11.1%	326	55.7%	62.7%
	총계	5,364	422	7.9%	2,549	47.5%	51.6%

또한 등가형 중에서 AA형의 정의에 부합하는 용어는 전체의 51.6%인 2,549개였다. 그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50% 내외의 용어는 북한 용어와 남한 용어의 형태와 의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4.6.3. 2차 분석

1차 분석 후에는 언어 통합에 있어 핵심이 되는 비등가형 용어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00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 가운데, 등가형 중 AA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공통 분야의 '건설 관리 및 지원' 영역에 대한 추가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북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같은 경우(AA형)가 62.4%였고, 여기에 맞춤법이나 어문 규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Aa형[기본 로임(북)↔기본 노임(남), 설계 예산 리운(북)↔설계 예산 이운(남)]을 포함하면 등가형이 65%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동일 개념을 지칭하되 그 용어의 형태가 다른 준등가형의 경우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어 내 또는 언어 간

동의어로 표현된 경우(AB-1형)가 8.3%, 각 용어의 구성 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AB-2형)가 13.8%를 차지하였다. 대응어가 없는 용어(AO형)는 총 15개(13.8%)로 나타났다. 'AB-2형'과 'AO형'에 해당되는 30개 단어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표 10** '건설 관리 및 지원' 영역의 유형 구분

유형	구분	개수	비율	
등가형	AA	68	62.4%	
	Aa	2	1.8%	
준등가형	AB	1	9	8.3%
		2	15	13.8%
비대응형	AO	15	13.8%	
총계		109	100.0%	

준등가형 중 언어 간 동의어로 지칭된 동일 개념의 남북 전문용어(AB-1형)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또한 서로 대응하는 남북 용어들이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AB-2형)인 15개 용어에 대해서는 권재일(201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① 남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② 북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③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또는 ④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복수 어휘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준등가형 용어 사례(일부)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간접 로력	간접 노무	건설주	건축주
건설대	건설사	기준 단위	표준 단위
건설액	건설비	대휴 로력	대휴 노동
건설자, 시공주	시공자	직영 건설	직영 공사

#### 4.7. 《북한건설용어집》의 활용

상호 이질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는 남북 협력을 진일보하게 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가 된다. 상호 교류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상이한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합의된 전문용어를 활용하는 방향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건설용어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용어집은 북한의 건설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상호 공동 작업에 있어 효율적 의사소통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건설 분야 학자와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연구에서 정리한 작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용어집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자 외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5 결과물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



## 5. 향후 과제

건설 과정에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제도가 융합되어 적용된다.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관련 연구에는 이러한 건설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 간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5.1.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

#### 5.1.1. 전문 분야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건설 분야에는 건축, 토목, 도시 계획, 철도, 도로, 수자원, 국토 정보화, 행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가 존재한다. 따라서 용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정부 주도하에 건설 분야 전체 학회와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의 목표 아래 총괄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한 후 하위 전문 분야별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분야별 작업이 완료된 후 공통된 용어를 정의하고, 중복되거나 특정 용어의 의미가 여러 개인 용어는 추가로 편집하도록 한다.

#### 5.1.2. 심화 언어 통합 작업 진행

현재까지 건설 분야 전문용어 정리 작업은 단순히 관련된 용어를 나열하고 남북의 용어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보다 심화된 언어 통합 과정을 거쳐 누락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건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북한 자료의 입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측 자료에만 의존하여 용어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방서나 절차서와

같은 건설 기준, 기술제도 관련 자료를 통해 필요한 용어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기존 절차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5.1.3. 일반 언어 통합 기준의 준용

남북의 언어 환경은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중진 외(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용어는 남북의 일반 언어 통합 방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기법, 외래어에 대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며,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안보다 상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언어 통합을 다루는 기관에서 전문용어 작업을 위한 공통 가이드를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5.2. 통합 언어 확산을 위한 과제

### 5.2.1. 건설 분야 남북 교류 기회 확대

이찬규 외(2014)와 이대성(2015)에서 제시된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 건설 분야 언어 통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된 뒤에도 서로 간에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언어 차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 분야 남북 학자 간의 다양한 공동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논문 발표 등을 통한 학술적 교류 기회와 기술자 사이의 실용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5.2.2. 교육을 통한 통합 용어의 확산 도모

건설 관련 업무와 작업은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며, 남북 기술자와 노무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과 사무실이라면 전문용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용어까지 복합되어 안내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갈등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내 건설 현장 투입 시 전문용어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교육은 북한 노무자가 남한으로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단일화한 전문용어를 고등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남북의 대학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육성되는 건설 인력들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자료 작성과 이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sup>11)</sup>

11) 북한의 건설 관련 교육은 5~5.5년 과정을 수료한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1년간 현장 체험 후 설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건재대학, 4년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건설단과대학, 3년 과정을 수료한 후 고급 기능공인 준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건설전문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며,[김효진 외(2017)] 이들 교육과정과 교재에 통합 용어를 반영하도록 함.

## 참고문헌

- 김두환 외(2015), 《북한건설용어집(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국토교통부·LH 토지주택연구원.
- 김철환 외(2015), 《2014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남북 ICT 표준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호용 외(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 정책 연구 사업》, 과학기술부·한국전기연구소.
- 김효진 외(2017),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LH 토지주택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박용석(2016),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용석 외(2008), 《북한 SOC 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설협회.
- 신민영과 최문백(2015),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 LG경제연구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안병욱 외(2016),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이대성(2015),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원.
- 이상준 외(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기선 외(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 통일문제연구협의회(2007),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표창균 외(2017),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05),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전기연구소(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 과학기술부.
- 나희승 외(2012), 《남북한 철도용어/남북물류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6), 《한영대조 토지개발용어사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2012), 《남북한 건설 관련 용어사전》.
- 국토해양부 편(2010), 《남북한 건설기술 (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국토해양부.



## 국어학, 연구에서 소통으로

### - 김미형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



김미형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

질문자 김태경(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원장)  
 때 2018. 10. 8.(월) 곳 강남구 커피숍

“소통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된 인권 존중의 시작이다.” 김미형 상명대학교 교수는 소통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소통에서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김 교수는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공공언어학회는 관공서, 기업 등 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보다 쉽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천적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김미형 교수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청소년 언어 개선에도 관심이 많다.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맡아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고, 청소년 말하기 지도, 우리말 가꿈이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면서 학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업무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글 지킴이를 자처하며 지난 30년간 바른 우리말 교육을 실천하고 연구해 온 김미형 교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태경** 먼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에 열린 전국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연수회 때 뵙고는 처음이네요. 학기 중이기도 하고 한글날을 앞두고 여러 일로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김미형** 이번 학기에는 학부에 한국어 교원 과정이 신설되면서 새로 맡은 교과목의 수업을 준비하느라 적잖이 바빴는데, 지난달부터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말하기 지도, 외국인 한국어 경시대회, 우리말 가꿈이 활동, 지역 축제 현장을 찾아가는 한글 바로 쓰기 행사 등 국어문화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네요.

**김태경**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본 학회가 어떠한 취지로 창립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와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형**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공 언어는 무엇보다 쉬워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자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이기에 허투루 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문화재 안내판이며 식물 표지판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모름지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쉽고 바르고 품격 있는 공공언어를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 제24조에서는 국어문화원을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언어를 깊이 연구하고 널리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았는데, 연구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비해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더욱이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는 평가 척도에서부터 쉬운 한국어 쓰기 지침에 이르기까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많은데 마땅한 소통 창구가 없어 학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언론인 등 공공언어 사용자 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언어에 대한 생각을 깊고 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 한국공공언어학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전국 20개 국어 문화원 원장님들과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 참여해 주셨는데 차츰 회원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에는 제1호 학술지를 발간하고 내년 봄에는 학술 대회도 열어 기틀을 다져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언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김태경 ‘공공언어’가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형 좁은 의미로 공공언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및 산하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적인 언어라면 무엇이든 공공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

매체 언어를 비롯하여 은행이나 터미널 등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공공언어에 포함됩니다. 보험 약관이나 제품 사용 설명서도 예외가 아니며, 각종 연설문과 안내문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공공언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경 공공언어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김미형 공공언어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한자어나 외래어뿐만 아니라 한자나 로마자도 그 자체로 뜻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적지 않은 언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불통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출생 신고서에 사용된 ‘거소’나 ‘인우인’과 같은 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므로 사람들이 그 말 뜻을 몰라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라고 진열해 놓은 지역 관공서의 정책 홍보물에도 ‘에코 마일리지’, ‘마이크로크레딧’, ‘SOS넷’ 등 생소한 이름투성이입니다. ‘에코’를 ‘친환경’이나 ‘환경 친화’로, ‘마일리지’를 ‘이용 실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을 ‘무담보 소액 대출로 바꾸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국민의 알 권리도 지키고, 정책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공공언어를 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불편해도 그냥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인권 존중이란 그런 부분을 어루만지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은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김태경** 지금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공공언어학회의 창립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금 사용되는 공공언어가 어렵다는 뜻도 되는데요. 헌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의 조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공언어의 예시 같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접하면서 불편을 겪는 공공언어의 또 다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미형** 법제처는 중앙 행정 기관 중에서도 눈에 띄는 모범적인 기관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레일’, ‘케이워터’, ‘코스콤’, ‘엘에이치(LH)’, ‘엔에이치(NH)’ 등 공공 기관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클린교차로’, ‘유(U)턴 기압’, ‘수출 인큐베이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도어개폐’, ‘바우처’ 등 정책의 이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보도 자료를 보면 “3월 도로 블랙아이스·포트 홀 조심,”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와 같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은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국어는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던 신조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계층 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소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언어를 쉽게 써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김태경** 하지만 공공언어의 변화는 학회와 국어학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의 의지’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충남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공공 기관의 의지를 보여 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시도해볼 만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어전문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대다수 공공 기관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어책임관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외적인 일이 새로 생긴 꼴이므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 등과 같은 형태의 소극적인 방법 외에도 ‘공문서 작성 능력 시험’이라든지 공문서 진단 결과를 교육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뭐는 쓰고, 뭐는 쓰지 마라.”와 같은 형태의 계몽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어 실력과 사고력을 기른다면 바른 표현 방법, 인간적인 소통 방법 등을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문서 바로 쓰기라는 지엽적인 접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언어 개선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전격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김태경 영국의 크리스 마허(Chrissie Maher) 여사의 활동(행정, 법률 등 공공 분야의 언어 쉽게 쓰기)이나, 미국의 쉬운 영어(Plain English) 쓰기 운동의 발생 배경과 성과(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김미형**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은 형태의 공공언어 공인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쉬운 영어 쓰기 운동과 같은 형태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공공언어 운동을 시작해서 언어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공언어 정책의 순기능을 위하여, 즉 공공언어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여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학자와 국어 운동가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전 영역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정부가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정성과 언어 사용의 실용성을 함께 인식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김태경** 이쯤 되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공언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공공언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김미형** 저는 국어 공부が好き해서 그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었고, 학부 교육과 국어운동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말은 곧 정신’이라는 명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이후 살면서 경험해 보니 정말 많은 갈등들, 이를테면 개인 간 갈등, 사회적 갈등들은 모두 언어 표현과 소통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부모가 말하기 방법에 좀 더 신경 쓰면 더 훌륭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고, 정책 설명에서도 담당자가 좀 더 현명하게 표현하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그 점을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우한 일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희망의 싹들이 숨어 있습니다.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토대’에 해당하는 기본 사실들에 대한 집중과 투자입니다. 국어를 잘하면, 합리적 생각을 잘하게 되고, 그것이 곧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져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언어를 바르게, 잘 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대학에 국어문화원이 설립되고 이 일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 우리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에 시작한 것으로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의 공식 이름입니다. 쉬운 언어, 정확한 언어,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목표로 삼는데, 전국 국어문화원과 공공 기관의 국어 책임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전 국민의 공감대는 불러일으키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 속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고쳤는데,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공공언어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찰하며 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할 표현이 생기면 정성을 들여 정밀하게 만들고, 이미 사회에 나온 너무 어려운 말들은 꾸준히 고치며 쉬운 말을 쓰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김태경** 공공언어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언어 파괴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언어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김미형** 청소년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럴 때일수록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자유롭게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여 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에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 비추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제도를 건강부회처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글을 쓰는 교육, 자기 글을 수정·보완

하는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교사들은 학생들의 글을 얼마나 고심하며 개선하는 교육을 했나요? 교육 과정 자체에 그런 고민이 없는데 왜 대학 입시만 훌륭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어른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가 생기면 바로 뒤따라 편법과 같은 전략들이 터져 나오는 이 사회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점들이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대책 없는 어른이라 자책하면서 국어 문화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작은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죠.

**김태경** 청소년들의 언어 파괴 현상을 포함하여 욕설, 비속어 남용, 언론을 비롯한 공공 기관의 외래어 남용이 우리 사회를 소통의 부재로 내몰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의 언어 사용이 전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것 같은데, 생각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언어가 아닌 일부 집단에서 소통되는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준말이나 은어는 청소년기라는 특성에 의해 나타나므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진 않는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특정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미형** 한 나라의 구성원은 당연히 집단별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끼리 잘 소통이 되고 별문제 없는 신조어나 축약어에 대해 기성세대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를 나무라듯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싶기도 할 것

이고, 이를 통해 그들만의 세상을 공유하는 느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언어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정당한 논리가 세워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속어의 잦은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속어의 잦은 사용은 사고력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화나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화가 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비속어를 내뱉는 것은 감정의 배설을 통해 그 상황을 끝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자꾸 부조화가 마음에 축적되겠죠. 비속어를 사용해야 할 때, 자기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방안이 개발되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김태경** 공공언어 부분은 정부 혹은 관계 부처라는 ‘덩치가 큰 집단’이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는 청소년이라는 ‘작은 집단’이 ‘보다 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형국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공공언어의 변화를 위한 요소로 짚어 보았던 ‘공공기관의 의지에 ‘개인의 관심’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쉽고 품격 있게 가꾸기 위해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미형** 지금은 청소년 언어에 대해 마치 ‘잘못하고 있으니 바로 쓰라.’는 계몽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해요. 청소년 언어는 그 시기에 드러날 수 있는 온갖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그들은 반항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청소년 시기의 꿈을 이해하고 그들이 꿈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를 못하게 하고 학원을 보내요. 좋은 책을 읽고 싶은데 대학 입시 때문에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모들은 청소년들을 꼭 잡고 그들의 생활 계획을 세우고, 사회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생의 운명이 바뀐다고 위협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찌 청소년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어른들이 꼭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청소년들도 잘 모르고 습관처럼 내뱉는 비속어의 사용은 자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국어문화원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비속어 금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언어의 사례로 저는 누리꾼 언어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댓글에 욕설로 도배를 하는 누리꾼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점에 대해 이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문화원에서 욕설을 쓴 댓글에 대해 ‘말을 곱게 하자’는 댓글을 다는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면 더 이상 악성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언어를 바르게 쓰는 일은 국민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무엇이 개개인의 언어 사용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공공언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교 이후 국어 바로 쓰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언어는 우리 사회의 모범 언어로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태경**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사업도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하셨는데요. 공무원, 청소년,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우리말 교육에 두루 힘쓰고 계십니다. 언어 교육과 언어 개선을 소통의 방안으로 의식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어학자로서 국어보다 더 광범위한 ‘소통’이란 담론에 이토록 힘을 쏟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미형** 국어로 소통을 잘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만나며, 특히 그 점을 확인하곤 합니다.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이주민 여성 대상 교육을 실시한 지 십여 년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소통이 안 되어 겪는 가정불화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국어 실력이 늘면서 가정불화도 줄고 자신감 있게 가정생활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또 청소년에게는 나쁜 말은 쓰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몽하기보다 국어 생활을 활발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 난국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들에게 ‘하루 한 가지씩 친구에게 질문하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를 툭 치고 지나가는 친구에게 예전 같으면 학생들이 즉각 비속어나 거친 행동으로 반응했을 텐데, “○○야, 나 왜 쳤어?” 하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 모르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가라앉으며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비속어를 쓰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원활한 소통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김태경** 여러 사람이 접하게 되는 방송에서도 언어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형** 네. 방송 언어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방송 언어는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생각을 확장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좋은 대화를 하면 그 영향력이 바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통로를 막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방송 언어는 표명이 되면 대중들이 쉽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들어 보면, ‘해운대 닭 뼈’ 사건인데요. 여름철에 해운대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닭튀김을 배달시켜 먹고 닭 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서 모래사장에 뼈죽뼈죽 박힌 닭 뼈에 사람이 다치는 사건을 보도했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초점은 통닭집 배달원이 기자의 눈을 피해 배달하는 현장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잘못된 사람은 분명 닭 뼈를 모래에 버린 시민들인데 애꿎게도 배달원과 통닭집이 문제인 양 몰아간 거죠. 저는 그때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보도를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됐었어요. 피서를 즐기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잘못이라는 건지, 참 비논리적인 내용을 보도 하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국어학자로서 국어보다 더 광범위한 ‘소통’이란 담론에 힘을 쏟는 이유는 바르게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대로 된 인권 존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칠지 않은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마음을 열고 자신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경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형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국어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요. 언중들이 국어 능력이 곧 사고 능력이라는 사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뭘 더 알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 능력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국가가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 얼마만큼 주목하며 노력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쉽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어 정책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와 교육은 저희 학회를 비롯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등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공공언어를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태경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네, 고맙습니다.

## 문학, 밥상을 그린다

우신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문학에서 밥상은 무엇인가

문학 속엔 숯한 밥상들이 등장한다. 어머니와 설령탕 투가리를 부딪다 눈물을 짜고 마는 아들의 밥상도 있고(함민복, <눈물은 왜 짠가>), 순대국밥을 먹으려 입을 찢 별리는 노인의 밥상(황지우, <거룩한 식사>)도 있다. 제아무리 우아한 사람도 밥상을 마주할 때는 입속을 보여야 하고, 힘껏 국숫발을 끊어야 하며, 깎두기 국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 시인은 말했다. “문득 네가/악착같이 김치를 씹어 먹고 있는 걸 보면/깨달을 때가 있다/식은 떡과 시든 계획과/”(황인숙, <악착같이> 중)

시를 통해 남의 밥상을 둘러보는 일은, 먹고사는 행위의 어찌할 수 없음 속에서 삶의 거룩함을 되씹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어지간한 일을 하루 세 번씩 평생 이어 가라면 넉더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밥상을 마주하는 일만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먹어 이어 가야 하는 삶의 질김에 참담해 하면서도 그러한 먹음의 반복적 제의 속에서 살아갈 온기를 얻는다. 그래서 ‘밥숟가락 들 힘’은 ‘살아갈 힘’에 대한 강력한 제유법이다.

한편 산문 문학에서 그려지는 밥상들은 좀 더 내밀한 사회 문화적 냄새를 풍긴다. 홍보가 밥 먹는 장면을 한번 보자.

무지한 저 홍보는 밥 먹기에 윤기(倫紀) 있어 자식 몇 놈이 뒤통에도 살릴 생각은 아예 없고, 그 뜨거운 밥이로되 두 손으로 서로 쥐어, 세죽(細竹) 방울 놀리는 양 크나큰 밥 덩이가 손에서 떨어지면 목구멍을 바로 넘어 턱도 별로 안 놀리고 어깨춤, 눈 번득여 거의 한 말을 처치한 연후에 왼편 팔 땅에 짚고 두 다리 쪽 뺨치고 오른편 손목으로 뺨가죽을 문지르며...<sup>1)</sup>

밥은 착하기 그지없는 홍보조차도 윤기, 그러니까 윤리와 기강(紀綱)을 버리게 하는 물건이다. 자식이 옆에서 죽어 나가도 밥을 쥐 손은 쉬지 않는다. 저 대목 아래에는 “한 말을 처치한 연후에”나 채워질 듯한, 백성들의 배고픔이 흐르고 있다.

현대 산문 문학 속 밥상들의 목록 역시 유장하다. 저 유명한 “왜 먹질 못하니?” 하는 김 침지의 설렁탕(현진진, <운수 좋은 날>)이 있고, “좁고 깨끗지 못할수록” 더 유년의 맛을 풍기는 중국집 자장면(정진권, <자장면>)도 있다. 혹은 1963년 등장한 이래 한국인의 입맛과 사고방식을 지배해 온 라면 맛(이문열, <변경>)<sup>2)</sup>도 있으며, 다시 2000년대에 라면을 끓이며 산업화 시대의 질감을 복기하는 행위(김훈, <라면을 끓이며>)도 있다.

삶의 심층 구조와 서사적 로망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영영 불가능해 보인다. 이 부박한 삶의 영양소로서 라면은 몸속으로 들어온다. 시간의 작용이나 기다림, 환상, 스밈, 우리나라처럼 삶에 깊이를 가져오는 기능은 음식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다.<sup>3)</sup>

위의 글로 인해 이제 라면은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이라는 1차 지시와 함께 ‘부박한 현대인의 표층적 삶’이라는

1) 강한영(1987), <홍보가 신재효본>,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보성문화사.

2) “노랗고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면발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깨어 넣은 생계란이 또 예사 아닌 영양과 품위를 보증하였다.” [이문열(1998), <<변경>> 7권, 문학과지성사, 177쪽.]

3) 김훈(2015),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3쪽.

2차 지시를 품게 된다. 이처럼 혀의 감각과 육체의 유지, 삶의 두께 모두 밥상을 통해 논할 수 있으니, 밥상은 그야말로 문학의 근본 장소(topos)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포스터(E. M. Forster)는 소설 속 인간의 삶을 출생, 밥, 잠, 사랑, 죽음으로 요약한 바 있다. 삶의 다섯 가지 국면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래서 소설의 근본 주제로 되새김될 만큼 밥은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다. 밥을 먹고 버는 일은 현실이든 허구이든 삶이라는 서사의 기전(機轉)이다. 밥상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배와 마음을 함께 울린다. 나아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던, 혹은 마주 앉지 못하는 누군가를 그림게 만든다.

이 문제적 장소를 현대 소설들이 어떻게 그려 내고 있는가. 그 그림의 언어를 짚어 보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대 소설 세 편 속에서 어떤 밥상이 어떤 언어로 그려져 있는지 둘러보려 한다. 이 세 편의 소설 속에는 어지간히 다른 형태의 세 밥상이 등장한다. 밥상에 대한, 그리고 밥상에서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한 서술이 서사 전체에 꽤나 결정적으로 기능한다. 1930년대 이상이 그려 낸 ‘혼밥’ 밥상에서 1970년대 조세희가 그려낸 난쟁이가족의 거친 밥상으로, 다시 2010년 윤대녕이 그려낸 유사 가족의 푸진 밥상으로 이동해 보자.

## 2. ‘모이’와 ‘아달린’의 밥상

이상의 1936년 작 <날개>는 2000년대를 휩쓰는 ‘혼밥’ 열풍을 선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날개> 속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커피를 마신다. 그가 꽃처럼 고운 아내와 사는 방은 장지를 중간에 두고 둘로 나뉘어 있다. 어색하게 나뉜 방은 두 사람이 맺는 기괴한 관계의 공간 상징이다. 이미 작중 인물 스스로 부부의 관계를 ‘절름발이’로 규정한 바 있거

니와 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관계의 성격은 '나의 밥상에서도 드러난다. 뜻밖에 아내는 꼬박꼬박 '나의 끼니를 챙겨 준다. 그것도 손수 지어, 손수 날라다 준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다. 나는 늘 윗방에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영성하였다.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넉넉넉하게 받아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더러 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여지없이 창백해 가면서 말라 들어갔다. 나날이 눈에 보이듯이 기운이 줄어들었다. 영양 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이 뼈가 불쑥불쑥 내밀었다.<sup>4)</sup>

아내는 절대 자기 방으로 '나를 불러 같이 식사하지는 않는다. 이 규칙은 강고하여 예외를 두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릴없이 '나는 윗방에서 혼자 먹고 자는데, 반찬의 영성함이 '혼밥'의 서글픔을 더한다. 그 섭섭함을 '나는 자기도 모르게 발설하고 만다. '모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한 그릇 밥이 식사라 불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 가령 그 식사에 들어간 시간이나 마음, 식사 중이나 후에 느끼는 쾌감 등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추지 못한 채 다만 생존의 유지를 위해 섭취될 때 그것은 모이가 된다. 그는 자신이 사육당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육을 꾸준히 당하고 있음에도 몸은 말라만 가고 뼈가 돌출되어 잠을 못 잘 지경이다.

내 방에는 다 식어 빠진 내 끼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다. 아내는 내 모이를 여기다 주고 나간 것이다. 나는 우선 배가 고팠다. 한 숟갈을 입에 떠 넣었을 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냉회와 같이 써늘하였다. 나는 숟갈을 놓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룻밤을 비워 버린 내 이부자리는 여전히 반갑게 나를 맞아 준다. 나는 내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번에는 참 늘어지게 한잠 잤다. 잘.<sup>5)</sup>

4) 이상(2012), <날개>, 《이상 소설 전집》, 민음사, 93~94쪽.

‘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빈약한 밥상이나마 먹어 보려 시도한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밥은 따뜻할 때만 제대로 된 끼니로 승인된다. 심정적으로 그렇다. 싸늘한 밥의 촉감에 오만 정이 떨어진 ‘나’는 제 체온으로 데워 둔 이부자리로 기어 들어간다. 이처럼 ‘나’의 ‘혼밥’은 차고 가난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흥미로운 것은 취식 행위에서 아내가 등장하는 장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 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아내 손이 이마에 선뜩한 것을 보면 신열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 하자니까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네 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넌름 받아먹었다. 짹짹한 것이 짐작 같아서야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 버렸다.<sup>6)</sup>

아내가 나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머리를 짚어 주고 ‘따뜻한 물’에 약 네 알을 챙겨 주는 아내의 모습에는 전례 없는 살뜰함이 깃들여 있다. 심지어 아내는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약을 먹고 ‘나’는 잠이 든다. 이렇게 한 달이나 그 약으로 몸을 보하던 그가 우연히 아내의 화장대에서 아달린 갑을 발견한다. 결국 그는 양지바른 곳으로 가 아스피린과 아달린, 기만과 최면의 세계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최면의 세계를 벗어나 날기로 결심한 순간 영육의 각성이 찾아온다. 그러니 그가 양상한 ‘혼밥’을 버리고 탈주한 것은, 곧 박제된 삶으로부터 탈주한 것과 다름없다.

5) 이상, 앞의 책, 102쪽.

6) 이상, 앞의 책, 108~109쪽.

### 3.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의 밥상

이상의 <날개>로부터 40여 년 후 현대 소설은 어떤 밥상을, 어떻게 그려냈을까. 1970년대 문학 속 밥상 중 가장 유명한 밥상은 아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그것이라. 영수가 철거 계고장을 가지고 왔을 때 마침 그의 어머니는 식사 중이었다. 그녀는 식사를 멈추고 아들이 읽어주는 계고장의 내용을 듣는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사이에, 영수의 눈길은 어머니의 밥상을 스치며 스냅 샷처럼 찍는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sup>7)</sup>

거친 밥과 염분으로 꾸러진 이 밥상은 난쟁이 가족만의 것은 아니다. 뒷집 명희는 “우리 집 밥은 먹기 싫다.”고 말한다. 명희는 영수의 손가락을 짚으며 먹고 싶은 음식의 목록을 읊는다. “사이다, 포도, 라면, 빵, 사과, 계란, 고기, 쌀밥, 김.” 그녀는 자라 때로는 다방 종업원이, 때로는 고속버스 안내양이 되었고 마침내 십구만 원이 든 통장을 남기고 자살 예방 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받은 기침

7) 조세희(197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30쪽.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sup>8)</sup>

난장이네 가족의 집이 철거되기 시작할 때도 역시 밥상이 등장한다. 밥상 위에 웬일로 쇠고기가 올라 있다. 지섭이 사 온 쇠고기이다. 담이 무너지고 먼지가 나지만 난쟁이 가족은 소리 없이 식사를 이어 간다. 서로의 밥 위에 쇠고기를 올려 주고, 천천히 승냥까지 마신다. 그 엄숙한 식사를, 쇠망치를 든 사람들조차 방해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슬픈 밥상이 대물림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은 이 밥상도 대물림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중략)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sup>9)</sup>

영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다가 자신의 조상들이 몸으로 노역을 치르는 생으로 일관했음을 알게 된다. 신산한 삶은 유산처럼 세습되었고, 대를 이어 그들의 밥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의 밥상은 신역의 대가로 얻어 낸 최소한의 밥상이자 ‘별거벗은 삶이나마 유지하기 위한 밥상

8) 조세희, 앞의 책, 122~123쪽.

9) 조세희, 앞의 책, 74쪽.

이었다. 그러니 그 밥상의 신성함은 누구도 쉽게 침범하기 어려울 터, 기어  
이 그 밥상마저 박살 내리는 시대의 잔혹함에 독자는 전율할 수밖에 없다.

#### 4. 함께 끓여 먹는 치유의 약상/밥상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에서 다시 시간의 축을 40여 년 뒤로  
 옮겨 보자. 2016년 상재된 윤대녕의 장편 소설 《피에로들의 집》에는  
 술한 식사 장면이 등장한다. 주인공 김명우가 낙오자들의 대모와 같은 마  
 마를 만나 칼국수를 얻어먹다가, 아예 마마의 집에 들어앉아 같은 낙오자  
 들과 밥을 끓여 먹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수필  
 집 《칼과 입술》<sup>10)</sup>에서 미각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보여 준 작가이니  
 만큼 예상된 바이지만, 그래도 이 소설 속 밥상은 전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푸지고 풍성하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마다 집주인인 마마가 주관하는 저녁 모임이라고 했다.  
 마마와 김현주가 사는 이층은 독립된 한 가구로 돼 있었고 두 개의 방과  
 넓은 거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거실 한가운데 열 명쯤 앉을 수 있는  
 다용도의 긴 목재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음식은 마마가 늘 손수 준비한다  
 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물메기탕과 마른메기찜, 복수육, 생대구탕, 마른홍  
 합꼬치, 참돔회 등 해산물 위주의 음식들이 무슨 잔칫날처럼 푸짐하고 정  
갈하게 차려져 있었다.<sup>11)</sup>

축제나 잔칫상을 방불케 하는 밥상인데, 이 밥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마마 휘하 ‘피에로’들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식사는 의사 없는

10) 윤대녕(2016), 《칼과 입술: 우리를 살게 하는 맛의 기억 사전》, 문학동네.

11) 윤대녕(2016), 《피에로들의 집》, 문학동네, 54쪽.

상담이자, 약물 없는 치료에 가깝다. 물론 파스한 음식을 먹으며 속악한 현실에 다친 속을 달랜다는 설정이 낯선 것은 아니다. 이미 박정애가 <불을 찾아서>에서 훌륭하게 보여준 바 있듯이 소설 속 음식은 영혼을 위무하고, 그것을 나누는자들 간의 연대를 빚어 올린다.

부엌을 나와 퇴에 올라서서는 안방 지게문을 열었다. 발바닥이 뜨끈뜨끈했다. 노인이 부엌과 연결된 쪽문을 통해 소반을 들이밀어 주었다. 쌀밥 두 그릇과 시래기국, 배추김치와 무말랭이, 새우젓이 놓여 있었다. 소반을 받아 놓고 앉아 있으니 영딩이도 뜨끈뜨끈했다.

“맛이 있을라? 촌사람들이사 겨울 되만 안 질리고 묵는 기 시래기국이 지마는 도시 젊은이 입맛에 맞을 동?”

“맛있는데요.”

빈말이 아니라 시래기국이 제법 구수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에다 쌀밥을 말아 먹으니 다른 찬이 필요 없었다. 그야말로 삼대 구원 만에 먹어보는 음식인데도 늘 먹는 국처럼 입에 익었다.<sup>12)</sup>

단편 <불을 찾아서>의 주인공은 갓은 굴욕과 불안정성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삶이 주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나는 출근길에 충동적으로 안동행 버스를 타고 한 할머니의 민박에 묵게 된다. 할머니는 군불을 때고 시래기국을 끓여 객을 대접한다. 이 군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제 안의 추위를 녹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시래기국이 올려진 이 밥상이 ‘삼대 구원 만에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즉 개인적인 치유가 행해진 밥상이었다면, 《피에로들의 집》 속 그것은 조금 다르다. 이미 작가가 밝힌 대로 2000년대 한국의 아픈 인간(Homo patiens), 즉 도시 난민<sup>13)</sup>들을 위해 쓰인 소설인 만큼 소설 속 밥상은 집단적 치유의 적소(適所)로 그려

12) 박정애, 한국현대소설학회 편(2005), <불을 찾아서>, 《2005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216쪽.

13) 자본주의의 ‘육식성’을 견디기 어려운 이 식물-인간들이 결국 윤대녕이 의미 있게 호명하고 있는 도시 난민들인데, 윤대녕은 ‘작가의 말’을 통해 도시 난민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토로한 바 있다.

진다. 1990년대 윤대녕표 남성들이 집을 떠나 탐색하던 근원적 장소가 외려 집에서 찾아진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소설 속에서 인물들을 집(아몬드나무 하우스)으로 불러들여 유사 가족을 형성시키는 인물이 바로 마마다.<sup>14)</sup> 어미의 돌봄(caring) 기능과 대비마마의 지엄함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이 ‘마마’라는 인물의 실상인데 그녀는 약해 빠진 도시의 낙오자들을 쉴 새 없이 꾸짖고 먹이고 재운다.

“끼니때마다 동냥아치처럼 싸구려 식당 전전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밥 좀 끓여 먹지 그래. 그게 사는 일의 시작이고 삶을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야. 하나 더, 육고기는 피를 탁하게 하니 입에 대지 말고!”<sup>15)</sup>

‘아몬드나무 하우스’ 입주자들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저녁 제의에 가까운 식사 시간을 나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밥상을 준비하는 과정과 음식에 대한 설명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인물들은 때가 되면 각자의 방에서 나와 2층에 있는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아야 한다. 이 공동 식사 모임은 마마가 주관하는데, 참가 여부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에 가깝다. 때론 밥상머리에서 말다툼과 감정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역시 식사 과정(곧 치유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마마와 미묘한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도 김명우는 마마로 인해 마음의 빗장을 풀어 가고, 폐기물 쓰레기를 자처하던 인물에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갱신해 간다. 다른 인물들 역시 제 몫의 고통과 일상에 찌들다가도 “저녁이 되면 배고픈 짐승들처럼 속속 기어들어”<sup>16)</sup>와 밥을 먹는다. 그러나 마마는 도시 난민들의 대모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녀가 기실 불임의 몸을 가진 실향민임은 의미심장하다. 세상에서 물러나 ‘아몬드나무

14) ‘마마’는 ‘대왕대비마마’를 줄여 부른 말이지만 그 기원은 ‘엄마’에 가깝다(윤대녕, 앞의 책, 25쪽).

15) 윤대녕, 앞의 책, 60쪽.

16) 윤대녕, 앞의 책, 200쪽.

하우스'에 은신하던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그녀의 법적 가족이 아닌 생판 타인, 즉 김명우다. 생물학적 가족보다 함께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유사 가족이 더 마스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다. 세상과의 불화로 감정이 마비되었던 인물들이 “실제적인 감각으로 순수한 타인에 대한 감정을 느끼”<sup>17)</sup>게 되고 타인에 대한 돌봄과 환대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마마가 이 집에서 베푼 것은 다만 잠자리와 밥상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 교육’이다. 윤대녕이 동시대인들에게 제안하는 가족상은 핏줄이나 호적이 아니라 상처와 밥으로 맺어진 감성 공동체인 것이다.

최초의 ‘집’이나 ‘밥상’이 훼손되면 인간은 그것을 은유적 방식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sup>18)</sup> 이 작업에 실패하면 적소성의 결여감<sup>19)</sup>을 삶의 상수(常數)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윤대녕 소설 속 인물들이 시원적(始源的) 공간을 찾아 방랑한 것이다. 그런데 《피에로들의 집》은 혼자만의 방랑을 종료하고, 타인과의 밥상에서 그 적소성을 건축해 간다는 한층 성숙해진 구성을 통해 쓸쓸한 ‘혼밥’의 시대에 묵직한 ‘문학적 제안’을 던진다. 이 작품은 모두가 제 뿌리를 잘린 유동성의 시대<sup>20)</sup>에는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들끼리 모여 끓여 먹는 밥상에서 공동의 뿌리를 찾아야 함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집이 아닌 ‘방’에 사는, 심정적 도시 난민<sup>21)</sup>을 자처하는 2000년대 한국의 상처 입은 청년들이 도모할 수 있는 ‘밥상’과 ‘밥상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 소설이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17) 윤대녕, 앞의 책, 109쪽.

1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2011),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179쪽.

19) 김동식(1995), 〈존재를 위하여: 한강과 윤대녕〉, 《문학동네》 2-4.

20)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2009), 《액체근대》, 강.

21) 구승우(2016), 〈도시 속의 청년 ‘난민’: 청년들의 ‘방’ 거주 경험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다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크고 작은 차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큰길을 벗어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주인인 골목길을 만나게 된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그리고 골목길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살림집들이 몰려 있는 골목에는 사람 냄새와 사람 소리가 가득 차 있지만 꼭 그런 골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란하게 돌아가는 기계의 소리와 그 기계가 뿜어내는 기름 냄새가 넘쳐나는 골목도 있고, 드르륵 득득 소리에 맞춰 실밥이 날리는 골목도 있다. 수많은 인쇄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충무로, 그리고 각종 재봉틀 판매상과 봉제업체가 몰려 있는 부산의 범일동이 그곳이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그곳에서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 1. 충무로의 ‘도무송 씨’

지도 위에 흔하디흔한 지명으로만 남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랜 전통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이 있다. 충무로가 그렇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서 지은 동네 이름이지만 ‘충무로’란 이름을 듣는

많은 이들이 영화를 떠올린다. 60~70년대에 영화 제작사들과 극장이 충무로에 모여들게 되면서 충무로는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90년대 이후 영화 관련자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고 이곳의 극장들도 복합 상영관(멀티플렉스 극장)들에 밀리면서 영화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로=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짧은 기간 동안 반짝했던 영화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충무로를 대표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쇄가 그것이다. 충무로 뒤편 인현동 골목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는 인쇄소와 각종 인쇄 관련 업체들이 충무로의 진짜 주인이다. 큰 업체들은 파주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많이 들 나갔지만 골목 가득 넘쳐 나는 인쇄기 소리와 잉크 냄새, 그리고 각종 종이들은 여전히 여전하다.

어쩌다 이 골목에 들어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오래된 냄새가 좋아 걸음을 들여놓고 촌사람 서울 구경하듯 여기저기 눈을 돌린다. 그러나 역시 눈이 가는 것은 간판, 벽, 유리 등을 채우고 있는 글자들이다. 낯선 용어들이 수없이 흘러가는데 그중에 유독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름이 눈에 띈다. ‘도무송’은 틀림없이 사람 이름이다. 수호지에도 나오고, 영화배우나 가수의 이름으로도 종종 듣는 ‘무송’이다. 그리 흔하지 않은 도씨 성을 가진 이지만.

그런데 ‘도무송’이 이름일 리 없다. 문패가 아닌 간판과 벽 글씨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게 써 놓은 것이 이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너 집 건너 발견되는 이름이니 동명이인이 그리 많을 수는 없다. 도무송이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눈에 띄는 가게에 들어가 다짜고짜 묻는다.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며 위아래로 훑는 시선 후의 통명스러운 손짓. 그래도 가끔 있는 일인 듯 커다란 기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 손은 종이 상자를 모양에 맞게 쿵쿵 찍어서 토해 내는 기계를 가리킬 뿐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실례다. 기계의 모습을 눈에 넣고 그 다음에 있는 ‘도무송 씨’의 집을 기웃거리려 본다. 그렇게 몇 집을 순례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다. 기계의 이마에 씌어 있는 ‘Thomson’이란 회사 이름이다. 어떤 회사인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 종이와 같은 평평한 재료를 눌러서 모양대로 따 내는 ‘유압 프레스’를 만드는 회사다.

이제부터는 국어 선생의 몫이다. 이 회사의 기계가 이런 작업을 하는 기계의 대명사가 되어 ‘버버리(Burberry)’나 ‘포스트잇(Post-it)’처럼 ‘툼슨(Thomson)’이 이 기계 자체를 뜻하게 된다. 이 기계가 일본에 도입되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도무손(トムソン)’으로 부른다. 일본에서 이 기계를 보고 기술을 배운 우리 기술자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도무송’으로 바꿔 받아들인다. 포르투갈 말인 ‘팡(Pão)’이 일본의 ‘판(パン)’을 거쳐 우리말의 ‘빵’으로 자리 잡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문이 풀리고 나니 두 가지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하나는 가슴 깊이 애국심이 넘치는 국어 순화론자의 목소리다. ‘도무송’ 또한 ‘노가다꾼들이 쓰는 ‘공구리’ 수준의 일본 말 잔재이다. 당연히 걸러 내야 하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세련미 넘치는 영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Thomson’을 ‘탐슨’이 아닌 ‘툼슨’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도무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구린’ 발음이다. 어떤 시각으로 보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말이다.

비난이 그저 한바탕 욕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툼슨 프레스’ 혹은 ‘탐슨 프레스’가 본래의 발음에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우리말 이라기 보다는 영어라는 문제점이 있다. ‘Thomson’이란 이름은 바꿀 수 없으니 ‘press’만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압축 기계, 압착기, 성형기, 압착 성형기’ 등 무엇을 동원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시한들 오랜 시간 동안 기름밥을 먹은 ‘인쇄쟁이’들이 받아들여서 쓸 것 같지가 않다. 이들은 그냥 ‘도무송’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겠지만 ‘도무송’은 전문 용어이자 은어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알 필요가 없으니 인쇄업 종사자들만이 이 용어를 쓴다. 전문가들답게 ‘톰슨 프레스 가공’이라고 쓸 수도 있겠으나 ‘도무송’이라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름으로 쓰는 것은 이들만의 특권이다. 인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 ‘도무송’이 튀어나올 일이 없으니 이들이 딱히 남에게 피해를 줄 일도 없다. 어차피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인쇄 골목에서만 쓰이는 말이니 우리말을 크게 오염시킬 일도 없다.

그런데 세상의 눈은 곱지 않다. 영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와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영어를 본래대로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식민지 경험을 알려 준 일본을 거쳐서 받아들인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나라 말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없다면 굳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무송 씨’는 이래저래 시뻘거리일 수밖에 없다.

## 2. 범일동의 ‘나나인치 씨’

충청도 아산만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자방틀’은 동네 사람들의 공동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졸라 곳간의 쌀 여러 가마니를 내어 주고 난 후 들인 것이니 주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혼사나 상사 때 함께 썼다. 기름한 몸체에 쓰여 있는 상표 ‘SINGER’를 읽을 줄도 몰랐고, 가끔씩 어른들이 ‘미싱’이라고 하면 그건 그저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줄만 알았다. 나이가 든 후 서울 거리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는 재봉틀 판매점과 봉제업체의 간판과 창문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보고도 그저 지나치기만 했을 뿐이다.

친지의 결혼식 때문에 오랜만에 하게 된 부산행, 범일동 골목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쌓아 두었던 의문을 풀지 않고는 못 견딜 상황이 되었다. ‘미

상'을 비롯해 '오바로꾸', '나나이치', '큐큐' 등 정체불명의 단어가 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재봉틀을 쓸 일도, 이 분야의 일에 종사할 일도 없지만 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본업이다 보니 그래도 뜻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재봉틀'의 다른 말인 '미싱'은 다소 엉뚱하다. 재봉틀을 영어로는 '소잉머신(sew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일본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변화를 겪는다. 바느질을 뜻하는 '소잉'은 떼어 버리고, 기계를 뜻하는 '머신'을 '미싱(ミシン)'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세상에 널린 것이 기계인데 '기계'가 '재봉틀'을 가리키는 말로 탈바꿈된 뒤 우리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돼 본뜻을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봉틀 이름도 그렇지만 재봉 관련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없는 것투성이다. '오바로꾸'는 천의 올이 풀리지 않게 하는 바느질을 뜻하는 '오버로크(overlock)'에서 왔다는 것은 그나마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랍빠'나 '삼봉'은 이 분야에 들어가 일을 직접 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각종 도구를 사용해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다 알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는 비단 재봉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널려 있다.

그래도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봉제업체가 몰려 있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수없이 보게 되는 '나나이치'나 '큐큐'니 하는 표기가 그것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나나이치'는 숫자 71을 일본식으로 읽은 '나나이치(なないち)'이고, '큐큐' 역시 숫자 99를 일본식으로 읽은 '큐큐(きゅうきゅう)'에서 온 것이다. 둘 다 단춧구멍을 가공하는 특수한 재봉틀인데 재봉틀 제조 전문 회사인 미국의 싱거(Singer)사에서 만든 재봉틀의 모델 번호가 각각 71과 99인 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렇듯 웬만해서는 알기 어려운 사연을 가진 말들이 심지어 'QQ'와 '나

나인치'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QQ'는 '큐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일 테고, '인치'는 '이치'를 길이의 단위인 '인치'로 착각한 결과일 것이다. 미제가 일제를 거쳐 토착화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바뀐 것이다. 혹자는 말 그대로 '무(無)근본'에 '무식'의 소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재봉쟁이'들에게 애국심 교육과 함께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비난에 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재봉틀의 원산지가 미국이고, 영어보다는 일본어의 잔재를 걸러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말 순화 운동이니 아무래도 영어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싱어 나인티나인 버튼 홀 머신 가공'은 어떤가? 아니면 '싱어 71번 재봉틀 단춧구멍 가공'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국어 선생들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겠지만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촌각을 다투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라고 하기도 미안하다.

애초에 이 말을 들여온 이가 국어 선생과 친했다면 '99번 단춧구멍 가공'과 '71번 단춧구멍 가공'으로 바뀌서 들여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랬더라도 결국은 '99번'과 '71번'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쟁이'들 사이에서 통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 '쟁이'들에게 국어 선생이 되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 '99번'과 '71번'은 더더욱 암호 같으니 차라리 '큐큐'와 '나인치'가 소통을 하는 데는 나아 보이기도 한다.

### 3. 현대판 이두와 그들만의 세상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아름다운 말글 생활을 위해 '순화' 혹은 '바른말 쓰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이 말에서는 '유권유언 무권무언'

이 강요된 면이 있다.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주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강요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못 배운 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불리는 공사 현장, 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인쇄소와 실밥이 사방으로 날리는 봉제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활동 영역이다. 이 분야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각종 도구와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 사용법은 그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이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근대 문물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분야의 용어가 온통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의 화살이 이들을 향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정작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학회에 가 보면 모든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뿐이다. 심지어는 아예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문진은 우리말로 하면서 진료 기록지에는 알 수 없는 말로 휘갈겨 쓴다. 의학 드라마에서 의료인들은 영어로 된 용어로 소통하고 자막은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법조인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써 오던 법률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이들의 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들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성이 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다.

신라의 설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두(吏讀)는 놀랍게도 조선 말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두는 한자로 쓰기는 하지만 온전한 한문은 아니다. 어순도 우리말식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한문에는 쓰이지 않는 조사나 어미도 넣는 엉터리 한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콩글리시’와 같이 영어는 영어인데 우리끼리만 잘 통하는 영어와 비슷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들과 장사꾼들이 대대로 물려 쓰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이 유지된 것이다.

오늘날 여러 분야의 ‘쟁이’들이 쓰는 말투를 이두에 빗대기도 한다. 전문 용어들은 모두 다른 나라말을 쓰면서 조사와 어미만 우리말로 하니 그리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도무송’과 재봉 일을 하는 이들의 ‘나나인치’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현대판 이두라 할 수 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위 ‘보그체’는 극단적인 이두의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의사와 과학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학문을 하는 이들의 전문 용어는 죄다 외국어를 써 이두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판 이두가 그들만의 세상에서만 사용된다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기는 하지만 광고를 보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맞고 그름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세상에서 정확하고도 빠른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말들을 쓸 일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 4. 소금의 참된 맛

‘순수’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우리말의 이러한 상황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순수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한국어는 방언의 집합체이지 규범집에 있는 표준어가 아니다. 각 지역, 온 세대의 말들이 뒤섞여 우리말을 이루는 것이지 백옥같이 흰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 말에서 흘러 들어온 말도,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들도 우리말의 일부를 이룬다. 이 말들이 그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밖으로 흘러 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말의 일부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

소금의 맛은 짠맛으로 대표되지만 ‘맛있는 소금’은 마냥 짜기만 한 소금이 아니다.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에는 각종 잡성분이 섞여 있어 맛이 더해진다. 심지어 봄날의 송홧가루가 염전에 내려앉아 만들어진 송화염을 최고로 치기도 한다. 충무로에서 만난 ‘도무송 씨’나 범일동에서 만난 ‘나나인치 씨’가 정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다. 설 새 없이 종이와 천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 충무로의 주인들이 후대에게 가게를 물려줄 때가 되면 ‘도무송 씨’ 대신 ‘툼슨 씨’가 간판을 내걸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범일동에는 ‘Singer No. 71’과 ‘Singer No. 99’가 내걸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싫으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금에는 다른 맛도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최대한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강미영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관

### 1. 서론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진흥·보존하는 수단이다. 각 나라는 자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언어 정책’이다. 그래서 한 국가의 언어 정책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언어 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언어가 사회 통합과 문화 창달의 밑거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인지는 언어 정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언어 정책은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다양성 속에서 한국어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안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표준어 보급 정책에서 나아가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 동시성과 탈국경화에 따라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진 외래어와 외국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터넷과 누리 소통망의 생활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은어의 범람 현상으로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 이 글은 2016~2018년 장기 국외 훈련의 결과 보고서 “다문화·다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정책 연구”(2018)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어 분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언어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의 평화적 교류를 활성화 함에서도 언어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이 바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이다(권재일 2015). 특히 공공언어에서 어려운 전문어를 남발하고 외국어를 남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문으로 언어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회 분열과 침체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남영신 2015). 한편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은 각급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제도화 되고 있는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영어 교육 과열은 미래 세대의 언어생활에서 한국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학마저도 영어 원어 수업을 교육 평가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 영어 지상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를 중심으로 국어사전 구축, 우리말 다듬기, 공공용어 관리 등 한국어 진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의 결과가 국민 언어생활의 저변에 잘 밀착하도록 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자국어 보호 정책의 역사와 전통이 매우 오랜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프랑스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강한 법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1958. 10. 4.) 개정안(1992. 6. 25.) 제2조 제1항에 “프랑스어는 프랑스공화국의 언어이다.”를 추가함으로써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사용법’(Loi n°94-665), 일명 ‘투봉법’을 제정하여 프랑스어 사용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투봉법’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이 프랑스어 사용 의무에 대한 8가지의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 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재화, 상품, 서비스 및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명칭, 공급, 소개, 사용법, 보증 조건 또는 기간을 기술할 때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이다.
- ② **근로·노동 부문**에서 고용 계약, 내부 규정, 직원의 의무(예: 보건, 안전, 징계 문제 등)가 포함된 문서, 단체 노동 협약 및 회사 설립 내용이 포함된 문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취업, 구인 제의, 해고 전 면담, 단체 교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 포함된 문서 등에 서는 프랑스어 사용이 의무이다.
- ③ 공공 및 민영 운송 시설 관리자와 **운송** 관계자들은 프랑스 내에서 승객들에게 안전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할 때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sup>1)</sup>
- ④ 공공 및 민영 **교육 기관**에서 프랑스어로 된 교육과 시험, 선발 시험,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작성에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⑤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 미디어 서비스**에서 프랑스어 사용 및 프랑스어 번역은 의무이다. 다만 원어 버전 영화 또는 시청각 미디어, 외국어 교육 목적의 방송, 문화 관련 행사 중계방송 등은 제외한다
- ⑥ **모든 광고**(서면, 광고, 음성 영상 기술 광고)에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1) 장비운송주택부 내 운송 부문에 투봉법을 적용하는 행정 공문(1999. 9. 28.) 등

- ⑦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 프랑스에서 행사, 심포지엄, 학회 등 행사를 주관할 때 다음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모든 프랑스어권 참가자는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발표문서는 프랑스어 버전이 있어야 한다.
  - 참가자에게 배부하거나 행사 후 출판 문서는 최소 프랑스어 요약본을 포함해야 한다.
- ⑧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와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자국어 보호 정책만을 고수하기는 힘들어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13년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법(LOI n° 2013-660)’을 제정하여 교육법 L121-3조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대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정 조건이란 교육법 L121-3조 II에서 밝힌 대로 외국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할 때 외국인 초빙 교수의 강의나 국외 및 국제 교육 기관 간 협약에 따른 교육 및 다언어·다국적 과정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말한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외국어로 강의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

- ① 외국어를 사용한 교육 즉 프랑스어 사용의 예외가 적용된 과정은 필요불가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외국어 수업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외국어 사용은 안 되며 일부만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
- ③ 외국어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하며, 이를 통한 프랑스어 국외 보급을 촉진한다.

이 원칙들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프랑스어 능력도 함양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방송 매체 등을 통한 광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송 미디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관리하는 광고 전문 규제 기관(ARPP)이 공정한 광고 배포를 위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 기관은 광고 배포 전후에 광고 표현을 다음의 기준으로 점검함으로써 정확한 프랑스어 사용을 평가하고 있다.

#### 〈광고 표현 점검 기준〉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광고는 프랑스어 버전 설명을 동반해야 한다.
- 프랑스어 버전은 외국어 버전에서만 시청각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프랑스어-외국어 광고 버전 사이의 유사성이나 병렬 양식은 필요 없다.
- 외국어 광고 원본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세계화에 직면하여 프랑스에서는 각종 문화, 과학, 기술과 관련한 국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어로만 진행되는 행사가 많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행사는 프랑스어 요약본을 포함하게 하는 등 프랑스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이다. 프랑스 총리 행정 공문(13.

4. 25.)에서는 국민에게 동등한 지식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b>행정 공문(Circulaire NOR: PRMX1311783C)에서 발췌</b>
(생략) 공공 부문의 프랑스어 사용은 국민에게 동등한 정보와 지식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략)

특히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sup>2)</sup>를 거쳐 공보에 게재된 용어는 시행령(Décret n°96-602) 제11조에 따라 모든 공공 서비스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부문 종사자가 작성하는 계약서 등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프랑스 내에서 공공 기관이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할 때 번역 또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체할 프랑스어가 있음에도 외국어 표현을 사용함은 금지되어 있다. 끝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홍보 문서를 배포할 때에는 적어도 프랑스어 요약본을 포함해야 한다.

### 3. 프랑스 언어 정책 중심 기관

프랑스 언어 정책은 주로 문화소통부, 교육부, 외무부에서 소관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부처를 포함해 재정부, 노동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와 유럽 연합, 프랑스어권 국제기구와 프랑스 표준 협회, 공영 방송사 등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프랑스의 언어 정책 관련 사항을 조율하고 프랑스 정부의 연간 언어 정책 활동 보고서인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국회보고서”<sup>3)</sup> 작성을 담당하는 등 언어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은

2)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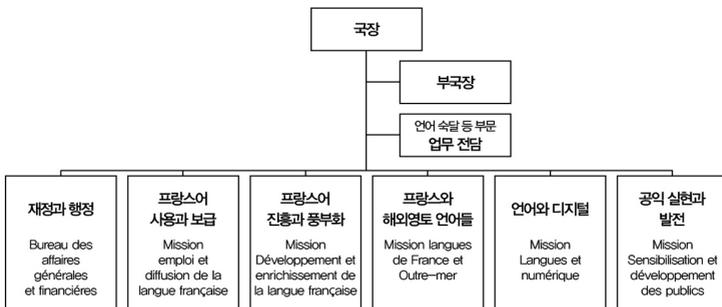
3) ‘투봉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9월 15일 이전에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문화소통부 소속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이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프랑스어 사용법인 ‘투법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프랑스어 풍부화 시행령(1996년 제정, 2015년 개정)의 시행과 언어 사용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와 함께 전문가 집단(이전의 전문용어 및 신어 위원회)과 프랑스 한림원의 전문용어 목록 개발을 총괄한다. 이러한 방향은 이 기관이 진정한 문화소통부의 소속 기관이 된 2009년의 ‘조직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문화소통부 행정 명령’(Arrêté du 17 novembre 2009, NOR: MCCB0922703A)에서 명문화된다.

이 기관 내 부서 조정 과정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조직을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언어와 디지털’ 부서의 신설과 더불어 부서 명칭 변경(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프랑스어 진흥과 풍부화)이 관찰된다. 현재의 프랑스어 진흥과 풍부화 부서명은 ‘2009년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문화소통부 행정 명령(Arrêté du 17 novembre 2009)’에 규정된 업무 중 ‘프랑스 풍부화’ 업무가 부서 명칭으로 구체화하면서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조직도(2018년 현재)



**표 1** 2010년과 2018년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조직도 비교  
(변경 부서 중심)

2010년 <sup>4)</sup>		2018년 현재
언어 능력과 교육		언어 숙달 부문 업무 전담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	⇒	프랑스어 진흥과 <b>풍부화</b> (‘15년~)
프랑스의 언어들		프랑스와 해외 영토 언어들
-		<b>언어와 디지털</b> (‘11년~)

#### 4. 민관 협동 프랑스어 사용 보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프랑스어 사용법’ 관리 업무와 관련 하여, 소비 유통 구조에서 프랑스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소비·사기·독점 문제 담당국(DGCCRF)과 프랑스 광고 관리 업무에서 프랑스어 관련 사항을 함께 다루는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ARPP)가 함께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을 점검 하면서 ‘투봉법’ 관련 사항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적발 시 경고 또는 소송과 같이 두 가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소송의 경우는 프랑스어 보호 협회가 맡아 진행한다.

프랑스어 보호 협회들은 ‘투봉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와 문화소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투봉법’ 조항 관련 침해 사항에 대해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상품,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상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2조) 침해

4) 2010년 조직도는 《새국어생활》 21권 4호 출장 보고 참고

- 공공 도로, 대중교통 수단, 공개된 장소의 공지 사항 등 정보상의 프랑스어 사용(제3조~제4조) 침해
- 프랑스에서 조직된 학회 등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6조) 침해
- 공공 기관이 프랑스에서 배포한 간행물, 잡지 및 통신문상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7조) 침해
- 구인 광고상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10조) 침해

**투봉법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2-14 (V)조) 신설”**

국무회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승인된 …… 프랑스어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하는 모든 협회들은 투봉법(loi n° 94-665)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조항의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 청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어 방위(DLF), 프랑스어의 미래(ALF), 프랑스어권 우호 연계 협회(AFAL), 프랑스어권 비즈니스 포럼의 프랑스 위원회(FFA) 등 협회 4개가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들은 프랑스어 사용 현황을 감시하고 홍보하는 기본 역할과 더불어 소송 제기 가능 자격 때문에 소비·사기·독점 문제 담당국,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 등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어 사용 점검 관리는 매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의 수시 점검 활동(16. 3. 1.~17. 4. 30.) 내용을 보면 총 15,705건 중 1,080건으로 전체 점검 수의 약 6.9%가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한 것이었다.

**표 2** 2016. 3. 1.~2017. 4. 30. 광고 수시 점검

유형	점검 횟수
텔레비전 광고	10,796
신문 광고	1,372
벽보 광고	931
인터넷 광고	1,059
라디오 광고	377
기타 매개체를 이용한 광고	1,170
총계	15,705
프랑스어 사용 관련 점검 건수	1,080

같은 기간에 진행된 텔레비전과 주문형 시청각 매체의 광고 21,665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점검은 점검 대상 중 19,776건이 통과하고, 1,888건이 다양한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수정 요청 대상이 되었다. 그중 ‘투봉법’ 조항과 관련한 수정 요청은 279건이었는데 번역 요청을 한 외국 용어는 대부분 영어였으며,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는 이러한 외국어 표현에 대해 프랑스어 번역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활동 외에도 오탈자와 문법 오류와 관련한 수정 요청도 하고 있다. 끝으로 이 위원회는 ‘상표’에 등록된 외국어 표현에 대한 번역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소비·사기·독점 문제 담당국의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한 점검 활동을 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에만 7,234건에 대해 개입했다. 이는 2015년 7,176건에 비해 조금은 증가한 것이다. 위법 적발은 2015년 전체 점검 건수 7,176건 중 956건으로 13.2%의 적발률을 보이는 가운데 2016년은 12.4%로 감소한다. 한편 소송 비율은 2015년에 위법 사례 중 8.2%가 소송으로 이어진 데 비해 2016년은 적발된 위법 사례 896건 중 11.8%에 해당하는 10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 외 가벼운 위법 사례

790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표 3>에서 보면 점검 중 위법 사례를 발견한다 하여도 후속 조치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경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검 중 위법 사례를 발견한다 하여도 후속 조치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경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3** 연도별 프랑스어 사용 점검 및 위법 사례 적발 건수 변화<sup>5)</sup>

연도	점검 횟수	위법 사례 수 (점검 대비 위법 적발률)	후속 조치		최종 결정 수
			경고 수	검찰 송치 수 (송치율)	
2006	10,923	804(7.4%)	412	131(31.8%)	59
2007	12,069	1,106(9.2%)	487	136(27.9%)	43
2008	11,248	1,146(10.2%)	503	113(22.5%)	31
2009	9,309	1,155(12.4%)	579	95(16.4%)	30
2010	11,483	1,648(14.4%)	806	141(17.5%)	31
2011	12,848	1,421(11.1%)	676	123(18.2%)	26
2012	8,423	1,183(14.0%)	1,076	107(9.9%)	29
2013	8,475	1,038(12.2%)	931	107(11.5%)	20
2014	7,000	988(14.1%)	904	84(9.3%)	27
2015	7,176	946(13.2%)	868	78(9.0%)	23
2016	7,234	896(12.4%)	790	106(13.4%)	24

한편 11년간의 점검 활동을 통틀어서 보면 검찰 송치율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20~30% 전후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0% 전후를 보인다. 그만큼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프랑스어 사용을 유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협회의 활동은 위법 적발 건수들에 대해 대부분은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편지 등

5)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2017)을 참고하여 보완

권고로 프랑스어 사용을 이끄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그 하나의 예로 콩코르드 광장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프랑스어 광고를 들 수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2017년 결산 보고서<sup>6)</sup>를 보면 삼성 ‘갤럭시 S8’의 광고를 예시로 들면서 “신기술도 프랑스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내에서도 스마트폰 등 신기술 제품이 프랑스에서 광고될 때 <그림 2> ‘갤럭시 노트8’ 광고처럼 영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표현될 수 있도록 민간 협회의 감시 활동이 활발하다. ‘갤럭시 S8’ 프랑스어 광고는 콩코르드 광장 벽면 광고 게시 초기에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이 프랑스어 보호 협회와의 협력으로 프랑스어 번역을 권유하고 삼성이 이를 수용하여 수정된 것이다.

**그림 2** 파리 콩코르드 광장의 삼성 광고판



‘삼성 갤럭시 노트8’ 영어 광고판  
(‘17. 10.)<sup>7)</sup>



‘삼성 갤럭시 S8’ 프랑스어 광고판  
(‘17. 11.)<sup>8)</sup>

6)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2017) 위 보고서

7) 그림 출처: <https://www.gettyimages.co.uk>

8) 그림 출처: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2017) 위 보고서

## 5.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므로 언어 사용자가 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려면 매년 생겨나는 수천의 새로운 실체 및 개념을 이해하고 지칭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시행령(Décret n°96-602) 제정에 따라 1996년 총리 직속으로 **전문용어와 신어 일반위원회**(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를 설치하고<sup>9)</sup> 각 부처 내에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소수 전문가 집단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과학 기술 관련 개념 및 대상을 지칭하는 프랑스어 용어를 생성하고 배포하며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이후 시행령(Décret n°96-602) 개정(Décret n°2015-341)에 따라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프랑스어 풍부화’란 용어는 법조문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1972년 프랑스어 풍부화에 관한 시행령(Décret n°72-19)의 제목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조직명으로써 자리 잡게 된 것을 통해 정부가 신어 정책을 추진할 때 통제를 통한 프랑스어 보호에서 나아가 풍부화를 통한 용어 추천으로 자발적인 프랑스어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5.1.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의 구성과 운영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는 국민의 프랑스어 어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dispositif de l'enrichissement)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과 프랑스

9) 전문용어와 신어 일반위원회의 초기 형태인 ‘전문용어 일반위원회(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가 시행령(Décret n° 86-439)에 따라 설치된 바 있다.

한림원,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 프랑스어 동맹국의 언어 정책 책임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학 연구실의 데이터베이스 지원 체계, 표준 협회, 유럽위원회 번역 관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의 중심은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의해 임명된 위원장과 프랑스 한림원 소속의 종신 위원 6명과 문화부 추천 위원 12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2017년 11월 이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매월 1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간사 기관은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으로 매년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를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국회보고서'의 부록으로 붙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의 임무는 프랑스어 풍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용어 보급을 개선하며, 다언어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용어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검토 회의당 평균 50개 용어를 검토하여 연간 약 300여 개의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결정하여 추천하고 있다.<sup>10)</sup>

한편, <그림 3>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총 10명의 고위공무원이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에 참여하는 각 단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해당 부처 소관의 전문가 집단을 이끄는 등 프랑스어 사용 촉진 정책을 이끌고 있다. 현재 19개 전문가 집단이 14개 부처 내에<sup>11)</sup> 구성돼 있는데 각 전문가 집단에는 20~30명의 전문가들<sup>12)</sup>이 자원봉사하며 총 300여 명에 이른다. 이 전문가 집단은 2015년 이전에는 장관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

10) 2015년에는 14개 분야의 268개 용어와 긴급 검토 용어 2개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16년에는 9개 분야의 221개 용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11) 프랑스 용어 시스템에 모든 과학 기술 분야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나 프랑스 정부 부처 담당 영역과 관계된 용어 위원회에 관계된 분야만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한 용어가 여러 정부 부처 담당 영역과 관계가 된다면 '모든 분야' 항목에 분류된다. 프랑스 용어 시스템은 2018년 현재 82개 분야의 용어가 포함돼 있다.

12) 회사 및 협회 대표, 전문 기자, 언어학자, 전문용어 학자, 번역자 등 언어 전문가, 행정 서비스 대표자 등

되어 운영되던 것에서 2015년 시행령(Décret n°2015-341) 제6조 개정에 따라 이후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정비되면서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되었으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했다.

## 5.2.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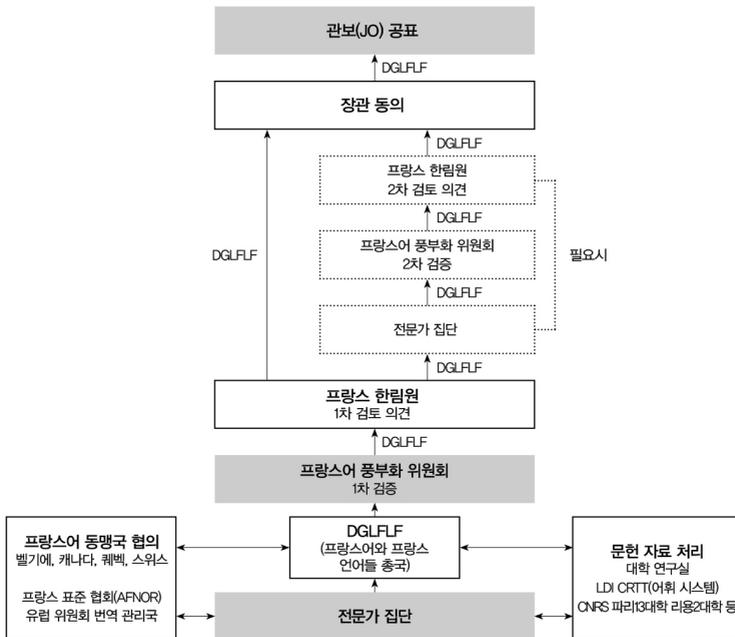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 내의 작업 절차를 보면 우선 문헌 자료 처리를 담당하는 연구실이 말뭉치에서 신어 후보 목록을 추천하고, 이어서 각 부처 소관별 전문가 집단이 검토하게 된다(두 전문가 집단이 검토할 수도 있음). 검토가 완료된 목록에 대해서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가 1차 검증을 하게 된다. **검증 대상인 모든 외래어 용어는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위원회는 각 개념을 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뜻풀이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 풍부화 위원회의 용어 선정 3대 원칙이다.

- ① 주어진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어를 선정한다.
- ② 지칭 대상인 현실 또는 개념에 명확하게 연결되는 용어를 선정한다.
- ③ 프랑스어 단어 형성 규칙에 적합한 용어를 선정한다.

이처럼 검증이 완료된 자료에 대해 프랑스 한림원이 찬성 의견을 내면 관계 부처에 다시 의견 조회를 한 후 장관 동의를 거쳐 관보에 게시된다. 해당 부처가 관보 게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프랑스 풍부화 위원회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시행령(Décret n°96-602) 제9조 참고]. 한편, 프랑스 한림원에서 반대하면 다시 전문가 집단과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가

1차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 2차 검증을 하게 된다.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의 신어 감지와 전문용어 구축을 위한 전 작업 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제한된 수의 전문가 집단 내에서 만장일치에 실패한다면 해당 용어가 대중의 언어생활에 뿌리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 집단이나 부처 등에서 긴급 처리되어 프랑스 한림원의 검증을 바로 받아 관보에 게시될 수 있는 용어들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긴급 검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한정된 수의 용어만 이에 포함된다.

**그림 3** 프랑스 풍부화 작업 절차



### 5.3. 프랑스어 풍부화 사용자 참여

한편, 이 풍부화 체계에는 인터넷 창구(wikilf.culture.fr)와 사용자 의견 제안 창구(culture.fr/franceterme/boiteidees)도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사용자도 신어 후보를 제안하고 용어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에 이 시스템을 통해 230개의 용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160개가 전문가 집단에 전달되어 검토되었다. 사용자들이 제안한 용어들은 풍부화 체계 내의 전문가 집단이 다루고 있는 용어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 분야는 경제 및 회계(16년, 35개 용어)와 정보(27개 용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중 14개 용어가 2016년 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7년 말에는 13개 용어가 관보에 게재되었으니 매년 5% 정도가 사용자 참여에 의한 결과로서 민, 관, 학이 협력하여 프랑스어 풍부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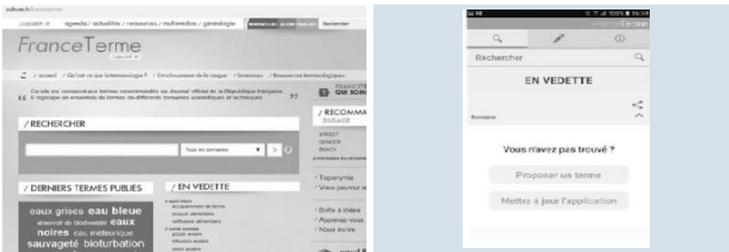
**표 4** 사용자 제안 용어 중 관보에 게시된 용어 예

	프랑스어(관보 게재)	영어(외래어)	의미
2016	<i>assurance au kilomètre</i>	<i>pay-as-you-drive,</i> <i>PAYD</i>	주행 거리별 보험
	<i>camion de restauration,</i> <i>camion restaurant</i>	<i>food truck</i>	식당 차
2017	<i>inhabileté numérique</i>	<i>computer illiteracy,</i> <i>digital illiteracy,</i> <i>information illiteracy</i>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 (컴맹)
	<i>internet clandestin</i>	<i>dark net,</i> <i>darknet</i>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네트워크나 기기들의 집합 (다크넷)

#### 5.4. 프랑스어 용어 사용 촉진 및 후속 관리

프랑스 풍부화 체계에 의해 구축되고 프랑스 관보(JO: Journal Officiel)에 발표된 용어는 2017년 760여 개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와 공공 기관 종사자들은 이 용어를 의무로 사용해야 하며, 번역사와 과학 기술 분야의 신개념 용어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및 용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는 프랑스어 용어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는 작업이 완료된 프랑스 용어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FranceTerm)을 웹과 휴대용 전자 기기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등의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용어 사용 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4 프랑스 용어 검색 시스템



웹 프랑스 용어(www.culture.fr/franceterme)

모바일 프랑스 용어

그러나 신어 개발이나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미래 언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랑스어 풍부화 작업의 효과는 단순한 통계적 측정으로도 일부 파악할 수 있지만, 신어들이 프랑스 언중의 언어생활 속에 추천한 공식적 표현과 의미로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신어를 감지하고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감시자들(Veilleurs)’ 연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연구 사업에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BNF)의 전자 서적 납본 담당 부서, 대학의 자연어 처리 연구실<sup>13)</sup>, 카탈루냐 용어 센터(TERMCAT)가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2010년 말부터 2016년까지 전자 납본된 신문사 누리집을 이 연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검색 시스템들(Neovelle1, Logoscope, Obneo, Morfetik)의 기능을 개선·보완·연계하여 의미론적 신어 탐지, 신어 자동 추적 및 확산의 측정에 활용하고 있다.

## 6. 결론

프랑스어는 헌법상에서 프랑스 국어로 인정되며, ‘프랑스어 사용법’이 제정돼 이를 위반할 때 형사 소송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등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제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자국어인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프랑스어 사용법 위반 사례의 적발 시 소송을 통한 통제보다는 경고, 경고보다는 권유를 통해 사용자의 자발적인 프랑스어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어에 대응하는 프랑스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신어 정책도 통제가 아니라 어휘 자원의 풍부화와 추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민, 관, 학과 대내외적 관계 기관 연계로 구성된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에 따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신어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어 사용 주체인 국민의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고 학계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에서 추천할 용어 개발 작업은 최대한의 협의와

13) 프랑스 리옹 2 대학, 스트라스부르 대학, 파리 13 대학, 바르셀로나 폼페우 파브라 대학

합의 원칙에 기반을 둬으로써 개발된 용어의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따지기에는 정책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언어 정책의 성공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언어 수용과 사용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정책 기관의 일방적 보급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는 신어 정책에서 안정적으로 신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신어의 파급도를 측정하고 미래의 언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프랑스어 진흥을 위한 장치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강제 기관에서 협의 및 조정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와 조정 과정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고 언어생활에 대한 현황 조사 기능 역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 설계와 수립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권재일(2015), “남북한 어휘 단일화”, 《새국어생활》 25-4, 국립국어원, 107-124쪽.
- 남영신(2015), “국어문화원 제도와 공공 언어” 《새국어생활》 25-3, 국립국어원, 53-75쪽.
- 프랑스 법률 검색 종합 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
- 프랑스 용어(FranceTerme) 누리집: <http://www.culture.fr/franceterme>
-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공식 누리집(<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
-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2016), “Rapport annuel de la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2016)”
- DGLFLF(2014), “Référence 2014: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le cadre légal”
- DGLFLF(2015), “Langue française: une loi, pourquoi faire ?” Acte de la journée d'étude du 13 octobre 2014
- DGLFLF(2016 b), “Références 2016 :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 DGLFLF(2016 c), “Rapport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2016”
- DGLFLF(2017), “Rapport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2017”
- DGLFLF(2018), “Bilan 17”



## 선생님, 저희 토론 더 하게 해 주세요

-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협력:

###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토론학교 이야기

김진익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

#### 1. 그 어려운 토론을 경기꿈의학교에서 배운다고?

‘토론으로 마음을 모으는 토요학교’, ‘토마토 토론학교’의 원래 이름이다. 이 학교는 학교 안에 없다. 대안 학교도 아니다. 토마토 토론학교는 2017년에 꿈의학교<sup>1)</sup> 중 하나로 개교했다. 개교 당시에는 부천의 한 시민인 정석화 씨가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정석화 씨는 교육청의 학생 토론 교육 행사에 시민 관정관으로 참여했던 인연으로, 토론 교육에 매료되었다는 시민이었다. 토론 학교는 관내의 청소년 수련 시설을 대관하고 토론 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하였다. 1년이 지난 2018년 현재에는 참여한 학생들의 요청과 학부모의 든든한 지지에 힘입어 부천의 청소년 기관인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이어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천 여성청소년

1) 경기꿈의학교(꿈의학교)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예산도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가꿀 수 있도록 미리 도전해 보고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다. 2018년 현재 경기도에는 천 개의 꿈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토마토 토론학교 1기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지역 사회 탐구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마을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은 교실 토론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사회적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서 초등학생들의 독서 토론을 지도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지도 교사를 돕는 보조 지도자 활동이 그것이다. 토마토 학교 학생들의 멋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토론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 토론학교와 학생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 2. 선생님, 학생, 그리고 시민이 만나 토론학교의 주체가 되다

토마토 토론학교의 운영 주체는 학교나 교사가 아니다. 부천 시민들이 다. 토론 교육의 가치에 공감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학부모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학교이다. 물론 학생들의 토론 수업과 교육과정은 지역 사회의 토론 교육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운영했다. 경윤영 선생님, 최수진 선생님, 고지연 선생님 등 세 분의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다.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로서 나도 ‘학생들에게 토론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기꿈의학교가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론 교육과정 구성, 학생 모집, 시설 대관 등 필요한 것을 지원했다. 시민들이 토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경기 교육의 가치를 만들고 교육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몇 달의 준비를 거쳐 경기꿈의학교 공모에 뽑힌 토마토 토론학교, 드디어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공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

게 마음이 벅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장을 맡아 운영하시는 시민이 전화를 주셨다. “왜 이럴까요? 참가 신청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학생 모집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토마토 토론학교의 요청으로 학교 설명회를 해 보자는 대안이 나왔다. 날을 잡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내하고 설명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설명회 당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원 담당자로서 정말 아쉬웠다. ‘이대로 접어야 하나?’, 속이 새까맣게 타는 시간이었다. 무려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2명의 학부모만이 찾아왔다. 그래도 부천에서 처음 만드는 ‘토론학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여 설명했다.

‘그 어려운 토론을 배우러 학생들이 모이겠어?’라고 생각했던 토마토 토론학교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온라인 접수 등록을 마감하는 날에, 토론을 배우고자 등록한 학생이 30명 정원을 넘어 무려 36명이나 되었다. 토마토 토론학교는 등록한 학생들을 면접하였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면접이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 면담이었다. 예상대로 학부모의 권유로 참여한 학생이 많았다.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지만 학생이 면접장까지 찾아온 것도 대단한 도전이라고 격려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여기서 진짜 기적을 만난다. 어떤 중학생이 놀라운 대답을 한 것이다. 자신은 “기억만 하는 사람(memorizer)이 되고 싶지 않다.”고, “창조(inventor)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토론으로 답을 찾아보겠다.”며 참가 동기를 밝힌 것이다.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가진 학생을 만난 면접관들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더구나 이런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다. 면접이 끝난 직후부터 토론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열정이 동시에 피어났다. 그날 밤부터 토론 교육 과정을 새로 마련하는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날 이후에도 여러 번 열렸다. 이 역시 자발적으로…….

〈토마토 토론학교의 연간 교육과정(2017)〉

순	일시	주요 활동 내용	시간
1	2017. 5. 1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및 포부 밝히기</li> </ul>	4
2	2017. 5. 2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교식 및 꿈의학교 희망 나누기</li> </ul>	4
3	2017. 6. 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토론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크라틱 세미나 입문 및 실습</li> <li>- Co-leader 교육</li> <li>- 소크라틱 세미나 스케치</li> </ul> </li> </ul>	4
4	2017. 6. 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 유형 구분, 논제 해석</li> <li>• 행사 토론으로 논증 구조 익히기</li> <li>• 토론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 전지 토론</li> </ul> </li> </ul>	4
5	2017. 7. 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속 인물이 살던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lt;박열&gt; 감상</li> </ul> </li> </ul>	4
6	2017. 7.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캠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론 쓰기 및 토론 개요서 작성</li> <li>- 반론 쓰기 및 교차 조사 질문 작성하기</li> <li>- 최종 발언 실습</li> </ul> </li> </ul>	8
7	2017. 7. 2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캠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형 쟁점형 디베이트 모형 활용</li> <li>- 판정 실습</li> </ul> </li> </ul>	8
8	2017. 8. 1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 스탠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li> </ul> </li> <li>• 토론 꿈의학교 역량 나눔 봉사를 위한 방법 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탁 토론</li> </ul> </li> <li>• 모둠별 프로젝트 봉사 활동 계획서 작성</li> </ul>	4
9	2017. 9. 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로써의 토론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툴킷 활용</li> </ul> </li> <li>• 구체적인 활동 구안</li> </ul>	4
10	2017. 9.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루 광장 토론 한마당을 위한 분과별 활동</li> </ul>	4
11	2017. 9. 1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부천 아고라, 학생 정책 토론 한마당 개최</li> </ul>	4
12	2017. 10. 2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사회적 기업 시지온 김미균 대표님과의 만남</li> <li>• 흥대 거리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뎀 미션 수행</li> </ul> </li> </ul>	4
13	2017. 12. 2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토론 (신호등 토론, 끝장 토론)</li> <li>- 성장 발표회</li> </ul> </li> </ul>	4

### 3.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토론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 이야기

토론을 배우겠다고 뛰어든 30명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체로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중학생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은 2명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토론 경험에도 상호 간에 차이가 있었다. 토론 교사들은 학생들의 여러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토론 학습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마음 열기’, 본격적으로 토론의 실재를 학습하는 ‘우리 마음 세우기’, 토론 학습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치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인 ‘다른 마음 지지하기’, 지역 사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적인 활동을 선보이는 단계로서 ‘마음 모아 우리의 실천으로’ 등 4단계로 구성했다. 이것은 토마토 토론학교의 성패가 교육과정 구성에 달려 있다는 선생님들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해서 참여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마음 열기’ 단계는 독서 토론의 방법 중 하나인 ‘소크라틱 세미나(Socratic Seminar)<sup>2)</sup>’<sup>2)</sup>로 나아갔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떠올리고 친구들의 생각이 담긴 답을 경청하고 논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질문을 시작으로 답하고, 그리고 또다시 질문이 이어지며 꼬리를 무는 대화 방식이 핵심이다. 그리고 학생들 서로가 시선을 마주하고 평등한 관계로 대화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형식을 갖추어 유창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2) Victor J. Moeller and Marc V. Moeller, (2015), 《Socratic Seminars in Middle School: Texts and Films That Engage Students in Reflective Thinking and Close Reading》, New York, Routledge.

질문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별로 없다. 학창 시절, 쓸데없는 질문했다며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학급 친구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일은 비단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소크라틱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찾는 방법을 알려 주고 보다 좋은 질문을 선별하는 안목도 키우도록 지도한다. 소크라틱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
-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
-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혹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모든 것
-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소크라틱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토론 방법이다. 대단히 유창해야 좋은 토론자이고 어느 순간에는 공격적으로 보이는 말하기가 토론이라는 편견을 갖고, 의무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이 토론 방법은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신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마무리는 소크라틱 세미나 정리 과정이다. 글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마무리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가 정리되고 깊이 있게 다듬어지는 절차이다. 이후에는 토론 수업 진행 과정과 자신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쓴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참여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더 나은 토론을 위해 준비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우리 마음 세우기 단계는 찬반 토론의 구성 요소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

이다. 논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배운다. 또한 논증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부터 주장-반박-재반박의 과정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 토의 진행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주장, 이유, 논거, 특히 논증 요소를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토론 캠프 형태의 학습이었다. 찬반 토론에서는 진리를 찾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논쟁한다. 찬성과 반대 측 입장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에서 논증적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내용은 서로의 주장과 이유, 논거에 관해 논증과 논박을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 사이에 관련성을 찾아보기도 한다. 또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실을 인식하는 관점을 바꾸기도 한다. 토론 교사는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고의 전환 또는 새로운 관점,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으며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에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 4. 여름 토론 캠프 이야기

토마토 토론학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틀 간 토론캠프를 열었다. 토론 캠프 장소를 제공한 학교는 부천교육지원청이 지정한 학생 중심 토론학교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토론 교육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있는 학교다.

토마토 토론학교는 여름 방학 토론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 두 달 전부터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학생들과 함께 읽을 책도 선정

하였는데 《철학, 과학 기술에 다시 말을 걸다》를 학생 모두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가 하면 저자도 만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현주소와 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탐구하고 지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토론 캠프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찬반 토론의 논증을 익히고 실천 토론 실습과 판정 피드백을 모든 학생이 4회 이상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토론 결과에 관한 판정을 통해 자신의 토론을 회상해 보고 논증 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토론에서 역량이 크게 성장하는 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판정관의 피드백과 같은 외적 평가와 자기 스스로 논리를 점검하는 지적 작용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판정관의 판정 및 판정 평은 일종의 학생 개별화 지도 과정이다. 학생들은 논제 분석, 논증의 과정, 쟁점의 파악 여부, 언어적 표현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판정 평을 듣는다. 또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토론 논제에 어떻게 접근했는가?' 등에 대해서도 판정이란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더 나은 논증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은 '어느 입장이 더 우월하게 논증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논증을 성찰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다음 토론에서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조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더 많이 쏟았다. 학생들은 매번 판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였고 그 다음 토론에서 토론 역량이 보다 개선,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타인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는 경험, 논리적 증명의 과정으로 진실을 탐구하고 즐기는 경험, 논리를 거꾸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자 도전하는 경험이 토론에서 이뤄지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여름 방학 토론 캠프는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토론 교육으로 자신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갖고, 실력을 키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 중에는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고 토론캠프 전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는 학생도 있었다. 새벽까지 개요서를 작성하고, 그 상황에서 하루 8시간 수업을 들으며 강행군한 끝에 몸살이 나는 학생들도 있었다. 게다가 굶은 날씨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토론 수업에 신명이 올라 있었다. 학기 초에 수줍고 소극적이었던 그 학생들은 어느새 사라졌다.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선택에서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사를 마칠 때 읽었던 토론 캠프 참여 소감은 교사들에게 더욱 큰 보람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16시간 동안 토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니, 토론의 실력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중1 때는 이런 말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가 하고 돌아보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 내 의견 말하기에 급급해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론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던 느낌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토마토 학생들은 토론을 배우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었다. 이 모습에는 지도하는 선생님의 열정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토마토 토론학교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교사와 시민,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며, 학교 밖 학교가 학교와 적절히 연계성을 갖고 지역교육공동체와 체계를 공유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 5.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다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토론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더 가치 있는 배움은 토론 캠프 이후에 생겼다. 더 가치 있는 배움은 바로 다른 마음을 지지하고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꿈의학교를 통해 토론을 새롭게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자신들을 도운 것과 같이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어떻게 나눌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란 테이블 토론 툴킷’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토론 방법을 익혔고 그 결과로 학생들이 제안한 것이 부천의 청소년 100명과 함께 청소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책 포럼을 열자는 것이었다. 토론자, 사회자, 진행 요원, 현장 취재 및 촬영, 등록 접수 등등의 모든 과정에서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이 고민하며 준비하고 실천으로 활동했다. 부천역 앞 광장에는 마루 광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을 ‘아고라’로 이름을 붙이며,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의 현장을 재현하고자 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입시 제도 문제라는 진지한 주제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지역 사회의 어른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2018년도에도 이 행사가 이어지며 정례화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역량을 지역 사회에서 삶의 문제로, 실천적 행동으로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 2017 부천 아고라 ‘학생 정책 토론 한마당’ 일정표(최종)

- 일시 : 2017.9.16.(토) 10:00-11:30
- 장소 : 부천역 마루광장
- 대상 : 부천 중·고교 학생 참가 희망자 120명

토론회 주제 : <b>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교육,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b>			
식전 공연			
인사말 (5분)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방용호		
발제 (10분)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교육, 부천교육의 현재와 미래 - 김시연 (부명고, 전 고교 학생회장 연합회 회장)		
자정토론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5인 1팀)	고교학생자치회연합회 (5인 1팀)	비고
<b>1ROUND : 외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어떻게 볼 것인가</b>			
입론	5분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입안 토론자 ①	나머지 4명의 팀원이 협의 하여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질문 답변	5분	모두 대답	
난상토론1 (15분)	<b>(행사 중 질문 접수)</b> ※ 청중이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토론자 답변한다.(객석 마이크 운영: 학생기획단)		
<b>2ROUND : 학생부 중립전령, 적성과 흥미 중심의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인가</b>			
입론	5분	학생 자치회 연합회 입안 토론자 ①	나머지 4명의 팀원이 협의 하여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질문 답변	5분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질의 토론자 ②	
난상토론2 (15분)	<b>(행사 중 질문 접수)</b> ※ 청중이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토론자 답변한다.(객석 마이크 운영: 학생기획단)		
팀별 입장 정리	5분씩 10분 소요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최종발언 토론자 ③	각 팀의 ⑤번 토론자는 대답과 자료 정리를 맡는다.
강평 및 격려 (5분)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방용호		
식후 공연			

교육 정책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교육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내용, 방식, 제도 등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이제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입시 제도

라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토마토 토론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젝트’ 과정에서 ‘토론을 돕는 멘토’ 활동에도 참여했다.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토론 역량을 지역 사회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했다.

## 6. 토론학교 토마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민주 시민 교육의 지평을 넓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토마토 토론학교는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토론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이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서이다. 토마토 토론학교에서 배움을 찾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점도 공유했다.”

“다양하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참신했고, 토론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토마토 토론학교가 운영된 약 6개월 동안 학생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기회가 생겼다. 그 사이에 학생들이 보인 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었다. 첫째는 그저 말을 잘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알고 있던 학생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학생들은 토론에서 더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논증의 각 요소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며 듣는 것이다. 사례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며 듣는 것이다. 논증이 충분한지, 사실인지, 적절한지 계속 생각하며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다. 또한 그 배움은 승패 판정이라는 오락적 요소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적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토론의 과정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이 잘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정답만을 찾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학생들은 이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정답이 무엇이지 찾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근거를 찾기 위해 독서를 한다. 그래서 토론을 배운 학생들은 어느새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토론 학습이 독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학생들이 도전하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토마토 토론학교의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에 익숙해진 것은 수업이나 활동 과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학습의 결과에서 온 것이다.

토마토 토론학교의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것을 배우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다. 자신들이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토론학교에서 배운 토론을 지역 사회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도에도 아고라 청소년 정책 토론회는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전히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이 없었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이며 이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 명의 교사와 한 명의 시민, 그리고 30명의 학생이 만든 기적은 비록 작지만 대단히

도전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을 통해 배움을 즐기는,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저희 토론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실은 단지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마을의 선생님과 시민이 만나고 협력한다면 학교와 마을 곳곳은 모두 학생들의 배움의 마당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대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토론 교육 정책의 첫걸음은 토마토 토론학교를 통해 시작된 것이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이다. 민주 시민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이 토론을 충분히 배울 권리와 기회는 어디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적 현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국어과 교과와 교육과정과 화법 과목 등에 토론 교육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초중고의 교육적 여건이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마토 토론학교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토론을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적어도 부천부터라도 시작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곳이 학교라면 좋겠지만 마을에서 해도 좋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어깨를 맞대며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대를 갖고 한 걸음씩 실천하는 토론 교육은 교육 정책 추진 담당자인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다.

국립국어원 소식



## 국립국어원 소식

### 1.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해 나가야 할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문체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비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점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 주요 내용

- (추진과제 1)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점자 전문인력 자격의 종류, 요건 등에 대한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지자체의 점자 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례 표준안 마련 및 배포
  - 주요 생활용품, 공공시설 등에 적용할 점자 표기 규격 표준화 방안 마련
  - 직렬 신설 등 점자 전문 인력 인사 관리 개선 방안 검토(인사혁신처)
- (추진과제 2)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 공공시설·공적 인쇄물 등의 점자 표기, 점자 사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장애 유형, 발생 시기,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점자교재 개발
  - 점자 교과용 도서 공급의 체계화 및 점자 보조 교과서 개발(교육부)
- (추진과제 3)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 지역 소재 점자출판시설의 여건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 점역·역점역(逆點譯)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및 점자 포털 구축
  - 점자 문화유산 전시, 점자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 점자 인식 개선

## 2. 2018년 1~3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1	꺼림칙이	『복한어, '꺼림칙이'의 복한어.	=꺼림칙이.	· 뜻풀이 수정 · 복한어 정보 삭제
1-2	꺼림칙하다	①→ 꺼림칙하다. ②『복한어, '꺼림칙하다'의 복한어.	=꺼림칙하다.	· 뜻풀이 수정 · 복한어 정보 삭제
1-3	꺼림칙스럽다	보기에 거리껴어 언짢은 데가 있다.	보기에 꺼림칙한 데가 있다.	· 뜻풀이 수정
1-4	꺼림칙이	매우 꺼림칙하게.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게. ≒꺼림칙이.	· 뜻풀이 수정
1-5	꺼림칙하다	매우 꺼림하다. ≒꺼림칙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꺼림칙하다.	· 뜻풀이 수정
1-6	꺼림하다	마음에 걸려 언짢은 느낌이 있다. ≒꺼림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은 느낌이 있다.	· 뜻풀이 수정
1-7	꺼름칙하다	①→ 꺼림칙하다. ②『복한어, 조금 꺼름하다.	=꺼름칙하다.	· 뜻풀이 수정 · 복한어 정보 삭제
1-8	꺼름칙하다	=꺼림칙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꽤 있다. ≒꺼름칙하다.	· 뜻풀이 수정
1-9	꺼름하다	=꺼림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은 느낌이 꽤 있다.	· 뜻풀이 수정
1-10	추어올리다	【…을】 ①위로 끌어 올리다. ②실제보다 높여 칭찬하다. ≒추어주다.	【…을】 ①옷이나 물건, 신체 일부 따위를 위로 가뜩하게 올리다. ≒추켜올리다①·치켜올리다①. ②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추어주다·추켜올리다②·치켜올리다②.	· 뜻풀이 수정
1-11	추켜세우다	1【…을】 ①위로 치올리어 세우다. ②→ 치켜세우다②. 2①『복한어, 잘 안되고 있는 일을 잘되는 상태로 올려세우다. ②『복한어, '추어올리다②'의 복한어.	①【…을】=치켜세우다①. ②【…을 …으로】【…을 -고】=치켜세우다②. ③『복한어, 잘 안되고 있는 일을 잘되는 상태로 올려세우다.	· 뜻풀이 수정 · 복한어 정보 삭제
1-12	추켜올리다	1【…을】 ①위로 치올리어 세우다. ②→ 치켜세우다②.	【…을】 ①=추어올리다①. ②=추어올리다②.	· 뜻풀이 수정 · 복한어 정보 삭제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㉔ ①『북한어』 잘 안되고 있는 일을 잘되는 상태로 올려세우다. ②『북한어』 '추어올리다'의 북한어.		
1-13	치켜세우다	①[...을]웃기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린다. ②[...을 ...으로][...을 -고]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①[...을]웃기이나 신체 일부 따위를 위로 가뿐하게 올려 세우다. ㄴ추켜세우다①. ②[...을 ...으로][...을 -고]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ㄴ추켜세우다②.	· 뜻풀이 수정
1-14	치켜올리다	『북한어』 ①'추어올리다'①의 북한어. ②'추어올리다'의 북한어.	『...을』 ①=추어올리다①. ②=추어올리다②.	· 뜻풀이 수정 · 북한어 정보 삭제
2-1	성숙하다	「동사」 ①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다. ②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③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지다. ④어떤 사회 현상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이나 상태가 충분히 마련되다.	[ ]「동사」 ①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다. ②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③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지다. ④어떤 사회 현상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이나 상태가 충분히 마련되다. [ II ]「형용사」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 같은 데가 있다. ♣그는 또래보다 {성숙하다}/인조건 검정 치마 옥색 저고리를 입은 {성숙한} 모습에 쪽을 찢으니 시집은 간 모양이다. <박경리, 토지>	· 품사 추가
3-1	-째02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와 수사 뒤에 붙어))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와 수사 뒤에 붙어)) ①'차례'나 '등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②'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사흘째}/ {며칠째}/ {다섯 달째}.	· 뜻풀이 추가
3-2	파생어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①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②『언어』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들. 또는 그런 일.	· 뜻풀이 추가
3-3	하다이	[ II ]「보조 동사」 ①((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 II ]「보조 동사」 ①((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 뜻풀이 추가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p> <p>②((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주로 '-었으면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하거나 앞말의 상태가 되기를 바램을 나타내는 말.</p> <p>③((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p> <p>④((동사 뒤에서 '-으려고(고)하다', '-고자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도하거나 바램을 나타내는 말.</p> <p>⑤((동사 뒤에서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 따위의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p> <p>⑥((동사 뒤에서 '-고 해서', '-고 하여', '-고 하니'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사실이 뒷말의 이유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p> <p>⑦((동사 뒤에서 '-고는 하다', '-곤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습관처럼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p> <p>⑧((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내는 말.</p>	<p>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p> <p>②((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주로 '-었으면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하거나 앞말의 상태가 되기를 바램을 나타내는 말.</p> <p>③((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p> <p>④((동사 뒤에서 '-으려고(고)하다', '-고자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도하거나 바램을 나타내는 말.</p> <p>⑤((동사 뒤에서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 따위의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p> <p>⑥((동사 뒤에서 '-고 해서', '-고 하여', '-고 하니'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사실이 뒷말의 이유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p> <p>⑦((동사 뒤에서 '-고는 하다', '-곤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습관처럼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p> <p>⑧((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내는 말.</p> <p>⑨((일부 동사 뒤에서 '-어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상태나 태도를 드러냄을 나타내는 말. ¶ 그는 첫사랑을 못 잊어 {한다}. /아들은 개학 첫날부터 학교 수업을 못 견뎠다 {했다}.</p>	
3-4	단단하다	③속이 차서 <b>아무지고</b> 실속이 있다.	③속이 차서 실속이 있다.	· 뜻풀이 수정
3-5	단단히	③속이 차서 <b>아무지고</b> 실속이 있게.	③속이 차서 실속이 있게.	· 뜻풀이 수정
3-6	동상09	구리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런 형상에 구릿빛을 입혀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기념물. 주로 구리로 만든다.	· 뜻풀이 수정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7	목물어	②팔다리를 뺀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등목·등물어.	②상체를 굽혀 엎드린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물로 씻는 일. ≒등목·등물어.	· 뜻풀이 수정
3-8	삭발	①머리털을 깎음. 또는 그 머리.	①머리털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게 깎음. 또는 그 머리.	· 뜻풀이 수정
3-9	아주높임	①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 '각하' 따위가 있다. ≒극존칭·최존칭.	①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높여 이르는 말. '당신', '이분', '저분' 따위가 있다. ≒극존칭·최존칭.	· 뜻풀이 수정
3-10	예사높임	①인칭 대명사에서, 예사로 높여 이르는 말. '당신', '그대', '노형', '이분', '저분' 따위가 있다. ≒보통존칭.	①인칭 대명사에서, 예사로 높여 이르는 말. '당신', '그대', '노형' 따위가 있다. ≒보통존칭.	· 뜻풀이 수정
3-11	을02	㉠⑤'가다', '오다', '떠나다' 따위의 동사들과 어울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보다 강조하는 뜻이 있다.	㉠⑤'가다', '오다', '떠나다' 따위의 동사들과 어울려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뜻풀이 수정
3-12	합성어	⑥'복한어' 「언어」 자립적인 단위끼리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들. 또는 그런 일. 자립적인 단위로는 단순한 것, 확대된 것, 문법 형태를 가진 것' 따위가 다 될 수 있다. ≒합침.	⑥'언어'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들. 또는 그런 일.	· 뜻풀이 수정 · 복한어 정보 삭제
4-1	외화벌이	외화벌이(外貨--) 「명사」 「복한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 ♣ 원천이 풍부한 {외화벌이}.	외화-벌이(外貨--) [외: ---/웨: ---] 「명사」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 ♣ {외화벌이에} 나서다/{외화벌이를} 위한 외국인 전용 매장이 늘고 있다.	· 복한어 정보 삭제
4-2	보이다어	㉡(「...으로 나 '-게' 대신에 평가를 뜻하는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으로 나 '-게' 대신에 평가를 뜻하는 다른 부사어가 쓰이거나 '-아/어 보이다' 구성으로 쓰이기도 한다))	· 문법 정보 수정
5-1	-르걸	① ♣ 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걸}/너보다 키가 더 {클걸}.	① ♣ 우리의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기차역일걸}/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걸}/누나는 너보다 키가 {클걸}/날이 풀려서 곧 발을 {갈걸}/선생님은 편찮으셔서 댁에 {계실걸}.	· 용례 수정 (추가)

### 3. 국립국어원 2018년 3분기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다듬은 말: 전자 광고판
- 모듈러 주택(modular 住宅)의 다듬은 말: 조립식 주택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다듬은 말: 의결권 행사 지침
- 워킹 그룹(working group)의 다듬은 말: 실무단
- 주니어 보드(junior board)의 다듬은 말: 청년 중역 회의
- 키스 앤드 라이드(kiss and ride)의 다듬은 말: 환승 정차 구역
- 트랜스 미디어(trans media)의 다듬은 말: 매체 융합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되는 전자 정보 표시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전자 광고판’으로 다듬었다. ‘모듈러 주택(modular 住宅)’은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현관문, 욕실 등 집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블록을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조립식 주택’으로 다듬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다듬었다. ‘워킹 그룹(working group)’은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또는 실무 회의를 진행하는 협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실무단’으로 다듬었다. ‘주니어 보드(junior board)’는 기업이 과장급 이하의 직원들 가운데서 선발한 청년 사원들을 청년 중역으로 임명해 기존의 임원 회의나 중역 회의와는 별도로 회사의 중요 안건이나 문제를 제안·토의·의결하게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를 ‘청년 중역 회의’로 다듬었다. ‘키스 앤드 라이드(kiss and ride)’는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운전자는 내

리지 않고 같이 타고 온 여행자(대중교통 이용자)만 환승을 위해 내리는 곳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온 여행자를 승용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차하는 곳을 가키리는 말이다. 이를 '환승 정차 구역'으로 다듬었다. '트랜스 미디어(trans media)'는 매체(미디어) 간의 경계선을 넘어 서로 결합·융합되는 현상을 뜻하는데 '매체 융합'으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은 지하철, 공공장소, 호텔, 공항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특히 백화점 같은 대형 시설물에 가면 큰 화면을 통해 화려한 광고를 구현하고 있다.
- 이동식 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조립식 주택**(←모듈러 주택)은 초기에 저렴한 단독·전원주택으로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는 대형 행사장의 단체 숙소나 쇼핑몰 등으로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다.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우호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간과 부처의 **실무단**(←워킹 그룹)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 촉진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 행복한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돼 조직 문화에 대해서 토의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조직 문화 혁신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를 출범하기로 했다.
- 대중교통 이용자만 환승을 위해 하차하는 곳인 **환승 정차 구역**(←키스 앤드 라이드)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 이번 작업은 웹툰-애니메이션 영역을 넘나드는 **매체 융합**(←트랜스 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콘텐츠 확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 4. 문화학교 운영 결과 보고

### 4.1. 국어문화학교

- 원내 국어문화학교  
정규과정: 16회, 1,295명  
특별과정: 10회, 830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일반과정: 343개 기관, 369회, 37,151명  
특별과정: 59개 기관, 133회, 7,958명

### 4.2. 한국수어 문화학교

구분	과정명	대상	횟수	수료자
수어교육	공무원 대상 수어교육	공무원	2회	44명
	시민 대상 수어교육	일반 시민	10차시 4회	48명
	농인 대상 수어교육	농인	10차시 1회	4명
농문화 교육	수어 시 워크숍	농인	1회	26명
	찾아가는 문화학교	일반인	10회	259명
합계				381명

## 5. 국내외 한국어교원 연수회

### 5.1. 2018년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배움이음터(하반기)

대상	일시	대상 기관	특강 주제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10. 5.(금)	동국대학교	학습자 오류 분석 및 피드백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관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KSL)교원	10. 18.(목)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이해 및 개발 교재 소개



## 5.2. 2018년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수료식 개최

-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16:00~17:2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강당
- 참석자: 한국어 예비 교원, 경력 교원, 국어원 관계자, 위탁 사업단 관계자 등 101명
- 내용: 일본 도쿄·오사카, 러시아 사할린, 카자흐스탄 알마티 내 재외동포 교육 기관 등에서 한 달간 국외 현장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어 예비 교원 58명에게 수료증 수여, 우수 예비 교원 4명에게 국립국어원장상 수여



## 6. 국제 교류

### 6.1. 싱가포르

- 파견 지역: 싱가포르
- 일시: 2018년 10월 9일(화)~10월 14일(일)
- 파견자: 이현주(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김지혜(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교수)
- 주요 내용: 싱가포르 지역 교원 연수회 강의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 6.2. 몽골(울란바토르)

- 파견 지역: 몽골(울란바토르)
-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10월 14일(일)
- 파견자: 박미영(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김성숙(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수)
- 주요 내용: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교원 연수회 강의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 6.3. 리투아니아(빌뉴스)

- 파견 지역: 리투아니아(빌뉴스)
-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11월 4일(일)
- 파견자: 박정아(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관), 조은(한국어진흥과 연구원)
- 주요 내용: 발트 지방 및 유럽 지역 교원 연수회 강의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유럽 지역 현지 한국어교육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확대

#### 6.4. 컴퓨터 자연어 처리 학술 대회 참가

- 출장 지역: 벨기에(브뤼셀)
- 출장 기간: 2018년 10월 30일(화)~11월 6일(화)
- 출장자: 이승재(언어정보과장)
- 출장 목적: 유럽 등 언어 말뭉치 분석, 조사, 활용 사례 및 현황 조사

#### 7. 제11대 국립국어원장 취임 기념 기자 간담회

- 일자: 2018년 12월 6일(목) 11:00~13:00
- 장소: 광화문 인근
- 참석자: 문화부 출입기자단(주요 일간지 기자 30여 명)
- 주요 내용: 2018년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중점 추진 사항 등 발표



## 8. 2018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전시회 및 시상식

### - 수상작 전시회

- 일자: 2018년 10월 9일(화)
- 장소: 광화문 북측 광장(2018 한글문화큰잔치)
- 참석자: 공모 수상자 및 일반인 관람객 약 5,000여 명



### - 찾아가는 전시회

- 일자: 2018년 10월 10일(수)~10월 23일(화)
- 장소: 이촌역 내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

### - 시상식

- 일시: 2018년 10월 9일(화) 12: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아미홀
- 참석자: 2018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수상자 20명(팀), 심사위원장 (김형철), 심사위원(진정란, 강진) 등



## 9. 2018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 일자: 2018년 10월 12일(금)
-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 현대자동차 경영관 지하307호
- 참석자: 공모 수상자 및 일반인 관람객 약 200여 명



## 10.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일시: 2018년 10월 26일(금) 10:00
-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 주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은 10월 26일(금)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국어, 의학, 법률, 건설,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남북 교류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전문용어 통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이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비롯해 모두 여섯 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김영훈 교수(고려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의 의료·보건 분야 남북 전문용어와 관련한 발표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준비 단계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남북 보건 의료 분야 통합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문용어의 번역과 관련한 정성희 교수(중국민족어문번역국)의 발표에서는 중국의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적 문서를 중국조선어로 번역할 때의 남북 전문용어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에 관한 신중진 교수(한양대학교)의 발표에서는 다년간 국립국어원과 진행한 국어 교과 및 체육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수집 절차와 비교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기준과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남북 법령 용어에 대한 류지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의 발표에서는 북한 법령 용어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남북 용어 통합의 법제적 측면과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송상훈 박사(토지주택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건설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용어집 구축 과정과 여기에서 확인된 남북 건설 용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향후 과제를 용어 측면과 언어 확산의 두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각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번 학술회의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 2018년 국립국어원 국제 학술 대회

- 주최/주관: 국립국어원
-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9:30~17: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이화삼성교육문화관) 1층 강당
- 주제: 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사전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개회	개회사	소강춘(국립국어원 원장)
	축사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대섭(한국농어인협회 회장)
발표1	수어 말뭉치 중심의 수어사전	트레버 존스톤(Trevor Johnston, 호주, Macquarie University)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2	수어사전의 구조	예트 크리스토퍼슨 (Jette H. Kristoffersen, 덴마크, University College Capital)
발표3	수어사전의 표제어 표기	요한나 메시(Johanna Mesch, 스웨덴, Stockholm University)
발표4	한국 수어사전의 현황과 발전 전망	발표자: 최혜원, 이현희(국립국어원)
발표5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어사전의 미래	발표자: 토마스 한케(Thomas Hanke, 독일, Hamburg University)

## 12. ‘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좌담회 개최

- 주최: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실·국립국어원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

구분	주제 및 토론 의제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 발표 및 토론 1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	발표: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토론: 김하수(전 연세대학교)
주제 발표 및 토론 2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및 지역어 조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발표: 이상규(경북대학교) 토론: 박경래(세명대학교), 박기석(김일성종합대학 객원 교수)
주제 발표 3	중국에서의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과 그 성과	현용운(중국조선어정보화학회장)

### 13. 각종 행사

#### 13.1. 2018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관련 학술 행사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주최: 국립국어원
- 주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13:00~17:30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 주제: 국어기본법 13년, 그 성과와 과제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개회	인사말	남영신(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 원장)
	축사	소강춘(국립국어원 원장)
기조 발표	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김슬옹(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부원장)
발표1	공공언어 분야에서의 국어기본법의 성과	이정복(대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발표2	국어기본법과 국어정책의 방향	이광석(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3	국어기본법에 대한 법리학적 검토	박덕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4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국어기본법을 다시보다	주세형(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토론	종합 토론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정재환(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용순(배명중 교사)
폐회	닫는 말	김슬옹(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부원장)

### 13.2. 2018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관련 학술 행사(국어사학회)

- 주최: 국립국어원
- 주관: 국어사학회
-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9:30~18:20
-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204호
- 주제: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개회	개회사	정재영(국어사학회장)
제1부 1분과	[개인 발표 (1)] 발표 주제: 한자어 어원의 국어사전 처리 방안 연구	발표: 김유범(고려대) 토론: 이준환(전남대)
	[개인 발표 (2)] 발표 주제: 어원의 한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	발표: 이래호(남부대) 토론: 이금영(충남대)
	[개인 발표 (3)] 발표 주제: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연구	발표: 이동석(한국교원대) 토론: 김현주(공주교대)
	[개인 발표 (4)] 발표 주제: 동사 '다치-'의미의 통시적 기원과 공시적 다양성	발표: 허인영·전은경(고려대) 토론: 송지혜(금오공대)
제1부 2분과	[개인 발표 (1)] 발표 주제: 한중일 3종 언어의 리듬과 운율의 형성과정 연구	발표: 정원수(충남대) 토론: 오재혁(건국대)
	[개인 발표 (2)] 발표 주제: 백제어의 연구사적 재검토	발표: 서엽(이화여대) 토론: 문현수(송실대)
	[개인 발표 (3)] 발표 주제: 한글간찰에서의 주제격과 목적격에 대한 단일화 과정 연구	발표: 김성욱(충남대) 토론: 백재원(서울대)
	[개인 발표 (4)] 발표 주제: 훈민정음 후음자 'ㅇ'의 기능과 파스파 문자	발표: 연구동(연세대) 토론: 이용(서울시립대)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제2부 주제 발표	[기조 강연] 발표 주제: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발표: 홍윤표(전 연세대)
	[주제 발표 1] 발표 주제: 국어 어원 사전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고찰	발표: 김무림(강릉원주대)
	[주제 발표 2] 발표 주제: 국어 어원 사전 편찬의 방법과 방향	발표: 조항범(충북대)
	[주제 발표 3] 발표 주제: 지역 방언 어원 연구의 방향과 과제	발표: 이태영(전북대)
	[종합 토론]	좌장: 정승혜(수원여대) 황선엽(서울대), 이건식(단국대), 백두현(경북대)
폐회/ 총회	폐회 및 총회: 국어사학회장, 총무이사	정재영(국어사학회장), 이동석(총무이사)

### 13.3. 2018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관련 학술 행사(한국어교육학회)

- 주최: 국립국어원
- 주관: 한국어교육학회
-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5:00~18: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305호
- 주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역량 중심 국어교육의 의의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개회	◦ 개회사	김창원(한국어교육학회 회장)
기초 강연 및 기획 발표	◦ 기초 강연: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및 성과 ◦ 기획 발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역량 중심 국어교육의 의의	김창원(경인교대) 민병곤(서울대)
집담회(토론)	◦ 주요 의제 -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회문화적 요구, 국어교육의 내적 요구, 대입 제도 및 공교육의 요구 등) - 선택 과목 구조에 대한 국어교육적 논리의 취약성 문제, 성취기준의 형식적 감축 문제, 학년군별 성취기준의 위계성 부족 문제는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 교실 수업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지점은 어디인가?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하고 있는가?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 영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이해 및 표현 능력, 문법 능력, 문학 능력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 설계 방향은 무엇인가?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교육사적 지점과 성과는 무엇인가?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남긴 국어학 및 국어교육 정책적 변화 요구는 무엇인가?	양정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경순(한국외대) 구본관(서울대) 박재현(상명대) 이선웅(경희대) 권순각(덕원예술고)

#### 14. 2018년 제4회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 일시: 2018년 11월 1일(목) 16:00
- 장소: 국립국어원 3층 강의실
- 주제: 한국 수어 사전 구축 계획
- 강연자: 이현화(특수언어진흥과)

올해 네 번째 원내 토론회는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이현화 주무관이 ‘한국 수어 사전 구축 계획’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현재 특수언어진흥과에서는 ‘한국 수어·한국어 양방향 이중 언어 사전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 수어 자료를 집대성하여 실제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담긴 사전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 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 수어 사전’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수어-한국어 사전은 한국 수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비수지 기호, 문법 정보 등을 고려한 한국 수어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사전이고, 한국어-한국 수어 사전은 농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수어로 한국어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 중심 사전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조어가 된 기존 한국 수어 사전과는 달리 한국 수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표제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인이 실제 사용하는 한국 수어 자료에 근거한 한국어-한국어 사전을 만듦으로써 한국 수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 간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농인의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여 한국어-한국 수어 사전을 구축하고, 양방향 이중 언어 사전의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일정을 밝히는 것으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양방향으로 사전이 구축되는 것은 처음이기에, 구축 과정과 의의에 대한 의견들이 오간 후 토론이 마무리되었다.

## 15.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 15.1. 2018년 제2차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9월 20일(목)
- 장소: 국립국어원

이번 위원회에는 국어규범정비위원회 위원 6명이 모여 어문 규정 해설서 개정판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15.2. 제141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및 연수회 개최

- 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 장소: 제천 청풍리조트

이번 위원회에는 외래어 심의회 위원 11명이 모여 미국의 정치학자명 ‘렌차우스키, 존(John Lenczowski)’ 등 총 11건의 외래어 표기를 확정하였고, 같은 날 진행된 연수회에서 신문지상의 영어 외래어 표기 문제 및 외래어 표기 심의의 기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15.3. 제142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및 연수회 개최

- 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이번 위원회에는 외래어 심의회 위원 14명이 모여 인도네시아의 정치가명 ‘밤방 수사토(Bambang Soesatyo)’ 등 총 12건의 외래어 표기를 확정하였다.

#### 15.4. 말다듬기 위원회 개최

- 일자: 2018년 11월 21일(수)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위원회에는 말다듬기 위원 13명이 모여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등 총 7건의 순화 대상어를 다듬었다.

#### 16. 인사이동

##### 16.1. 신규

- 한초롱(한시임기제 6호): 한국어진흥과(9. 17.)

##### 16.2. 전보

- 조경미(행정사무관): 교육연수과 → 문화체육관광부(10. 4.)